



보보담

LS Networks Membership Magazine BOBODAM
Issue 13, Summer 2014



«보보담» 2014년 여름 호(통권 13호)
LS Networks Membership Magazine
BOBODAM
Issue 13, Summer 2014

등록번호 용산 바00030
등록일자 2011년 6월 27일
ISSN 2234-1102

주간 : 구자열
자문 : 김윤수, 김화성, 안대회, 최성우
총괄 : 김연재
실무 : 손호영, 전유니

기획 편집 : 이지누, 강신재
디자인 : 헤이조 (www.hyjoe.net)
사진 : 박정훈, 문성진, 구범석
인쇄 : 으뜸인쇄 (02-2278-6387)

용지 : 삼원 리브스디자인 250g/m² (표지),
백모조 80g/m², 미색모조 80g/m²,
스노우화이트 80g/m², 아트 100g/m²

발행처 : (주)LS네트웍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발행인 : 김승동
발행일 : 2014년 7월 18일

구독 신청 : 당사 홈페이지
(www.lsnetworks.com)
[사이버홍보실] » [보보담] » [구독 신청]

지난 호에 대한 독자의견

12호는 제주도에 대한 백과사전이었습니다.
«보보담»을 끼고 제주도를 확보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척척박사였어요. 지인들에게 «보보담»을 끼고
제대로 제주도를 보라고 권했는데 몇몇 친구들이
시중에 나온 책자보다도 더 유용하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속속들이 알 수 있고 새롭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보보담»의
성가(聲價)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호가
기다려집니다.
채규정(전북 군산시)

운동을 하고 스포츠 바에서 잠시 쉬는데 그 많은
잡지 중에서 무언가 채치 있게 손짓하고 있는
«보보담»을 봤습니다. 묘한 표지, 눈에 확
들어오는 제목이나 본문 내용, 큼직큼직한
글씨들, 게다가 전혀 멋 부리지 않아 투박하지만
빠져 들고 싶은 사진들까지 속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속으로
‘요것 봐라... 제법인데?’하는 기분 좋은 건방도
떨어왔고요. 그야말로 all that Jeju. 토박이
인터뷰는 역시 사람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감칠맛 나는 제주도 음식
소개는 역시 가장 관심이 갔습니다. 마음은
이미 동문시장으로 달려가서 오메기떡을 싹껏
먹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보보담», 이래저래
고단한 하루를 운동으로 정리하고 나서 만난 매우
상급하고 신선한 반전이었습니다.
정진희(서울시 용산구)

매호 «보보담»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한 계절을 살아온 제게 이 잡지는 한참
동안의 휴식과 주변을 돌아 볼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계절 넘길 수 있는
힘을 얻어 늘 고맙게 생각해요. 제주 편 또한
어느새 성큼 다가온 봄을 실감하고 만끽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주도(島)라는 큼지막한
제목처럼, 행정구역명 제주특별자치도(道)가
아닌 섬(島) 제주의 속살을 볼 수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연이 휘저어 놓은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순수의 땅,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우러진 제주다움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던
5월의 농익은 봄날이었습니다.
이준임(경기도 포천시)

안녕하세요? «보보담»을 받아보고 있는
애독자입니다. 두툼한 «보보담»을 받으면 이번
호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설레지요. 제주도
역사와 문화,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다룬 봄 호를
보니 평범한 관광지로 생각했던 제주도가 다시
보입니다. 우리네 땅은 품고 있는 이야기가 참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벼운 차림으로
«보보담»에 나온 국내외 이곳저곳을 두 발로
걸어보고 싶어요. 이 잡지를 읽으면 숲길을
산책한 것 마냥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름 호엔
또 어느 곳이 소개될지 기대됩니다.
홍민기(경기도 남양주시)

독자의견을 보내 주세요

«보보담»을 읽고 난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독자의견에 소개된 분들에게는
LS네트웍스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
(프로스펙스, 몽벨, 잭울프스킨, 스케처스)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독자의견은 당사 홈페이지
(www.lsnetworks.com)
[사이버홍보실] » [보보담] » [독자 의견]
코너에 남겨 주세요.



14



27



48



86

보보담

LS Networks Membership Magazine BOBODAM
Issue 13, Summer 2014

연천

漣川

연천을 읽는 키워드 / 글과 사진 이지누

6 접경지역이라는 타고난 운명

연천 답사 / 글과 사진 이지누

14 갈테까지 가서 만나는 또 하나의 아름다움

영화로 만나는 연천 / 글 정성일

22 연천은 어디에 있는 곳인가요?

토박이 인터뷰 / 글 강신재·사진 박정훈

27 윤우순, 오금수, 이돈희, 왕영록, 정영자, 이원옥

여름 아웃도어 제품 / 사진 문성진

40 모자 없인 떠날 수 없는 계절, 여름!

연천 지질 답사 / 글 박정웅·사진 구범석

48 돌로 읽는 연천의 시간

전곡리 선사 유적 / 글 배기동

64 선사 고고학자에게 연천이란?

임진강 따라 흐르던 풍류 / 글과 사진 이지누

68 늘푸른 나무를 가꾸던 사대부, 웅연에서 노닐었다네

과객열전 / 글 안대회

76 신유한의 기록으로 보는 연천

연강임술첩 / 글 이경화

83 세 사내의 보름밤 임진강 뱃놀이 기록

강에서 들은 이야기 / 글 강신재·사진 구범석

86 지금, 두 개의 강에 기대어 사는 연천 사람들

아무 것도 없는 풍경

여행을 하며 익힌 어떤 감각이나 요령도 아이슬란드에선 크게 쓸모가 없었습니다. 사륜구동으로 무장했지만 가벼운 공포는 늘 따라다녔습니다.

가기 전에 각종 SNS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리는 아이슬란드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절대 솟아오르는 간헐천이나 무지개 뜨는 폭포 같은 건 보러가지 말아야지. 아까운 시간을 관광지 돌아보는 데 낭비할 순 없다. 하지만 여차저차 스케줄이 꼬인 어느 날 편집자와 사진가는 툄툴거리며 골든 서클로 향했고, 아이슬란드 날씨만큼이나 번덕스러운 마음은 금세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안다고 생각하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관광지는 피하는 게 여행 줌 다신 분들의 제1원칙이지만 아이슬란드가 처음이라면 그 원칙은 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선 관광을 떠나도 여행이 되고 여행을 떠났지만 관광이 되기도 합니다.

다녀와서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몇 번 더 봤습니다. 까맣 때는 내내 아우스게르라는, 아이슬란드 국민 열 명 중 한 명은 그 데뷔 앨범을 가지고 있다는 가수의 노래를 들었고요, 그리고 아이슬란드를 배경으로 한 로드무비 <랜드 호(Land Ho!)>의 개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슬란드는 가기 전보다 다녀온 후에 환상이 더 커지는 나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오로라를 보기 위해, 또 어느 날은 동행금지에 묶여 못 들어간 내륙 트레킹을 위해 다시 아이슬란드로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케플라비크 국제공항의 입국심사대 옆에는 벽면을 통째 할애해 이런 바이킹 격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Better weight than wisdom-a traveller cannot carry.” 여행자는 지혜 보다 더 무거운 걸 들고 다닐 수는 없다고 합니다. H

백야의 아이슬란드는 지금까지 알던 지구와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끼 덮인 대지, 지지 않는 해, 새벽 한 시가 넘도록 풀을 뜯고 있는 야행성 양과 말. 일기예보에 뜬 ‘가시거리 제한 없음’이라는 낯선 말을 곧 이해하게 만드는 풍경. 사람이 없을 거란 예상은 했지만 레이카비크를 벗어나면 가끔 나타나는 전신주가 역시나 설치 작품처럼 보일 만큼 사람 흔적도 없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문명이 끼어들지 않은 그 풍경을 마주하며 가장 많이 한 생각은 아름답다거나 대단하다가 아니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였습니다.

경기도 중앙을 기준으로 가장 북쪽, 중부원점이 있으니 ‘한반도의 중심’이라 해도 좋은 곳 연천은 경기도 시군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그곳에 간다고 했을 때 반응은 대강 이랬습니다. “아, 연천! 내가 거기 비무장지대에서 군 생활을 했잖아.” “연천? 강원도?” “연천? 민물매운탕!” 그리고 종종 이런 말이 덧붙었습니다. “근데 거기 아무 것도 없는데?”

아무럼, 구석기시대부터 사람 살던 땅에 아무 것도 없을 리가요. 연천에선 무려 19억 년 전에 만들어진 돌을 만져볼 수도 있고, 강 따라 보이는 주상절리와 협곡이 옛날 옛적 한반도에서도 화산이 폭발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30년 쯤 드나든 지질학자도 여전히 볼 게 남았다고 할 만큼 연천은 한반도 자연사 학습장이라 불리는 그 지질 구성 하나만으로도 더 관심 받아 마땅한 땅입니다. 주먹도끼가 나와 세계 고고학사를 다시 쓰게 했던 선사유적지도 있고 달밤에 뱃놀이를 즐기던 조선 선비들의 이야기도 강을 따라 흐릅니다. 그리고 연천은, 해방 후엔 북한 땅이었다가 휴전 후엔 남한 땅이 된, 휴전선 155마일 상에서 북녘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가 있는,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연천을 만나는 일은 삼팔선과 휴전선, 남방한계선이며 민통선 등을 뚫고그려 ‘전방’이라고 부르는 대신 태풍전망대에 올라 그 각각의 의미와 위치를 익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 3번 국도를 따라 강원도 철원과의 도계 지점까지 가다보면 어쩐지 설치 작품처럼 보이는 군사 시설물이며 2차선 도로에 맞붙은 사격장, 얼핏 ‘왕릉인가?’ 싶지만 실은 북쪽을 향하고 있는 포진지 등 지난 60여 년 동안 멈춰서 있는, 남았다면 남았고 덜 훼손되었다면 덜 훼손된 분단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 94

민물매운탕 / 글 박찬일·사진 문성진

어부들이 끓여내는 깊고 진한 맛
- 113

연천 전곡재래시장 / 글 한창훈·사진 구범석

인생이 모이는 곳, 연천 전곡재래시장
- 122

연천군 중면 황산리 / 글 임윤혁·사진 박정훈

여기서부터는 민간인통제구역입니다!
- 134

연천군 연천읍 신망리 / 글 강신재·사진 박정훈

“여길 왜 신망리라고 부르냐면 말이야”
- 145

산사기행 / 글 이산하·사진 유동영

논물은 강물보다 깊고 나비는 수평으로 난다
- 154

낡은 앨범을 꺼내다 / 글과 사진 이지누

늙은 군인을 만났다
- 164

Pick Up / 스타일링 김정민·사진 문성진

부대에서 찾은 연천의 색

아이슬란드
ÍSLAND

- 186

영화로 떠나는 여행 / 글 정성일

“What do you do?”
“I am a politician and I do Music.”
- 194

아이슬란드 리포트 / 글 최명애·사진 박정훈

Have a go!
‘일단 한번 해보지 뭐!’의 정신을 가진 나라
- 236

아이슬란드 여행 팁 / 글 편집부·사진 박정훈

책으로 떠나는 여행 / 글 박태근·사진 문성진

아이슬란드로 떠나기 전 읽으면 좋은 책
- 240

아이슬란드 여행 팁 / 글 편집부·사진 박정훈

굳이 떠날 계획이 없더라도
재미삼아 읽는 아이슬란드 정보



113



134



194



240



連

연

川

천



접경지역 이라는

타고난 운명

내가 경기도 중앙 최북단에 위치한 연천에 첫발을 디딘 것은 1980년이 시작되는 겨울이었다. 지금은 읍이 되었지만 당시는 면이었던 전곡 일대에서 군복무를 시작했다. 그래서일까. 내게 남아 있는 연천의 이미지는 강과 군사 문화가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해 겨울, 한탄강에 잇닿아 있는 부대 초소에서 보초를 서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철쭉 같은 어둠 속으로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모퉁이 송연해진 것은 물론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마치 그해 봄의 일을 예견이라도 한 것인 양 봄이 가까워질수록 강에서는 더욱 웅성깊은 소리가 들려 왔다. 어떨 때는 속 깊이 웅크린 소리를 내놓는가 하면, 때로는 밤하늘이 찢렁찌렁 울리도록 큰 소리를 내면서 말이다.

후에 알고 보니 그 소리는 뽕뽕 얼었던 강의 얼음이 풀리는 소리였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으니 갓 스물을 넘긴 내가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그렇게 연천은 나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다. 그 때문에 이 글을 쓰기 전에 더욱 연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연천에서 한탄강과 임진강 그리고 군인들의 이미지를 불식시킬 만큼 강력한 것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그것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연천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생각해보면 분단과 관련하여 취재를 가거나 아니면 지인들과 강으로 캠핑 가는 일이 연천과 만나는 일의 전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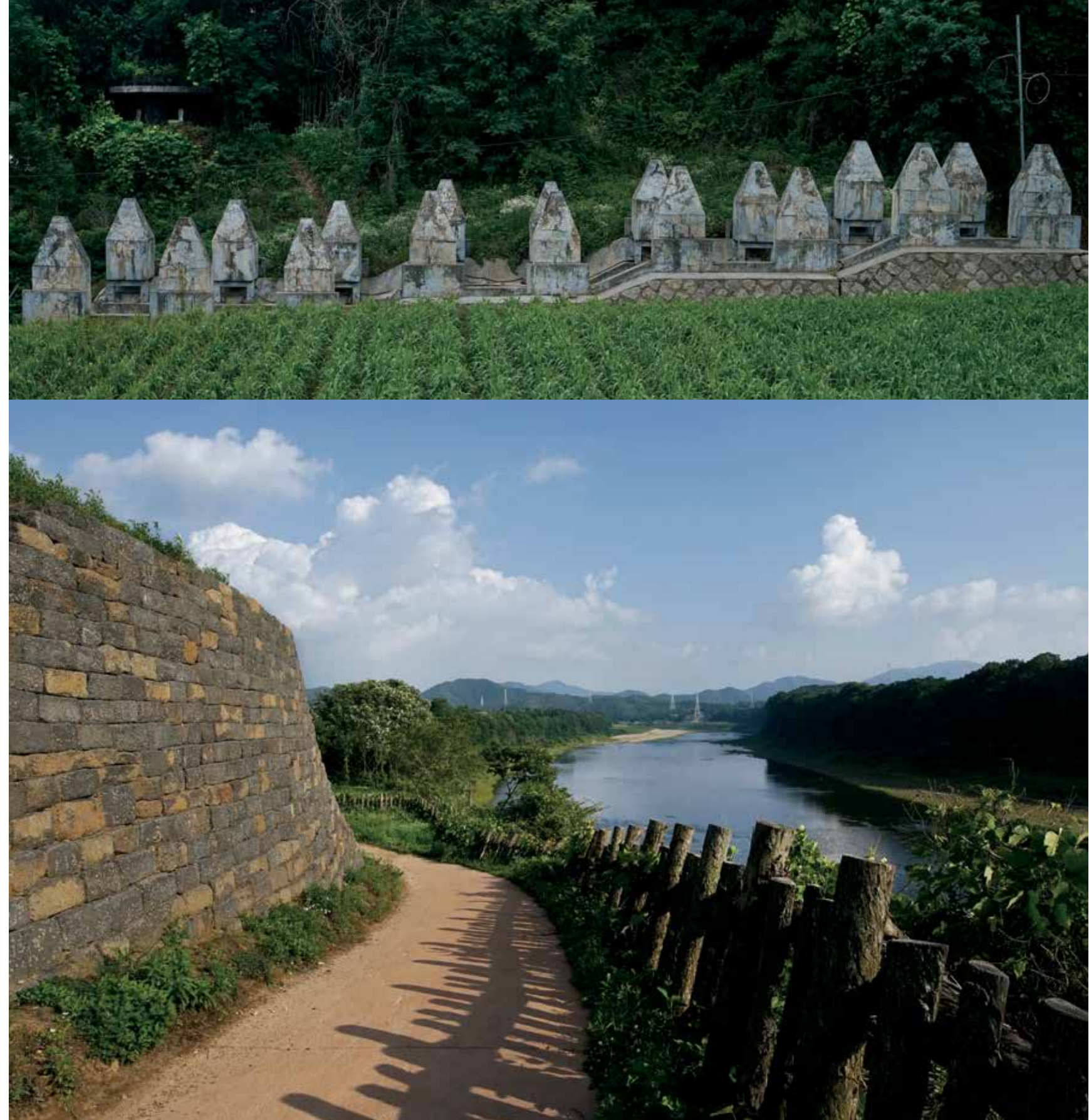
연천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되면서 삼팔선 이북에 속했다. 당연히 소련의 통치를 받았지만 그것도 잠시였을 뿐 한국전쟁 이후에는 남한의 경계에 들어오게 되었다. 군의 서쪽인 장남면은 삼팔선 아래로 밀려 내려 왔지만 장남면을 경계로 군의 동쪽 지역은 오히려 삼팔선 이북 지역이 지금의 연천군에 포함된 것이다. 1990년 대 초, 연천읍에서 만났던 이는 자신의 가족에 대하여 말하기를 큰 형님은 일제강점기에 학교를 다녀서 일본말을 배웠고, 비록 잠깐이긴 하지만 자신은 소련 군정 치하에서 소련 말을, 그리고 동생은 한국전쟁 이후 영어를 배웠다고 했다. 무심코 흘러들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은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연천의 위치를 에둘러 말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했다.



지적법에 따라 중부 원점이 위치한 연천은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슬로건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장남면에 위치한 승전OP에서 바라보는 비무장지대 안에는 삼팔선과 군사분계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기도 하다. 이는 삼국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연천군의 임진강 주변에는 고구려시대의 것으로 짐작되는 장남면의 호로고루성. 미산면의 당포성. 전곡읍의 은대리성과 같은 관방유적이 남아 있으며, 중면의 삼곶리 돌무지무덤. 백학면 학곡리의 돌무지무덤은 모두 백제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임진강이나 한탄강을 차지하려는 삼국의 쟁패가 그만큼 치열했던 각축장이었음을 말해 주는 증거일 것이다. 삼국이 서로 연천 일대를 차지하려 했다는 것은 땅이 비옥했기 때문일 테다. 물론 지형 특성상 한강하구처럼 넓은 평야가 발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구석기 유적지가 한탄강과 맞닿은 전곡 은대리에서 발견된 것은 이곳이 사람 살기가 좋았던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연천의 흥망이 강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분단으로 인하여 연천이 맞닥뜨리고 있는, 군사 문화가 팽배한 도시라는 이미지 또한 마찬가지다. 연천은 접경지역이 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해 한계 지역(marginal area)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읽자면 다른 지역에 없는 인위적인 자연 조건까지 지닌 셈이다. 군사 문화로 불거지는 연천의 모습이 자칫 거칠지 모르지만 이곳이 아니라면 느낄 수 없는 것이니 그 또한 보듬어야 할 풍경임은 틀림이 없다.

강과 군사 문화. 연천을 떠 올릴 때 가장 크게 불거지는 두 가지 요소일 뿐 이것으로 연천의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묘하다. 생각을 모아서 글을 쓸수록 한탄강과 임진강을 차지하려 벌어진 삼국의 쟁패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접경지역으로서 연천은 그 자체가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



(위) 연천에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군사 시설물. 유사시 폭파해 도로를 차단하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아래) 당포성에서 내려다본 임진강.

눈에 보이는 선과 보이지 않는 선

기억을 되짚어보면 초등학교 삼학년 무렵부터였지 싶다. 나무로 만든 작은 책상을 나눠 쓰던 짝꿍과 하루가 멀다 하고 다뒀는가 하면 서로 말도 하지 않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어느새 깔깔거리며 함께 웃던 때가 말이다. 물론 미처 화해를 하지 못한 채 다툼이 이어질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랬다. 책상 가운데 줄을 긋고는 ‘삼팔선’이라고 하며 절대 넘어 오지 말라고 말이다. 그럼에도 슬며시 상대의 손이 넘어오거나 공책의 귀퉁이라도 선을 넘으면 가차 없이 내치곤 했다. 대개 여자아이들이 짝꿍이었는데, 짓궂은 사내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이 싫다는데도 계속 짝꿍이곤 했다. 그럴 때면 여자아이들은 눈을 흘기며 책가방을 책상 가운데 올려놓았다. 장벽을 만들어 끌 보기 싫은 상대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강수를 쓴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눈깔사탕 하나를 건네면 장벽은 금세 허물어졌고 다시 친하게 지내곤 했다. 어린 우리들 사이에는 이념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분쟁에도 이념이라는 것이 개입하면 아주 가느다란 새끼줄이나 철조망일지라도 그것이 지닌 견고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한다.

북위 38°선: 한반도는 바로 그러한 이념에 의해 갈라졌고 그 선은 지배이데올로기의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을 맞이한 1945년 9월 2일에 그어진 북위 38°선으로부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포고된 ‘미국육군 태평양지역 총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는 북위 38°선 이남의 일본군은 미국육군태평양지역 총사령관인 맥아더 사령관에게, 또 이북의 일본군은 소련극동군 총사령관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군정이 시작되었고, 북위 38°선은 남북을 갈라놓는 최초의 선이 된 것이다.

1996년 태풍전망대 주변 남측 선전 문구(위)와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측 비무장지대의 선전 문구(아래). 이 같은 선전 게시물은 국민의 정부 시절 모두 철거되어 지금은 볼 수 없는 풍경이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사실 북위 38°선은 그 이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소멸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벌어진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22시에 서로 휴전을 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남과 북은 당시 실제 맞닥뜨리고 있던 지점에서 겨눴던 총칼을 거두고 무장을 해제했다. 그 때문에 38°선은 유명무실해졌고 그것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새롭게 생긴 선이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이다. 그러나 군사분계선은 남과 북이 맞닥뜨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필요했다. 그래서 실제 맞닥뜨린 지점에 그어진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2킬로미터를 올라가고, 또 남쪽으로 2킬로미터를 내려와서 4킬로미터의 공동구역을 만들어 서로 도발 행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그곳이 ‘DMZ’라고 부르는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다. 말 그대로 전쟁을 위한 군사 시설의 설치를 금지한 구역이다.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그러한 ‘DMZ’를 구성하는 선도 있다. 남쪽으로부터 보면 우선 흔히들 철책선이라고 부르는 남방한계선이 있다. 그곳에서 2킬로미터 올라간 북쪽으로 군사분계선이 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다시 북쪽으로 2킬로미터를 더 올라가면 북한의 철책선인 북방한계선이 있다. 비무장지대는 남쪽의 남방한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을 포함해 북측의 북방한계선까지 4킬로미터 구역이어야지 맞는다. 그러나 헤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서 서로 보고 싶은 그리움이 커진 탓일까. 어느 때부터 서로 조금씩 다가섰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4킬로미터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 곳은 드물다. 남북이 모두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NLL과 NBL: 한편 바다에는 육상과 달리 사용하는 북방한계선이 있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NLL(Northern Limit Line)이 그것이다. 처음 휴전 협정 당시 육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만 합의를 했을 뿐 바다상의 분계선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그리하여 서해에는 서해5도와 북한 황해도 지역과의 중간 지점을 정해 분계선 형태로 삼은 것이 바로 북방한계선인 NLL이다. 그러나 동해바다는 또 다르다. 동해에는 서로 기준으로 삼을 만한 섬이 없어 군사분계선을 연장하는 개념으로 선을 만들었는데 북방경계선(NBL Northern Boundary Line)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동해안이나 서해안이나 다같이 NLL(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민간인출입통제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남방한계선 일대를 출입하는 것은 자유롭지 않다. 그곳에 가려면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기본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방문하기 전에 미리 관할 군부대에 출입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도 있다. 그나마 요즘은 남방한계선상에서 북한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들이 많이 생겨나 출입이 자유로운 편이긴 하다. 그럼에도 남방한계선상의 전망대에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또 하나의 선이 있다. 주로 ‘민통선’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민간인출입통제선(Civilian Control Line)이 그것이다. 민통선은 휴전이 되고 예닐곱 달이 지난 1954년 2월에 당시 작전 통제권자였던 미 육군 제8군단사령관의 직권으로 설정되었다.

우리 민족은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경민족이었다. 그러니 전쟁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땅에 출입하려는 의지가 강했고, 미군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농민들이 거추장스러웠다. 곧, 작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일정한 구역을 임의로 설정해 민간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당시 남방한계선상의 마을은 대개 초토화되어 제대로 남아 있는 곳들이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땅이 남방한계선상에 인접해 있는 농민의 경우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아 갈 수 있었기에 영농을 위한 출입은 절실했다. 그러자 미8군 사령관은 그런 농민들에게 해가 뜰 때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해거름이면 다시 밖으로 나와 주기를 요청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민통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농사를 짓고 되돌아 나온다는 뜻에서 귀농선(歸農線)이라고 불렀다. 그 후, 한국군이 남방한계선상의 방어를 담당하면서 군 작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출입 영농을 실시했다. 그때가 1958년 6월이었으며, 당시 귀농선은 이후 민통선으로 이름이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남에서 북으로 가려면 우선 민통선을 지나고 철책선이라고 부르는 남방한계선 그리고 그 실제적인 모습은 허물어져버린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을 지나야만 한다. 말로만 들으면 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할 것 같지만 그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휴전 당시 세워졌던 노란색의 군사분계선이라는 팻말들은 이제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스러져 녹이 쓴 채 잡초에 묻혀 형체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더욱 무시무시한 선은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형이상학적인 군사분계선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음속의 선을 더욱 경계해야 하는 까닭은 거기에는 어린 시절 짝꿍과의 분단에는 없던 이념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ㅁ

갈 데 까지 가서 만나는 또 하나의 아름다움

분단의
흔적을 좇아가는
연천 답사

연천은 경기도 중앙 가장 북단에 위치한다. 서울에서 연천으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은 기차와 도로가 있으며 기차는 일제강점기에 놓은 경원선이 의정부와 동두천을 거쳐 연천군을 관통한다. 국도는 3번 국도가 경원선과 나란히 연천군을 지나 철원 · 원산으로 이어진다. 또 현대에 들어서 생긴 길 중에는 에둘러 가기는 하지만 자유로를 달려 파주의 문산과 적성을 거쳐서 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은 한강을 따라 시원하게 뚫린 자유로와 임진강을 따라 펼쳐진 77번, 37번 국도를 번갈아 타면서 연천으로 향한다.

경원선 기차를 타는 것도 나들이에 좋은 방법이지만 연천으로 향하는 길은 아무래도 자유로와 37번 국도를 이용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앞서 밝혔듯 연천은 임진강이나 한탄강과 같은 강 그리고 군사 문화로 대변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자유로와 37번 국도는 다양한 군사시설을 볼 수 있는 길이고 군인들의 모습 또한 자주 눈에 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즐겨야 한다. 한강을 따라 파주까지 향하는 내내 분단의 흔적들을 만날 수 있으며, 오두산 통일전망대 근처에서는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도 개성 송악산을 바라 볼 수 있으니 새롭다. 파주군 문산읍에서 철조망에 갇힌 임진강을 끼고 달리다보면 어느새 파주군 적성면에 다다르고 연천군 장남면이 지척이다.



황포돛배를 타고 임진강에 들어서다
내내 임진강을 에워싸고 있던 철조망은 장남면
두지나루에 다다르면 활짝 열려 황포돛배를 탈 수
있다. 굳이 그곳에서 황포돛배를 타야하는 까닭은
임진강의 비경인 장단적벽(長湍赤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진강의 특징인 주상절리의 단애로
이루어진 적벽은 병풍처럼 펼쳐진 독특한 풍치를
뽐낸다.

돛배는 고랑포 인근까지 나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나루터 앞에 걸린 장남교를 건너면
호로그루성과 옛 고랑포 지역으로 갈 수 있다.
지금은 강그리 사라져 그 어떤 흔적도 남아 있지
않지만 고랑포는 한때 개성을 오가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더구나 서해바다에서 올라오는
소금과 새우젓을 가득 실은 큰 배들이 정박했던
임진강 최대의 하항(河港)이기도 했다.
해방 즈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나루터에는
지금으로 치면 카페리라 할 수 있는 우마차와
트럭을 운반하는 배가 한 척, 행인을 태우던
나룻배 두 척이 먼 소유로 있었고, 유람선이나
고기잡이배를 포함해 모두 열대여섯 척의 배가 늘
고랑포 포구에 황포 돛을 드리우고 있었다고 한다.
또 고랑포에는 서울 종로에 있었던 화신백화점의
분점이 있었는가 하면, 해마다 일주일씩 치러지던
고창굿이 벌어지기도 했다. 굿이 벌어질 때면
개성 권번의 기생들을 불러 흥을 돋우어 인근이
떠들썩했다고 한다. 이는 지금은 군인들과 군용
트럭들만 무심히 오가는 길 양쪽을 가득 메웠을
상점의 주인들과 선주·어부들이 추렴을 하여
벌인 곳이었다. 그들은 임진강을 무대로 살아가던
이들이었으며, 강을 다스리는 용신에게 뱃길의
무사안전을 빌었던 것이다.

고호팔경의 첫 장면, 노을진 경순왕릉
고랑포가 있었던 마을은 원당리이고, 그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이들이 소풍을 갔던 곳은
경순왕릉이다. 경순왕(?~979년)은 찬란했던
통일신라의 56대 왕이었지만 그가 마지막이었다.
신라가 패망하고 난 후 그는 나라를 고려에
넘기고 태조 왕건의 장녀 낙랑공주와 결혼하여
고려의 사심관(事審官)이 되었다. 그의 능이
바로 남방한계선 아래에 있다. 하도 작아서
왕릉인가 싶을 정도이지만 그곳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고랑포의 옛 이름인 고호(皐湖)를 따 붙인
고호팔경의 첫 풍경이다.

팔경은 이렇다. 첫 번째로는 나릉낙조
(羅陵落照)를 꼽았는데 경순왕릉과 임진강을
뒤덮는 노을빛이 그렇게도 절경이었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석포귀범(石浦歸帆)이라 해서
고랑포 서남쪽의 석포에서 고랑포로 귀향하는
황포돛배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일컬었고,
세 번째로는 미성초월(岬城初月)이라고
웃고랑포인 자지포의 자미성 위로 떠오르는
초승달과 달이 강물이 비친 모양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지탄어화(芝灘魚花)라 해서 자지포
여울에서 고기를 잡는 밤배의 불빛이 하늘에
별과 함께 밤을 꽃 피우는 모습이다. 다섯 번째는
평사낙안(平沙落雁)이라 늦가을부터 고랑포강
건너의 백사장으로 날아드는 오리 떼들의
한가로움을 보는 것이며, 여섯 번째는 기암만하
(奇岩晩霞)로 강을 병풍처럼 둘러막은 장단석벽에
비치는 저녁노을과 노을에 물든 잔잔한 강물이다.
그 다음으로는 조대모월(釣臺暮月)을 꼽았는데
고랑포 절벽 위에서 드리운 낚시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어느덧 떠오르는 초승달이 밝히는
강 빛을 일컫는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적벽단풍
(赤壁丹楓)을 꼽는데 이 적벽에는 사시사철 꽃들이
매달려 있어 붉은 석벽에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고랑포(권태웅 소장).

일제강점기의 고랑포.



일제강점기 장단석벽으로
소풍 나온 학생들(권태웅 소장).



일제강점기 경순왕릉으로 소풍 나온 학생들(권태웅 소장).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에 위치한 경순왕릉(사적 제 244호).

군데군데 또렷한 전쟁의 흔적

경순왕릉 앞 석물에도 더러 총탄 자국이 있긴 하지만, 미산면 아미리에 가면 총탄 자국으로 얼룩져 참혹한 모습을 보이는 비석이 하나 있다. 성종의 비였던 정현왕후의 아버지 영원부원군(鈴原府院君) 윤호(1424~1496)의 묘비가 그것이다. 그의 비석은 너덜하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참혹하다. 비석뿐 아니라 묘 앞에 서 있는 문신석도 마찬가지다.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 당시에 박혔던 총탄을 확인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총탄 자국이 남아 있다. 그 때문에 이 묘 앞에 서면 그 어떤 말로도 표현 할 수 없는 전쟁의 참혹함이 전해온다.

그곳에서 승의전과 당포성을 거쳐 나아가면 유엔(UN)군 화장장이라는 독특한 장소와 맞닥뜨린다. 물론 요즈음 사용하는 시설은 아니다. 1951년 임진강과 한탄강의 합수머리가 뻗히 내다보이는 금굴산에서 벨기에의 룩셈부르크 대대가 중공군 제188사단과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룩셈부르크 대대는 미 제3사단의 영연방 제29여단에 배속되어 있었는데 사상자가 잇따르자 영국군이 임시로 화장장을 만들어 현장에서 시신들을 화장했다. 그 시설이 지금의 유엔(UN)군 화장장이다. 전쟁 당시 무너진 것인지 아니면 긴 세월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허물어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던 곳이 지금은 등록문화재 제408호로 지정되었다. 이와 같은 시설은 나라 안에서 이곳 밖에 없는 독특한 분단의 흔적이기도 하다.

연천에는 이 밖에 또 하나의 등록문화재가 있는데 제45호로 지정된 연천역 급수탑이다.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였다고만 알려졌지만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군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빌면 이 급수탑은 당시 연천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어서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좌표를 정했다고 한다. 그것을 방증이라도 하듯 급수탑 옆 기관실 벽에는 무수한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기도 하다.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 있는 영원부원군 윤호의 묘(연천군 향토유적 제6호)와 주위 문인석.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에 있는 유엔(UN)군 화장장 시설(등록문화재 제408호).



연천역 내에 위치한 연천역 급수탑(등록문화재 제45호)과 그 옆 기관실 벽의 총탄 자국.



지금은 철거된 옛 화이트교. (사진 제공: 연천신문사)



철도중단점 옛 모습. (사진 제공: 연천신문사)

화이트교와 태풍전망대, 철도중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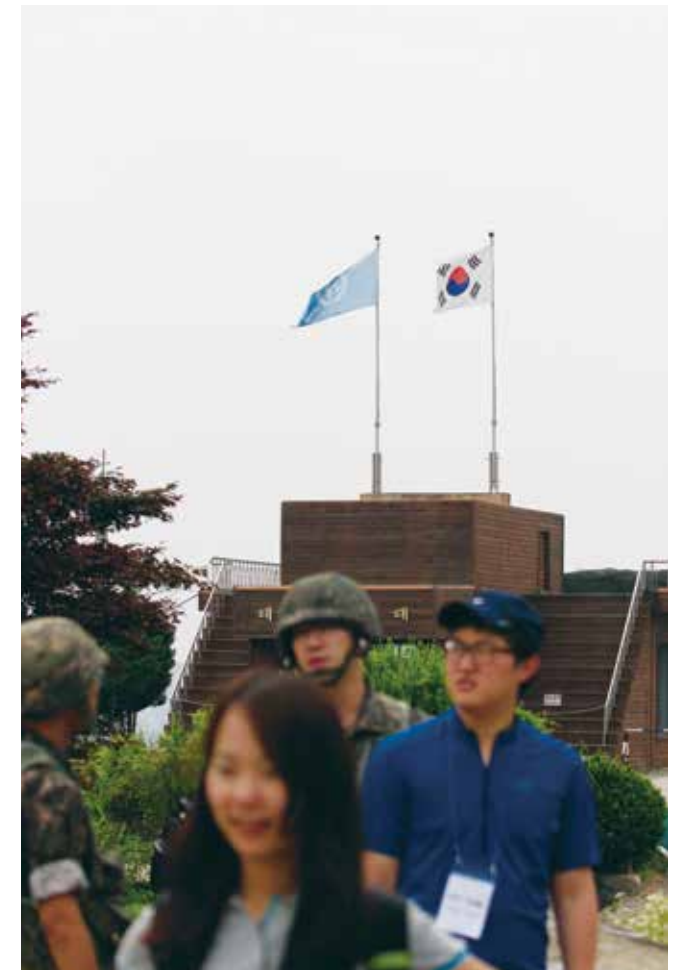
화장장에서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군남면 남계리를 바라보며 왕징면소에 다다르면 흥미로운 간판들이 눈에 띈다. 화이트다방, 화이트부동산처럼 화이트란 단어가 들어간 것들이다. 왕징면소에서 군남면으로 가려면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일대는 임진강이 흐르지만 마을 사람들은 징과강이라 불렀다. 그 강에 걸린 다리가 지금은 임진교지만 예전에는 화이트교였다. 난데없이 영어로 된 다리 이름. 그것 또한 분단의 흔적이다. 전쟁 당시 임진강에는 다리가 없었다. 그런데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들은 전차나 탱크와 같은 장비를 움직이지 못하면 전쟁을 치를 수 없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다리가 필요했다. 드디어 미군 공병대가 투입되어 가고 같은 다리가 걸렸는데 그 공병대의 대장 이름이 화이트(White)였다. 그의 지휘 아래 만들어진 다리는 그에게 헌정되어 화이트교가 된 것이었다. 씁쓸하지만 당시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한 이름 짓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다리가 사라져 버렸으니 이름 또한 잊히고 말 것이다.

남방한계선에 올라 비무장지대를 바라 볼 수 있는 중면의 태풍전망대는 화이트교에서 그리 멀지 않다. 태풍전망대는 분단의 흔적을 좇아 연천을 찾았다면 반드시 올라봐야 할 곳이다. 신분증을 맡기는 간단한 출입 절차를 거치면 황산리를 지나 흔히 접할 수 없는 남방한계선상의 OP(observation post)에서 분단국가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비무장지대 속에는 임진강 한가운데로 군사분계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하늘이 맑다면 멀리 북한의 황강댐과 오장동 농장도 바라볼 수 있다. 만약 자동차를 타고 자유로를 따라 연천으로 들어온 뒤 태풍전망대에 올랐다면 남한을 흘러가는 임진강 전체를 돌아 본 꼴이 되므로 답사의 종착지가 되는 셈이다.

전철과 기차를 번갈아 타고 연천으로 들어 왔다면 신탄리역까지 가서 내리는 것이 좋겠다. 그곳에는 상징적이긴 하지만 철도중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전 남북으로 오가는 기차길은 서울에서 의주로 가는 경의선과 용산에서 원산으로 향하던 경원선 그리고 강원도 양양으로부터 안변까지 오가던 동해북부선과 철원역에서 금강산의 내금강역까지 다니던 관광열차 성격의 금강산선이 있었다. 그 중 경의선과 경원선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오가던 길이었으며, 경의선은 도라산역까지 그리고 경원선은 신탄리를 지나 철원의 백마고지까지 운행되고 있다.

연천을 둘러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아름다운 고대산 정상에서 아스라이 보이는 북녘 땅을 완상하거나 임진강이나 한탄강 캠핑장에서 물놀이로 태양의 뜨거운 기운을 식힐 수도 있다. 또 선사 유적지를 찾아 고대인들의 생활 습속을 살피며 신기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분단 현실을 직시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다. 지구상에 몇 안 되는 분단국가라는 명예를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차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거나 혹은 걸어서라도 갈 데 까지 가보라. 마침 7월 27일은 이 땅에 군사분계선을 만든 휴전협정일이지 않은가. 그 언저리에 연천만의 독특한 장소들을 찾아 나서면 분명 또 하나의 아름다움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연천에서는 그 어떤 이야기도
실재가 된다. 시간이 멈춘
듯한, 아니 개발이 제한되어
실제 시간이 멈추어 있는
연천의 풍경은, 촬영
장소를 찾아 헤메는 영화
제작팀들에게 비장의
카드 같은 것이다. 그곳은
비밀스러운 군사 훈련도,
동화 같은 이야기도, 심지어
안개에 쌓인 마음 속 풍경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연천은
그런 곳이다.

연천은 어디에 있는 곳인가요?

영화에 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인지가 맨 먼저 궁금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시나리오에 맞는 배우들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시나리오가 원한다고 그 배우가 꼭 출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강호 씨는 사석에서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시나리오가 문학 전집 수준으로 책장에 꽂 차 있어요. 남의 영화 시사에 초대받아 가면 처음 보는데도 이미 엔딩을 내가 다 알고 있는 영화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쪼개서’ 찍는다는 것

감독과 제작자가 그렇게 열심히 배우를 찾는 동안 제작부와 연출부는 시나리오를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면서 시나리오가 요구하는 장소를 찾아서 역마살이라도 낀 것처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때 시나리오에 제주도, 라고 쓰여 있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냥 거기에 가서 장소를 찾으면 되니까요. 시나리오에 제주도 천지연 폭포 앞에서 그녀에게 뺨을 맞는다, 라고 쓰여 있으면 그건 무슨수를 써도 그냥 거기서 찍어야 합니다. 비슷한 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혹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저 멀리 청와대 뒤편 북악산이 보이고 이순신 장군이 내려다보는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진다, 라고 쓰여 있다면 서울 시청을 설득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대는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한겨울 폭격으로 다 부서진 어느 도시를 지나가고 있다, 라고 쓰여 있는 난감한 순간과 마주할 때입니다. 물론 컴퓨터 그래픽이 동원될 것입니다. 하지만 화면 전체를 그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애니메이션이 될 테니까요. 한국전쟁 당시의 분위기가 아직도 거기 남아있는 도시. 촬영에 협조가 가능한 시민들. 수많은 스태프들(과 경우에 따라서는 엑스트라들)의 이동이 용이하냐는 교통의 문제.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영화 속 장면에서는 한 장소로 보이지만 수없이 많은 다른 장소에서(현장 용어를 빌리면) ‘쪼개서’ 찍은 다음 편집에서 시침 똑 떼고 한 장소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충무로에서 전설적인 영화는 봉준호의 〈마더〉입니다. 이 영화는 한 장소 같은 동네처럼 보이지만 무려 60군데가 넘는 다른 도시에서 골목별로 모두 ‘쪼개서’ 찍은 다음 편집으로 이어 붙여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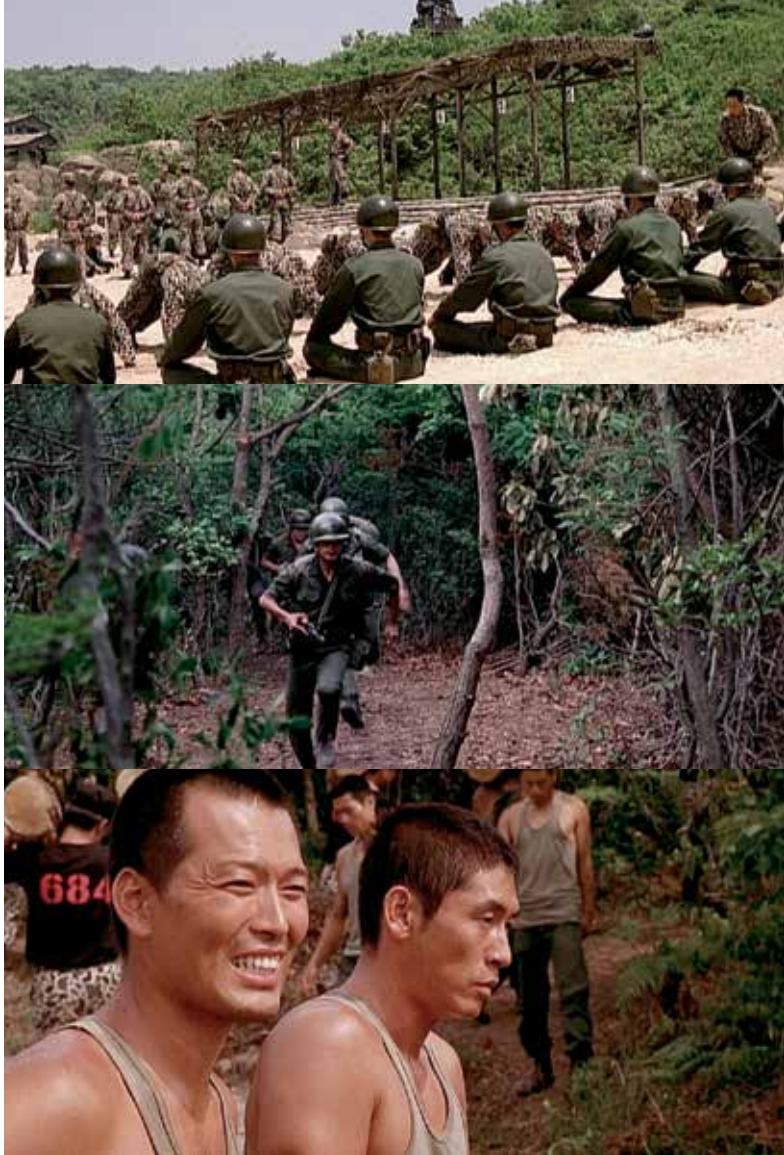
쉽게 설명하면 영화에서는 이쪽 골목에서 저쪽 골목으로 돌아서며 그냥 이 골목 저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촬영은 모든 골목 구간별로 원빈과 김혜자 씨를 모시고 모든 스태프들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찍었다는 뜻입니다.

연천의 숲을 빌린 영화 〈실미도〉

그런 의미에서 연천은 비장의 카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우선 여기는(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지리상의 여러 이유로 촬영이 통제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협조를 구하면 본 적이 없는 풍경을 찍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간단하진 않습니다.) 본 적이 없다는 뜻은 영화에서 아무테나, 라고 설정하고 진행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개발이 금지되어 있는 보호구역 이기 때문에 종종 어떤 풍경은 시간을 알 수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연천의 입장에서 이건 유쾌한 일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명은 종종 다른 장소로 둔갑하고 때로는 다른 장소에서 한참을 진행하다가 마치 그 동네의 일부인 것처럼 이어지면서 연천의 어딘가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연천에 살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영화들에서 저 장소가 연천의 어디인지 금방 알아차리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는 어라, 그게 거기가 아니라 연천이었어, 라고 어리둥절해 하실 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면 그 풍경이 참 아름답다웠지만 그곳을 다시 찾아갈 방법이 거의 없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겠어요, 때로 어떤 풍경은 자기의 운명이 있답니다. 제가 아니라 여행 문학의 대가 제라르 드 네르발이 한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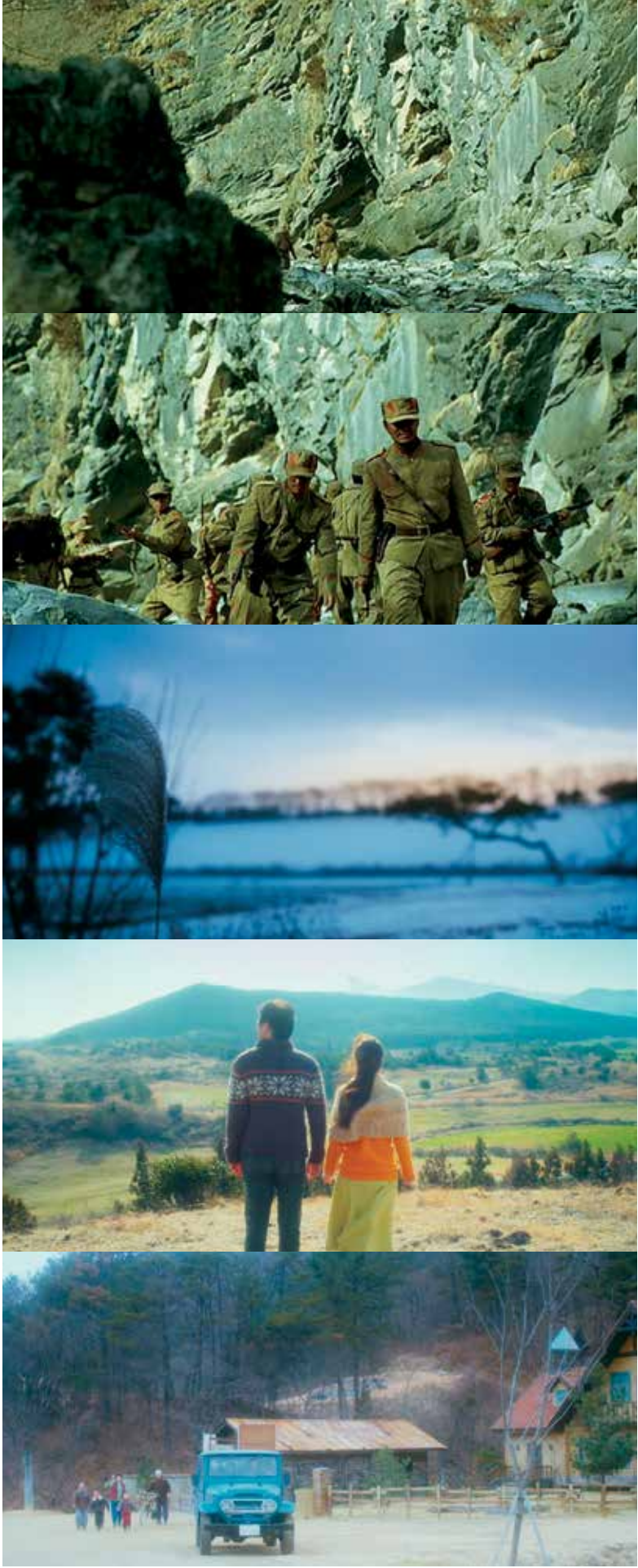
제일 먼저 첫 번째 천만관객 영화라고 불리는 <실미도>가 떠오릅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에서 고도로 훈련받은 민족보위성 경찰국 124군부대 31명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암살 계획 임무를 띠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청와대 부근까지 침투했다가 세검정 부근에서 발각되어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그 중 김신조를 제외하고 전원 사살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복을 해야 한다는 매과 정치인들의 주장에 따라 684부대를 창설하고 마찬가지로 테러 훈련을 시켜 “김일성의 목을 따야 한다”는 목표 아래 24명의 북과 공작원을 실미도에서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 ‘8월 15일 평화통일 구상 선언’으로 갑자기 남북한 관계는 평화 무드를 조성했고 이에 따라 (심지어) 684부대 전원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하달됩니다. 이에 불복한 684부대원들은 실미도를 탈영하여 인천에서 버스를 탈취한 후 청와대에 항의를 하러 서울로 올라오다 전원 수류탄으로 자폭합니다. 영화 <실미도>는 상영 시간 2시간 15분 중 대부분을 실미도에서 벌어지는 훈련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실미도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아래, 실미해수욕장이 있는 무의도와 하루 두 번씩 썰물때 연결이 되는 실재의 섬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가면 훈련을 위해서 만든 (이제는 거의 사라졌지만) 김일성 주석궁 모형도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남은 모형들이 영화 촬영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방 6킬로미터 밖에 안 되는 너무 작은 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벗어나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설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감독은 실미도에서 중심이 되는 장면들을 주로 촬영하고 나머지는 다른 장소로 옮겨 찍는 방법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풍경이 너무 달라지면 그때는 편집에서 더 힘든 문제와 부딪치게 됩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보면 강원도의 숲 속과 서해의 섬은 하나의 장소로 절대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은 연천의 숲으로 옮긴다, 로 결정이 났습니다.

해안가는 실미도에서 찍고 숲 속 훈련은 연천으로 이동해서 찍었습니다. 두 장소는 촬영간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촬영 장소 이동은 스태프들을 포함해서 백여 명 가까운 사람이 일시에 옮겨가야 하는 일이라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은 문제는 관객입니다. <실미도>를 보고 감명 받은 분들이 실미도를 찾아 와서 해안가를 둘러본 다음 숲 속을 찾아 헤맬 때 그 비슷한 장소도 발견할 수 없어서 도대체 어디 또 비밀 훈련 장소가 있었나, 라고 홀린듯한 방문기를 남기기도 했으니까요. 말하자면 연천은 그런 곳입니다.



연천의 이야기만 품은 <웰컴 투 동막골> 반대로 아예 대놓고 다른 데 가서 찍은 영화도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산골 구석 순박한 마을 동막골에서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만 미군 전투기 한 대가 불시착을 하고 맙니다. 하필이면 그때 이걸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가던 소녀가 인민군 부대를 만나 이들을 끌고 동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와중에 부대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길을 잃은 국군 부대가 그만 이 동막골에 들어서게 됩니다. <웰컴 투 동막골>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원래 장진 감독이 대본을 쓴 연극이었습니다. 이때 배경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에 자리한 기암괴석 가득한 동막골이었습니다. 정말로 가보면 시간이 멈추었다는 생각이 들만큼 신비로운 곳입니다. 그걸 영화로 옮기려는 박광현 감독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세계와 같은 동화처럼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태백산맥 아래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로 설정을 옮겨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영화를 찍은 것도 아닙니다. 세트장은 평창군 미탄면에 자리한 울치리 마을에 세워졌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 가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이야기를 끌어내고,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안으면서도 그 장소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옮겨갑니다. 두 개의 연천을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에 두 장소를 오가면서 두 개의 연천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 착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동막골은 어디였을까요.

<늑대소년>이 연천으로 간 이유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한국전쟁이 지나고 얼마 뒤 한 소녀가 요양 차 어머니와 함께 이 마을에 옵니다. 이 조용한 소녀는 심장이 몹시 아프고 종종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정이 필요한 이 소녀는 한적한 이 마을이 더 없이 무료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에서 이상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말도 못하고 더럽지만 이상하게 슬픈 표정을 지닌 이 소년은 지금 무엇보다 허기져 있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강아지처럼 쿵쿵 거리는 소리밖에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과 개의 중간처럼 보이는 이 소년에게
 소녀는 조금씩 말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소년도 이 소녀가 유일한 자기의
 보호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만 소녀가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때 무시무시한 야생의 힘을
 드러내는 늑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늑대소년〉은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 허락된다면)
 순정과 소년 소녀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세상의
 끝에서 만난 두 사람. 물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져야 할 것입니다. 늑대는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며 소녀는 자신의 추억을 평생 안고 세상을
 견딜 것입니다. 동화에 어울리는 장소. 우리에게
 아직 그런 장소가 남아있던가요? 조성희 감독은
 이 이야기를 연천에서 찍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거기라면 시간을 멈춰 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잠시 동안 멈춘 시간의 운동. 차라리 시간에
 칸막이를 친 다음 그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사랑의 기호들을 상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에서라면 그걸 설득할 수 있습니다.

〈파주〉에서 연천으로 흐르는 길
 모든 영화가 연천에 덮개를 씌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연천이라고 말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과 슬픔이 안개처럼 그 곳을
 감싸고 있습니다. 〈파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파주에
 두 자매가 살고 있습니다. 언니는 서울에서 온 잘
 생긴 이 남자 대학생을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동생
 은모는 이 남자가 싫습니다. 하지만 언니를 이
 남자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결혼을 합니다.
 은모는 그게 싫어서 돈 벌어오겠다는 한 마디만
 남기고 가출을 합니다. 돌아왔을 때 언니는 사고로
 죽었고 그 자리에서 그 남자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소녀는 깨닫습니다. 자기는
 이 남자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마음으로부터 소녀는 다시
 도망칩니다. 그리고 삼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언니가 죽은 사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때부터 파헤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영화를
 끝까지 보아도 신비로운 미스터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파주와 연천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영화는 종종 파주를 벗어나서
 연천까지 흘러갑니다. 마치 지리부도처럼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은 연천이 단지
 아름다운 풍경만을 지닌 곳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파주에서 연천에 이르는
 길은 한 소녀가 여자가 되어가는 마음속의 풍경을
 은밀하게 펼쳐 보입니다. 자꾸만 밀려오는 안개에
 뒤덮여버려서 길을 잃게 되는 곳.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에 도착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펼쳐지는
 다른 풍경들. 사라져가는 흔적들. 어쩌면 안개가
 사라지는 게 두려운 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영화들을 차례로 보신 다음에 문득 당신은 중얼거릴
 지도 모릅니다. 연천은 어디에 있는 곳인가요? ▮

Meeting People
 연천 토박이 인터뷰

글 강신재
 편집부

사진 박정훈
 박정훈사진작업실

토박이 인터뷰

윤우순
 오금수
 이돈희
 왕영록
 정영자
 이원옥





윤우순

1929

생수 한 병을 사고 500원을 거슬러 받는데, 동전을 내어주는 손이 두 손이다. 불편한 다리를 애써 움직여 500원짜리 손님의 뒷모습을 배웅하기까지 한다. 뭐라도 하나 더 사야하나 싶은 생각에 진열대를 훑어대니, 눈 가는 곳엔 500밀리터 사이다와 콜라뿐이다. 생필품 구역도 마찬가지였다. 열댓 개가 도열한 한 종류의 주방세제가 눈에 띄었고, 유리박스 안에는 죽히 20~30년은 묵은 듯한 ‘무스’와 스프레이가 박물관에 박제된 진시물처럼 서 있었다.

“마트로 다 올라가지 여기 와서 사는 사람 없어. 팔리지도 않고, 살 물건도 없고.” 점방 운영 50년 경력의 윤우순 씨에게 가게 사정을 청하니 예상했던 대답이 돌아왔다. 대형마트 때문에 죽어가는 동네 점방의 고충은 이 지역에도 뿌리내린 지 오래였고, 그의 가게도 일반적인 진열법을 잊은 채로 근근이 버티는 것 같았다. 하지만 버틴다는 것은 최소한의 의지가 수반되는 행위일 터.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 점방 주인의 이미지는 그가 채 몇 마디를 잇기도 전에 깨져나갔다.

“집에 있으면 자꾸 드러누워서 잠만 자니까 갑갑해서 나오는 거야. 차라도 지나가는 거 불라고.”

숨통을 틔우기 위해 출근하는 가게. 하지만 이틀 만에 늘어난 친구 박상로 웅과 가게 옆방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그 반대편에서 왔다.

“교동이가 죽었잖아. 거기 갔다 오는 길이야.” “교동이가 죽었어?” “너랑 같은 파평 윤 씨가 모르다니 야단났네.” “뭐 누구나 죽을 건데.” “그래도 산 놈은 죽은 놈 배움을 해야지.” “고답에 우리 차례네.”

굴방에 퍼지는 쓸쓸한 기운을 수습한답시고 ‘찾아와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동네 친구의 의미’에 대한 선부른 긍정을 주섬주섬 늘어놓아도 마찬가지였다.

“살아있으니까 오는 거지, 죽으면 오겠어? 내가 죽든 이 사람이 먼저 죽든 죽으면 고만이지. 인간은 죽으면 끝인데 뭘. 목숨 붙었으니 살았나보다 하는 거지, 살맛 있어서 사는 게 아니야.”

오로지 늙음과 죽음으로 귀결되는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자주 가는 음식점을 물으면 군청 밑으로는 죄다 입 늙은 늙은이만 살아서 식당이 없다는 얘기뿐이고, 이른바 백세 시대에 백수를 누리면 좋지 않냐는 덕담에도 살면 살수록 좋은 꼴 못 보니 하루라도 먼저 가는 게 좋겠다 우수할 뿐이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 “요즘 요 앞에서 가스관 공사를 하는 바람에 오랜만에 젊은 사람 구경하고 있어. 요 앞에 나가봐, 어린애 요런 거 하나가 땡기나.”

둘은 오늘도 별 수 없이 소주를 만난다. 이 좁은 방에 일곱 명이 함께 잔을 부딪치는 시절을 숙제처럼 돌이킨다. 낯선 객의 재촉에 오늘은 그보다 더 나아간 과거까지 들추는 친구.

“이 사람이 젊었을 땐 날렸지. 돈도 좀 있었구, 유지금으로도다 놀았구. 친구들 만나면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혼자 척척 처리하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자기 혼자 있는 것도 괴롭고 구찮은 거야. 몸이 말을 안 들으니...”

여든을 넘겨 찾아온 뇌경색에 4년간 병원 신세까지졌다는 윤우순 씨.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그에게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 걸음에 채는 건 빈 소주병이 가득 찬 박스. 시간을 잊고 사는 가게에 하루가 저무는 것을 일러주는 유일한 물건일까. 녹색병 다발에 초점이 모이는 낡은 공간을 마지막으로 훑었다. 늙음과 죽음 앞에 덤덤한 주인장은 분신 같은 가게에 제 속내를 어찌 이리 선명히 심어주었나. 먼지와 추억을 함께 뒤집어 쓰고 안개 같은 오늘을 치르는 가게. 부디 오래도록 무너져 내리지 않길. ▮

“이거 가때기 뻘쳐놔서(가에 놔둬서) 뒤편. 가게 맨들어야지.” 소품용 자전거는 오금수 씨의 손길을 거쳐 동력 자전거가 돼있었다. 자전거를 모는 건 어디선가 주운 장식용 새. 라이터와 칫솔대 껍데기를 덧대 만든 새의 다리는 쉬지 않고 페달을 굴렸고, 자전거는 원을 그리며 돌았다.

“곧장 가게 할 수도 있고, 돌게 할 수도 있지. 앞 바퀴 우에 꺾그만 거 봤어? 공짜로 가는 거여. 바쿠가 돌아가니까.”

큰 바퀴 위엔 작은 바퀴를 굴리는 아기 새가 올라타 있었다. 엄마 새를 마주보는 아기 새는 엄마가 굴려주는 바퀴 위에서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달리는 중이었다. 버려진 자전거에 실린 큰 마음을 느낄 새도 없이 그는 냉큼 다른 발명품을 꺼내왔다. 샴시 틀을 덮어 만든 탱크, 플라스틱 채반을 길게 잘라 장식한 배, 토막 난 부탄가스통 기차가 노란 장판 위에 줄지어 섰다. 흥이 난 그는 건전지 십여 개를 북북 뜯어 자식 같은 작품들을 일으켰다. “애들 장난감이지 뭐… 근데 저더러 맨들라면 아무도 못 맨들겠지.”

연천의 에디슨 할아버지라 불리는 오금수 씨. 농사짓는 평범한 촌부의 손에 언제, 무엇이 찾아왔는지는 모른다. 확실한 건 그가 서른을 넘어서부터 늘 뭔가를 주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들이 움직임 얻은 건 20여 년 전. 버려진 라디오, 비디오 등의 전자제품에서 부품을 주우면서였다.

“모터며 기어 같은 부품이 있어야 뒤편 움직이게 맨들지. 이런 모터도 비디오에 있을 땐 천천히 돌거든? 난 호일로 감아서 빨리 가게 맨들었지. 톱니바퀴 기어끼리 이빨 맞추는 것도 힘들어. 이 차만 해도 기어가 몇 겹데.”

움직임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다. 움직이는 것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새의 모형은 날개를 접자 부리를 열었고, 등 근육이 살아있는 사람 둘은 절구를 찼으며 특유의 엇박자 장단을 구현했다. 포크레인의 삼은 한번 들고 내릴 때까지 그 모습이 열 번은 바뀌는 것 같았다. “이게 누구한테 배워서 될 일이어? 생각이 머릿속에서 나와야 할 수 있는 거지.”

조언 한마디 없이 이론 창작의 근원은 무엇일까. 곧이 묻고 에둘러 물어도 그는 틈을 주지 않았다.

“중2때 사변 나서 끼니 때우는 것도 일이었는데 무슨 공부를 했겠어. … 응, 도면? 머리카 그리나 종이다 그리나 매한가지지. … 뭐? 어렸을 때 차 굴러 가는 걸 쳐다보고 앉았었냐고? 그거 보구 있음 바퀴 굴러가는 거밖에 더 뵈?”

그런 그가 유일한 어려움이라 토로한 것은 조각을 맞추는 고충이었다.

“지금은 전기 꽃아 누르면 구멍이 평평 뚫리지만, 옛날엔 하나 뚫으려면 몇 십 번을 돌려야했어. 근데 이 구멍이 하나둘이어? 그러다 엉덩이가 다 까졌드랬어.”

이제는 돌릴 수 없는 구멍을 짚으며 그가 꺾꺾 웃기 시작한다. 9년째 밥을 반 공기만 받아주는 가슴을 쓸다가, 초점이 안 맞는 시력 탓에 ‘엠병’추임새를 넣어야 가끔씩 연결되는 회로도 당겨본다. 그때 뺨짝을 튼 홍보 차량이 그 집 앞을 지난 것이 문제였다.

화색을 띤 그가 ‘팬스’를 말하기 시작했다. 동두천, 의정부까지 춤추러 다니던 사연에 그에게 춤 안 배운 동네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오래도록 이어졌다. 발명품과 씨름하는 시골마을 에디슨으로 완성해가는 사연을 탕고, 블루스, 지르박 박자가 가로질렀다. 발명품에 움직임을 심은 생각의 근원은 멀리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은 그의 몸에서 시작됐으리라. ㄹ





이돈희

1938

그는 장사꾼이었다. 젊었을 적 전방에서 군 관계 사업을 많이 벌였다. 목표는 오로지 돈이었다. 스스로 “돈 버느라고 권모술수 쓰고 별 짓 다했다.”고 할 정도였다. 냉정을 넘어 냉혹에 이르는 그에게 누이는 말했다. “너는 임마, 니 허벅지를 면도칼로 긁고 소금을 칠 놈이야. 아물지도 못하게.”

돈 좀 만지고 또 그 돈을 잃은 후에야 그는 깨달았다. 이걸 내가 아니라고, 나로 돌아가야겠다고.

시 창작 강의실을 찾던 걸음의 이유는 모른다. 하지만 매주 서울까지 달려가 그 강의를 듣는 것이 7년을 넘어섰다. 그리고 달라졌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굉장히 아주 재미있어. 어떻게 하면 좋은 시를 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도 재미있어.”

시인도, 시 쓰는 사람도 아닌 시 쓰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는 이돈희 씨. 한국문인협회 연천지부장의 명함을 건네며 허허허 웃는 낮에 열은 취기가 돈다. ‘6월의 휴전선’의 시상을 떠올리다 늦은 새벽 홀로 술을 들이켰다는 그가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넓고 잔잔한 호수 위를 돛단배 타고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지. 바다처럼 넓어서 바람도 파도도 만날 수 있지만, 바다처럼 위험하지는 않지.”

호수를 상상하던 그가 홀린 듯이 가리킨 것은 두루미 사진. 이 씨가 인생의 변곡점을 돌면서 천착한 제2의 주제는 새였다. “공중을 날지, 땅에 내릴 수도 있지, 물에서도 살지. 삼위일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새야. 안 좋아할 수가 없지.”

그는 새 중에서도 으뜸은 두루미, 그 중에서도 머리에 빨간 점이 있는 ‘단정학’이라고 했다. 동양 문화권에서 학이라고 불리는 새다. 집안의 자개장, 병풍, 이불 어딘가에서 먼저 만났을 ‘장수와 절개의 상징’ 단정학은 매년 한국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다.

“현재 지구에 남은 3천 마리 중 200마리가 연천을 찾아. 울무 먹으려고 오는 거야. 근데 애네들은 좋아하는 장소만 매년 고정적으로 찾거든. 주로 횡산리, 삼꽃리에 내리는데 한 고개 너머 옥계리에선 전혀 못 만날 정도야. 그러니 불편하게 하면 다신 안 올지 몰라. 그래서 8년째 먹이를 주고 있어.”

7년의 수업과 8년의 먹이주기. 몸이 원하는 시간에 먹고 자고 일하는 그의 일상에서 찾은 오직 두 가지 질서. 질서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으니 그가 덕수 이씨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이순신, 이율곡을 배출한 덕수 이씨의 후손이라 했다.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혈통을 가진 집안은 두 말할 것 없이 덕수 이가야. 그걸 머릿속에 주입을 해놓고 아주 좋은 시를 써야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는 아직도 써지지 않았잖아. 그렇게 훌륭하다는 사람들도 시의 마지막이다 하는 시는 못 썼어. 그게 나한테 주어지는 매력이고 희망이지. 내게 아직도 여지는 있구나…. 결국 못 쓴다는 걸 알지만.”

그가 거울을 본다. 늙은 앞에서 기우는 모든 감각을 거울을 통해 점검하고 단속한다는 그. 얼마 전엔 불안한 마음에 치매 테스트까지 받으러 갔다고 했다. “연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똑똑한 분이라면서 동물 이름을 몇 가지 대보라고 하는 거야. 그건 내가 일사천리니까 테스트하는 여자가 그만하라고 말리더라고.”

짧은 시간에 여러 색채의 감정을 노출한 그가 마지막으로 집 앞을 안내한다. 그의 집에 이르는 길은 온통 시였고, 그 걸엔 갖가지 꽃들이 피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사막의 꽃들이라 이름 붙였다 했다. 삭막하고 메마른 전곡땅을 시와 꽃으로 적시고 싶다는 그의 원은 언제쯤 이뤄질까. ■

“제일 자존심 상하는 욕, 가장 큰 욕이 뭐냐면 ‘성을 바꿀 놈’이야. ‘급살 맞을 놈’보다 더 큰 욕이지. 근데 우리 19대 할아버지가 성을 바꿨어. 왕씨들은 모조리 다 죽이는 시대에서 살아남으려고.”

웃음이 박혀있는 것 같던 왕영록 씨의 얼굴이 그 대목을 설명하면서 싸늘해졌다. 그는 조선 개국과 함께 단행된 왕씨 멸족 역사를 말하고 있었다. 후대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려는 조선의 칼날 앞에서 고려 왕족들은 성을 바꿔야 했다. 왕(王)자에 몇 획을 더한 전(全), 전(田), 옥(玉), 금(琴)씨를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우리 집안은 가장 합리적인 걸 택했어. 내 몸의 반쪽은 어머니이니, 어머니 성으로 바꾼 거야. 이성계가 회개하면서 전 왕조에 예우를 갖춰야 한다, 전 왕조의 사당을 지어줘라 명을 내리고 나서야 성을 회복할 수 있었지.”

그 사당이 숭의전이었다.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 위치한 숭의전에는 고려 태조를 비롯한 고려 4왕, 16충신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숭의전을 짓고 전국을 뒤져 왕씨들을 찾은 거지. 제사 지낼 후손이 있어야 하잖아. 찾아서 관리를 명하며 부사, 전감, 전령, 진수, 참봉 이런 벼슬을 줬어. 조선조왕조에서 내린 거야. 일제시대엔 총독부에서 줬고. 지금은 개성왕씨중앙총친회에서 임명장을 주지. 난 작년까지 전감을 했어.”

그는 숭의전 앞의 개성 왕씨 집성촌에 살면서 40년 가까이 숭의전의 일을 도맡아왔다. 봄, 가을에 지내는 제사는 거의 그의 손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왕실의 제사 이야기 중 눈에 띄는 건 물목이다.

“서양 과일엔 안 써. 토종 중에서도 꺼풀이 세 개짜리 과일만 쓰는 거야. 밤, 은행, 잣처럼. 그리고 생물을 사용해. 고기는 익히지 않은 생고기만 쓰고 쌀도 생쌀 그대로 올리지.”

제사를 지내며 그가 40년간 맡아온 일 중의 하나는 망첩 쓰기다. 망첩은 제관의 이름, 역할 분담 등을 적은 문서. “왕씨 후손뿐만 아니라 16충신 후손들도 제관으로 참석하거든. 그 사람들 전직이 무엇이었건 모두 줄을 서서 내가 쓴 망첩을 받아가는 거야. 붓으로 정성스럽게 제실의 도장까지 찍어주거든. 다들 그거 받는 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두 번 오기 힘든 고려 왕실 제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증서가 되는 거잖아. 흥 씨만 해도 백만 명인데, 종종 대표로 두 번 참석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김삿갓 시 백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원금으로 쓸 수 있다”는 그가 명심보감에 나타난 효를 이야기하다가, 화무십일홍 다섯 자를 풀면서 서울의 인구 집중 현상까지 분석한다. 자신의 연천군의원 이력, 대를 이어 군의원의 업을 맡은 아들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그 끝에 덧붙이는 말. “엄청 노력했어. 난 책을 무지무지 많이 읽은 사람이야.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책을 다섯 트럭 읽어야 누굴 만나건 무리 없이 대화 가능한 사람이 되거든. 난 농사짓는 사람이지만 신문을 구석구석 다 읽어. 농사도 엄청나게 많이 짓는 사람이야. 조상님한테 받은 건 없어. 여기서 숭의전까지 다 내 땅이야.”

전력을 다해 자신을 보여주던 그가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아내를 데리러 전곡에 가야할 시간이라 한다. 남은 몇 분까지 오롯이 내어주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그때, 그는 재빨리 걸어 차에 타며 웃었다. 홀로 남으니 그가 대면하자마자 돌연 읊던 구절이 떠올랐다. “황금천냥미위귀요, 득인일어승천금이라. 황금 천 냥이 귀한 게 되지 못한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얘기 한마디 듣는 것이 천 냥을 이길 수도 있구나.” ㅁ





정영자

1940

젓이 부족한 아기 엄마는 암죽을 쑤었다. 곱게 빻은 쌀을 시루에 찌고 따뜻한 물에 개어 사카린이나 엿물을 조금 섞었다. 젓먹이의 콩만 한 배고래를 무엇으론들 못 채우나 싶었지만, 그 암죽쌀만 한 달에 서 말이라 했다. 먹을 것이라곤 밥밖에 없던, 어른이건 아이건 오직 밥심으로 일어서고 앉던 시절 얘기다.

‘쌀’자가 붙은 가게의 낡은 문은 그 시절을 말하고 있었다. 쌀집을 45년간 지키고 있는 정영자 씨가 말했다. “8톤 차에 한 가득 쌀을 실어오면 줄지어 배급을 받아갔지. 한 말에 오백 원씩 주고, 우리 가게가 정부미 판매소였거든. 정부미는 보리 섞인 쌀이었고 그전엔 알랑미쌀이라고 있었어. 그게 차지긴 한데 덜 깨져서 노랬어. 묵은 거래서 그런지 냄새가 났는데 물에 담가두면 팬찮았어. 정부미 담엔 통일벼쌀, 그담엔 야끼바리…”

반백년 간 쌀을 만진 그의 손이 메조·울무·팔 상자 속을 다녀간다. 그는 쌀이든 잡곡이든 한번 움켜쥐고 놓으면 그 속이 흰히 보인다고 했다. 좋은 것은 손에 착착 붙는데 반해, 나쁜 것은 모래 쥐는 것 마냥 꺼슬꺼슬.

“물이 노상 있는 골논하고, 물이 빠졌다 드는 논하고 쌀이 달라. 물 빠지는 논의 벼가 여물기는 잘 여무는데, 골논 쌀이 밥을 해노면 반질반질한 게 끈기가 남다르지. 연천 백학쌀이 그래서 맛이 좋다니까.”

그는 쌀가게 주인들만 안다는 이런 얘기도 했다. 쌀 한 말(8킬로그램)을 800그램 뒷박으로 푸면 뒷박 10개가 가득 차야하는데, 아홉 개 반 밖에 안찬다는 것이다.

“풀 때 먼지가 나서 주는 건지 열 번을 재어 봐도 그래. 뒷박으로 팔 때 가격을 좀 더 없는 이유가 그거야.”

쌀을 이야기하다 강물로 짓는 밥을 물은 것이 시작이었다. 가게에 간혀 사느라 코앞의 한탄강을 한 번 못 들여다봤다는 칠십 넷 할머니가 쌀가마니보다 더 무거운 인생을 내려 놓았다. 아이를 가졌을 때 열병에 걸려 두 달 만에 땅을 딛고 일어난 이야기, 아이가 셋이라는 이유로 셋방을 얻지 못해 둘째를 천정으로 보낸 이야기, 열네 식구를 위해 물 지게를 하루 여섯 번씩 길러 나르던 질고 진 길 이야기. 그리고 점쟁이 이야기로 덮어두는 여자의 인생.

“한 번은 점집에 갔는데 점쟁이 말이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인생인데 어찌살아냈나면서 울면서 점도 안쳐 주더라니까.”

그때부터 하는 말은 단속, 또 단속이다. “우리 주인(남편)이 원체 보수적이라 이런 데서 내 얘기 싫으면…. 마누라가 밖에 나가서 놀고 어울리고 이런 걸 무척 싫어하거든. 그래서 난 밖에서 손님들을 만나도 못 본 척하고 쌀쌀맞게 하고 그래. 옛날에 애들 담임선생님이 요 뒤에 살았었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학교도 안 찾아오고 말도 안하고 살길래 바보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지난날의 굴곡 사이사이를 되짚어 나오는 회상은 끝을 모른다. 전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닌, 가슴에 긴 찌꺼기를 뱉듯 몰아치는 이야기. 붙어지는 불이나 떨리는 손끝만 숨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사연으로 꽉 막힌 마음은 세풍 한 점을 만나서도 전체를 털어낼 때가 있다. 그때 쏟아지는 말은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감출 수 없다. 그날의 그가 그랬다. ㅁ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에 물을 끼얹으면 그 물이 내려가는 길이 있었다. 땀별을 녹인 물과 빗물이 함께 섞여 흐르던 물길 옆엔 늘 축축한 두둑이 있었고, 그곳엔 어김없이 울무가 자랐다. 오래전 연천의 농가 풍경은 그랬다.

두둑에 울무를 심는 어머니들은 더 이상 연천에 없지만, 울무는 연천 땅의 물기를 양껏 취하며 한 해 한 해 결실을 맺어왔다. 한국에서 얻는 울무의 7할을 키워내는 곳이 이 땅이라면 믿을까. 그러니 연천의 여름은 무릎 언저리에서 잎을 남실대는 울무밭을 지나며 시작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여름 그 울무 밭에서 만난 울무 농사꾼 이원옥 씨가 말했다.

“울무는 습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날이 가무네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삭이 여물 때 말라서 돌아갈 정도로. 곡식이 여물 때비가 오질 않으니 알이 안차잖아요. 쪽정이가 돼서 날아가고. 곡식 한 알을 바라보고 일 년을 사는 게 농사꾼인데…”

임진강물에 허연 염분이 맺히는 가뭄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은 터였다. 그래도 그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건 고민하지 않는다 했다. 그러곤 허리를 구부려 울무보다 더 열심히 자라는 풀을 숙였다. “곡식이 풀을 못 이겨요. 풀은 아무렇게나 내버려둬도 잘 자라서 결실을 맺지만, 곡식은 가꿔주지 않으면 열매를 못 얻잖아요.”

손의 정성에 비례해서 거둘 수 있는 것이 농사라면 얼마나 좋으랴만, 농사꾼은 뜻밖의 변수까지 극복해야 했다.

“울무를 파종하잖아요. 울무 싹이 뻗쭉뻗쭉 올라올 때 까치, 꿩, 비둘기들이 달려들어요. 울무 싹은 안 먹고 씨앗만 똑 따먹어. 금방 심었을 땐 찾지도 않더니, 싹 올라올 때가 맛있는 건지 고 때만 되면 귀신같이 찾아 파먹어요.”

생명의 기운을 한 알의 씨앗으로 취하려는 새들을 무슨 명목으로 내칠까. 그는 그것을 받아내는 것까지 농사라고 했다. 그래서 새들이 수확한 울무의 낱알을 쪼아도, 그 움직임에 껌질이 얇은 울무가 후두둑 쏟아져 내려도, 그것을 새와 쥐와 고라니가 나눠 먹고 있어도 그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말을 할 뿐이다. “곡식 한 알에도 참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걸 다 알아야지 곡식을 온전히 얻었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그에게 울무를 한번 보자 청했다. 그는 조합이 도정 전의 울무를 전량 수매해가기 때문에 보여줄 울무가 없다고 했다. “잘 여문 건 도정하면서 싹 벗겨져서 통알이 나오는데, 잘 안 여문 것들은 기계가 돌아가는 데서 깨지고 부서지는 거지. 그렇게 씨래기 진건 우리 집에도 있어요. 쌀밥에 안쳐 먹거든요. 공장에서 킬로당 팔천 원에 사와요. 통알은 한 말에 이십만 원이 넘으니까… 사먹기 힘들죠.”

통알을 보여줄 수 없어 미안해하는 그가 깨지고 부서진 ‘울무 씨래기’를 자꾸자꾸 매만진다. 씨래기를 말하며 함께 들켜버린 쌀독 사정.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그의 울무밭 고랑을 따라 굽이굽이 돈다. 척박한 땅인지 알면서도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옥계리에 흘러 들어왔던 신혼 시절, 공장에서 퇴근 하자마자 풀 한포기라도 뽑으러 밭에 나가야 했던 해가 길어 어렵던 여름날, 베어낸 울무를 어깨에 지고 수직의 산비탈을 오르내려야 했던 가을날. 30~40대는 어떻게 살았는지 돌이켜도 기억나는 것이 없다는 그의 이야기를 갈음하는 건 결국 이런 말. “그래도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





산도, 강도, 바다도, 모자 없인 떠날 수 없는 계절, 여름!

잭울프스킨 Anti uv mesh hat 메쉬 소재로 시원하게, 목 부분까지 완벽한 자외선 차단. 몽벨 Linnen hat for woman 더위를 식혀주는 린넨 소재에 쿨맥스 땀받이 사용, 챙 끝에 와이어를 넣어 자유로운 연출 가능. 몽벨 Supplex 3 hole hat 편이 가진 장점만 남긴 서플렉스 소재에 메쉬 소재로 바람이 잘 통하고 쿨맥스 땀받이로 쾌적한 착용감 유지. 잭울프스킨 Anti uv mesh hat 자외선을 차단하며 강한 태양 아래 그늘을 만들어주는 챙이 특징. 내부는 메쉬 소재를 써 땀이 차지 않으며 챙 양 옆 스냅 버튼으로 두 가지 스타일로 연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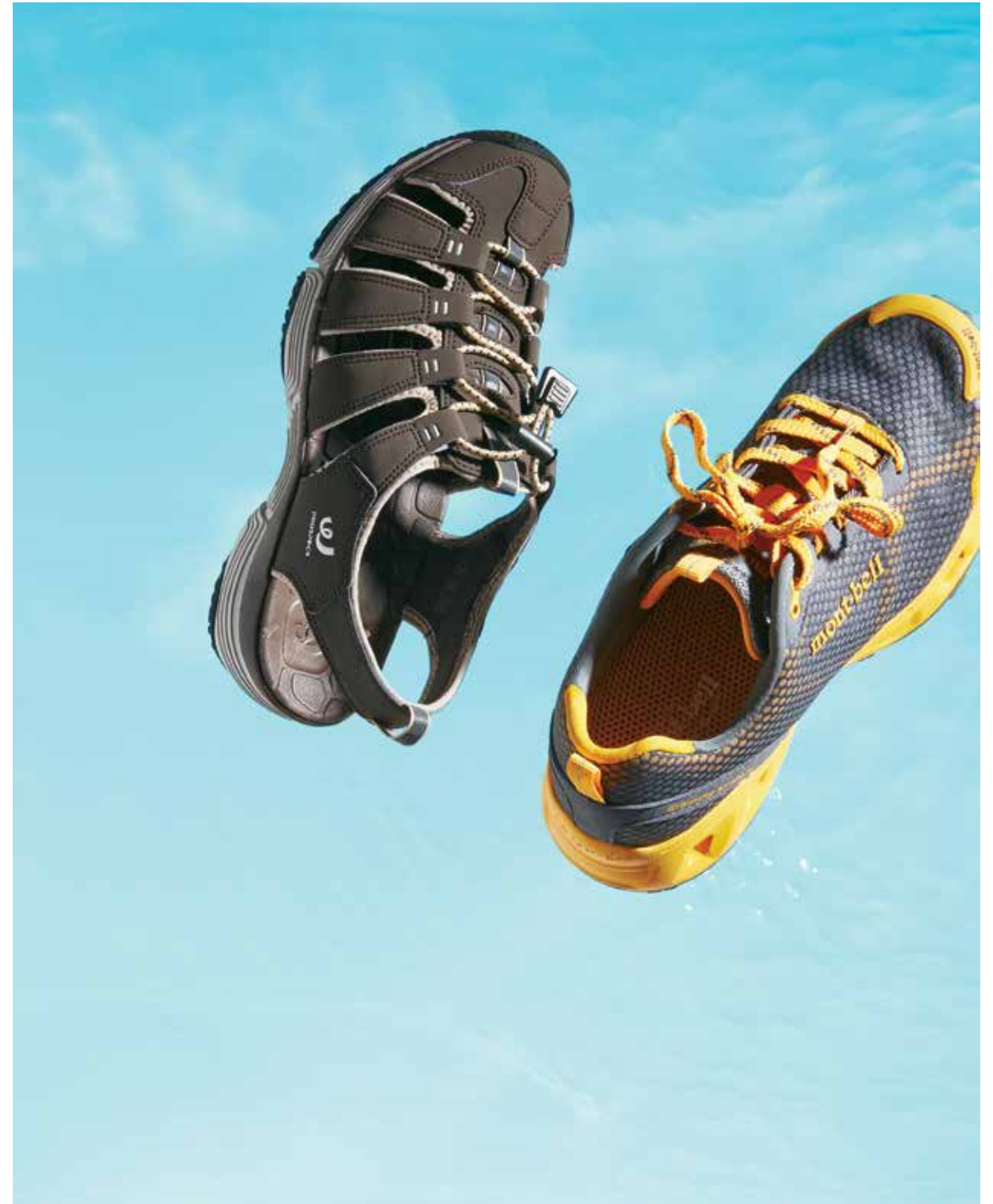
이왕이면 시원하고 멋스럽게

몽벨 GORE-TEX® Rowing hat 양 옆으로 넓은 챙을 가진 로잉 햇. 방수와 투습 기능이 뛰어난 고어텍스 2L 소재를 사용해 갑작스러운 소나기 등 번덕스러운 날씨에 유용하다. 내부는 메쉬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이 쾌적하며, 챙 부분 스냅 버튼으로 두 가지 스타일로 연출 가능. 잭울프스킨 Anti uv mesh hat 앞부분과 머리 상단에 절개선을 넣고 메쉬 소재를 적용해 통기성을 극대화한 제품. 몽벨 Mesh Fedora 메쉬 소재를 사용한 멋스러운 중절모. 내부에는 쿨맥스 땀받이를 사용했고 가죽 끈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시원하고, 편안하고, 안 미끄러지는 아쿠아슈즈를 찾는다면 주목!

프로스펙스 W Foret 205 바닥면이 분절된 독립 접지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거친 지형에도 안정적인 착용감을 자랑한다.
젝울프스킨 Riverside women 젓은 바위나 이끼 낀 돌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아쿠아 슈즈. 메쉬 소재를 사용해 빨리 마르고 과학적인 바닥 시스템으로 신발에 물이 차도 금방 배출한다. 일상에서 양말 없이 신어도 변함없이 쾌적한 착용감 유지.
프로스펙스 W Foret 205 발가락을 보호하는 형태로 맨발에도 안전하게 신을 수 있는 아쿠아 슈즈. 바닥면에 스틸 메쉬를 적용해 이물질 침투를 막았다.



강과 계곡에서도 완벽한 여름 슈즈

프로스펙스 W Foret 201 경사진 바위틈에 서식하는 산양의 발 모양에서 착안, 바닥을 여섯 개로 나누고 각 부분이 다시 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해 강가나 계곡 등 거친 지형에서도 접지력이 탁월하다.
몽벨 Aqua run 2.0 인젝션파일론아웃솔을 사용해 이끼 낀 미끄러운 물속에서도 우수한 접지력과 추진력을 보이는 250g 경량 슈즈. 쿠셔닝이 뛰어나고 2중 메쉬로 바람이 잘 통하며 인솔에 뚫린 수많은 미세 구멍으로 물이 금세 빠져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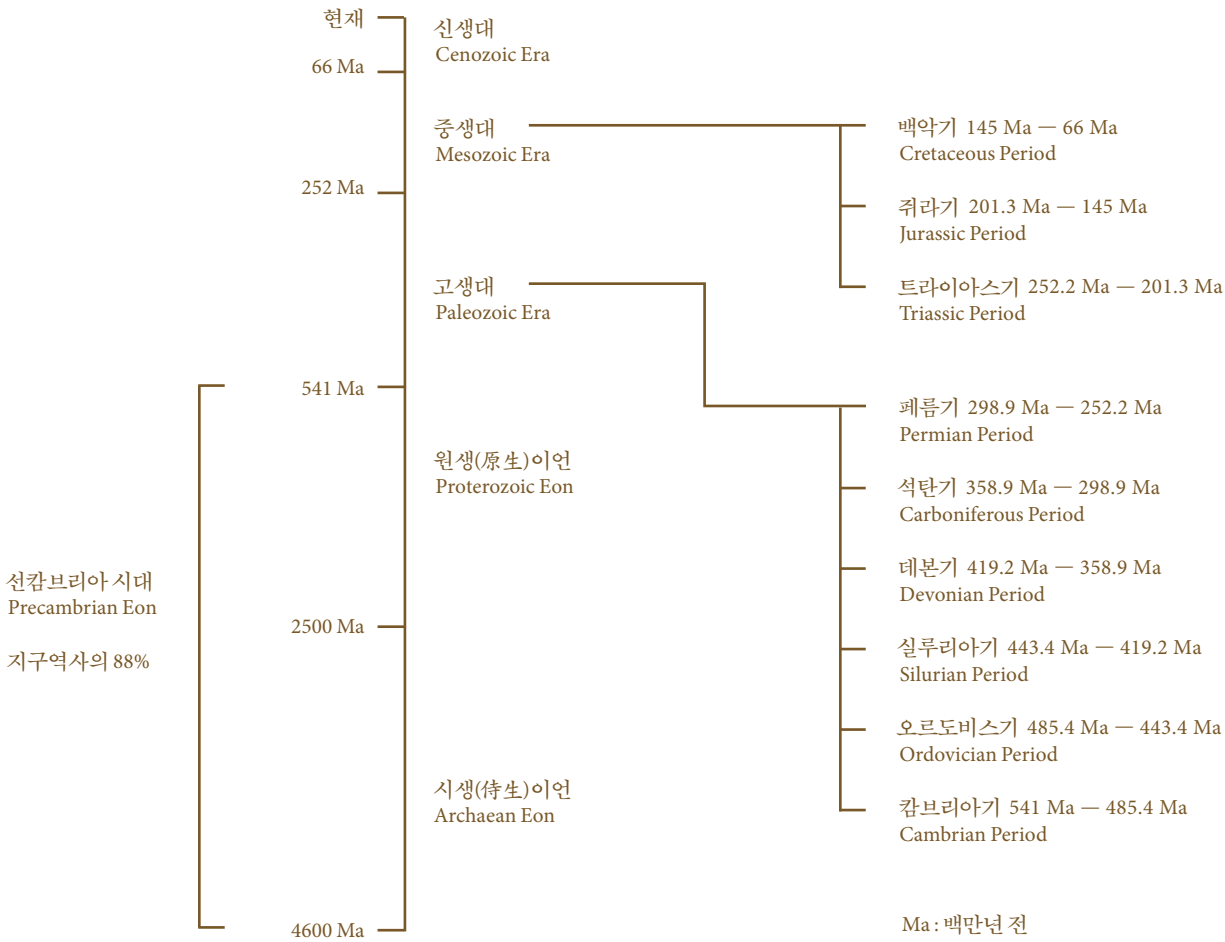




돌로 읽는

연천의 시간

광활한 그랜드캐년을 이루고 있는 암석도 따져보면 서너 종류가 전부라는데, 연천에는 서른 가지가 넘는 암석들이 흩어져있다. 다양한 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땅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뜻. 그래서 연천은 한반도 자연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타임캡슐이라 불려도 좋다. 지질학자 박정웅과 함께 19억 년 전 지구로 거슬러 올라가 봤다.



많은 도로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서울에서 암석을 볼 수 있을까? 다행히 서울에는 크고 작은 산이 많아 암석 보기가 어렵지 않다. 서울에서 높은 산은 화강암, 낮은 지역은 편마암과 편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는 대략 세 가지 암석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넓고 아름다운 경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그랜드캐년은 어떨까? 그랜드캐년은 콜로라도 강이 약 1700만 년 동안 깎아 만든 위대한 조각품이다. 길이만도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그랜드캐년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암석은 퇴적암.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암, 이암, 석회암밖에 볼 수 없다. 이 엄청난 규모의 땅에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서너 가지 암석밖에 만날 수 없는 것이다.

경기도 연천군은 어떨까? 놀랍게도 연천에서 볼 수 있는 돌의 종류는 서른 가지가 넘는다. 답사를 조금만 신경 써서 진행한다면 스무 가지 정도의 암석은 만날 수 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한 암석은 거의 다 나올 정도다. 비무장지대나

민간인통제구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면, 흥미진진한 역사를 반영하는 돌을 더 많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연천은 암석박물관이자 자연사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아깝지 않다. 돌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에 이렇게 다양한 암석이 분포한다는 것은, 연천의 지질학적 역사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얘기다. 돌에는 돌이 생성되고 지나온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연천의 돌에는 한반도가 변해 온 자연사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많은 지질학자들이 연천을 다녀갔다. 지질학자인 필자도 30년전부터 연천을 꾸준히 답사해왔다. 그 과정에서 과학교사들의 지질 답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질 답사 안내서 형태의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이곳을 여전히 찾고 있다. 연천 지질 답사는 돌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답은 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구의 시간을 차근차근 되짚어가는 여행을 시작해보자.



연천에서 가장 오래된
은대리 ‘선바위’

1,900,
000,
000

19억 년 전, 지구 역사가 58.7% 지난 시점

돌의 나이를 이해하려면 지질 시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지구가 탄생한 것은 약 46억 년 전. 뜨거웠던 지구 표면이 식어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지질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초기 지구에서 발생한 지질 현상의 증거는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찾아내기 힘들다. 하지만 지구 탄생 이후 지질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그 변화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돌은 몇 살쯤 되었을까. 지금까지 알려진 한국 최고령 암석은 25억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서해 앞바다의 작은 섬 인천 대이작도에 있다.

그렇다면 연천에서 가장 오래된 돌은?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찾아간 곳은 전곡읍 은대리다. 그곳에서 ‘선바위’라 불리는 낮은 산을 만났다. 젊은 암석에 오래된 암석이 섬처럼 둘러싼 구조를 보이는 곳인데, 이는 지질학자의 눈에도 특이하게 느껴지는 지형이다. 선바위는 연천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으로, 암석의 이름은 편암이다. 선캄브리아시대인 약 19억 년 전에 형성됐다. 원래는 바닷가와 갯벌에서 모래와 진흙이 모여서 만들어졌는데, 이후 대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강한 압력을 받고 심하게 눌리는 변성작용을 통해 변성암인 편암과 규암이 되었다. 편암에는 눌러서 생긴 결이 발달되어 있다. 보통 암석이 땅속에서 강한 압력을 받았을 때 줄무늬가 뚜렷하게 발달하는데 이 암석에는 편리라는 줄무늬가 잘 보인다. 그래서 판 모양으로 잘 쪼개진다. 은대리 펜션에서 강가로 내려가는 비탈의 석벽을 만져보면 그 습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가에 우뚝 서있는 바위는 단단한 석영으로 이루어진 규암이다. 이 암석은 보통 차돌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매우 단단하다.



연천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암석은 연천의 가장 남서쪽에 있다. 파주 감악산이 바로 이 암석의 주 분포지인데 감악산 동쪽에 있는 전곡읍 눌지리와 양원리 계곡에서도 이 돌을 볼 수 있다. 양원리를 지나는 양원천을 따라 남쪽으로 들어가면서 하천 바닥을 살펴보자. 흰빛, 검은빛이 줄무늬 모양으로 섞여 있는 암석들이 눈에 띈다. 상상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감악산에서 양원리 일대에 있는 암석은 깊은 땅속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한국에는 이처럼 땅속에서 마그마가 식어 형성된 암석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산이다. 하지만 감악산의 돌과 북한산의 돌은 생성 원인은 같아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감악산의 돌은 약 7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북한산의 돌은 약 1억 7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북한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화강암이다. 감악산의 암석을 북한산 화강암과 비교해 보면 눈으로 보기에 구성 물질은 거의 같아 보인다. 그러나 감악산 암석에는 검은색 광물이 많고 석영이 적은 편이다. 지질학자들은 이를 화강암과 구별하여 섬장암이라고 부르지만 일반인은 쉽게 구분하기 힘들다. 그래서 화강암이라고 해도 된다. 감악산 암석에서 특이한 것은 한 방향으로 줄무늬 모양이 발달해 있는 점이다. 화강암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구조다. 줄무늬는 감악산 암석이 생긴 후 강한 압력을 받아 눌렸다는 것을 알려준다. 요약하자면, 감악산 돌은 7억 5천만 년 전에 마그마가 굳어져 생겼고, 이후 변성작용으로 줄무늬 모양이 되었다는 것이다.

양원리 하천 돌의 줄무늬는 동서 방향으로 발달했는데, 이는 남북 방향에서 강한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처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되었지만 우리에게 자신이 겪어온 이야기를 어떻게든 전해주는 것이 암석이다.

750,
000,
000

7억 5천만 년 전, 지구 역사가 83.7%지난 시점





전곡읍 양원리
탄광 주변에서 만난 돌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석유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석탄은 한국의 대표 에너지 자원이었다. 당시에는 전곡읍 양원리에서도 석탄을 생산하던 탄광이 있었다. 강원도 지역의 탄광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석탄을 캐냈던 곳이다. 1980년대 후반 석탄 소비가 급감하면서 석탄 산업이 어려워지자 양원리 탄광을 비롯한 많은 탄광이 문을 닫았다. 그 중에는 주변의 암석을 채취하여 석재로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00,
000,
000

2억 년 전, 지구 역사가 95.7% 지난 시점

양원리 탄광 주변을 걷다 보면 석탄을 포함하는 지층을 만날 수 있다. 석탄은 강이나 호수, 늪지대에 쌓인 식물이 묻혀서 적당한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광석이다. 따라서 주변에는 식물화석이 많이 있다. 양원리 탄광 주변의 까만 셰일(모래보다 작은, 지름이 1/16mm보다 작은 진흙이 쌓여 굳어진 암석)에는 식물의 줄기나 잎, 줄기를 감싸고 있던 껍질 등이 남아 있다. 석탄과 식물을 포함하는 지층을 적성층이라고 하는데 역암, 사암, 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적성층은 강한 압력을 받아 구부러지고 끊겨서 생긴 습곡이나 단층이 발달해 있는데, 양원남시공원 옆 계곡이나 산 능선을 살펴보면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층이 생성된 때는 약 2억~1.5억 년 전으로 공룡이 번성하던 중생대 쥐라기이다. 양원리 탄광 인근을 돌아다니다 보면 양원리 편돌말 입구에서 고인돌을 만날 수 있다. 암석을 보는 눈썰미를 가진 사람이라면 ‘고인들의 재료가 탄광 옆 채석장에서 왔으리라’는 짐작이 어렵지 않다. 역암과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덮개돌엔 놀리고 비틀어진 흔적까지 남아 있다.

이 고인돌은 경기도 기념물(제209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고인돌 안내판을 살펴니 “덮개돌은 화강암질 편마암으로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오류다. 이 암석은 중생대 쥐라기에 만들어진 역질 사암이 변성작용을 조금 받은 것이다. 자갈이 조금 들어 있지만 대부분이 모래로 되어있다는 말이다. 중생대 암석을 고인돌로 완성시킨 것은 먼 훗날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무덤 형태다. 거대한 암석을 암반에서 떼어 내거나 평평하게 떨어진 암반을 적당한 크기로 손질하여 사용했다. 무겁고 단단한 암석을 적당한 장소에 옮겨 설치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했다. 이 지역에서는 하나의 돌 위에 쌓인 다양한 시간대를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양원천을 따라 대원가든에서 양원남시공원까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암석을 살펴보자. 고생대 이전인 선캄브리아시대에 만들어진 양원천의 감악산변성섬장암 주변에 중생대에 쌓인 석탄층이 확인되고 있으니, 두 암석 사이에 약 5억 5천만 년의 시간이 쌓인 것과 다름없다. 이 일대에서는 두 암석이 직접 몸을 맞대고 있는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연천 인근 동두천 북쪽에서는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3번 국도 옆 티클라우드 골프장 입구 쪽에서 찾으면 된다.



현재 한국에는 용암이 분출하는 화산은 없다. 하지만 옛날에도 그랬을까? 아니다. 한국은 화산이 아주 많았던 나라다. 중생대 백악기의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것이 연천과 철원 사이에 있는 고대산이다. 연천군 신서면에 있는 고대산은 한동안 군사 지역으로 묶여 오랫동안 군부대가 주둔해 있었다.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로워진 것은 2001년 9월 이후다. 오랜 기간 진행된 침식과 풍화작용 탓에 원래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고대산은 분명 주변 지역과는 다른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천-철원 지역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은 엄청나게 많은 화산재를 내뿜었고, 커다란 화산재, 화산 자갈과 화산암괴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떨어졌다. 이것이 쌓여 생긴 것이 고대산이다.

지름이 1~3m의 큰 화산암괴로 이루어진 화산 각력암은 신서면 내산리에서 볼 수 있다. 고대산으로 가는 남쪽 동막골에는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응회암이 많다. 응회암은 풍화작용이 진행되면서 뽀쪽한 덩어리로 쪼개져서 산비탈을 이룬다. 응회암 조각이 쌓여 생긴 가파른 산비탈을 너덜이라고 부르는데, 고대산 비탈에는 너덜이 많다.

너덜로 된 북사면엔 ‘풍혈(風穴)’이 있다. 산 정상부의 시원한 공기가 너덜 틈사이로 들어가 아래쪽 틈새로 빠져 나오게 되면, 공기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늘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풍혈에는 5월까지도 얼음이 남아 있을 정도다. 한국의 대표적인 풍혈로는 경남 밀양의 얼음굴이 있다. 울릉도의 풍혈, 의성 냉천, 전북 진안의 성수풍혈과 냉천도 비슷한 원리로 형성된 것이다.

83,
000,
000

8,300만 년 전, 지구 역사가 98.2% 지난 시점





방사상 모양의 주상절리를 볼 수 있는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재인폭포



500,000

50만 년 전, 지구 역사가 99.9% 지난 시점

물과 불이 만든 한탄강 석벽

신생대에도 화산 폭발이 있었다. 연천에는 그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한탄강변에서 볼 수 있는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는 그 화산 폭발의 산물이자, 폭발 이후 시간의 기록이다. 시간을 거슬러 그 생성 과정을 살펴보자.

용암이 분출한 곳은 연천에서 북동쪽으로 한참 떨어진 북한강의 평강으로 알려져 있다. 약 51만 ~15만 년 전 평강에서 분출한 용암이 옛 한탄강을 따라 흘렀고, 철원-포천-연천을 지나 문산까지 이어졌다. 한탄강을 흐르던 용암은 강 주변의 낮은 지역을 채웠고, 그것은 곧 식어서 평탄한 평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흘러온 한탄강이 굳어진 용암을 깎아 지금과 같은 수직 절벽을 이루었다. 지표에서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수축될 때 암석이 갈라져 사이사이 틈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주상절리다.

현무암에는 대부분 주상절리가 발달한다. 절리는 암석이 식어가는 과정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용암의 밑바닥과 표면에서 냉각이 진행되어 중심으로 향하면 수직 주상절리가 생긴다. 주상절리는 냉각되는 형태에 따라 방사상 모양으로 쪼개지기도 하고 판상으로 쪼개지기도 한다. 차탄천, 아우라지, 재인폭포 등에서 방사상 모양으로 쪼개지는 주상절리를 만날 수 있다. 판자를 쌓아 놓은 듯이 쪼개지는 절리(마치 기왓장을 쌓아 놓은 것처럼)는 차탄천 풍천농원 앞에서 볼 수 있다.

한탄강과 영평천이 만나는 아우라지에서는 베개 용암(pillow lava)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현무암도 볼 수 있다. 용암이 물밑에서 분출하거나 땅 위를 흐르던 용암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 형태는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듯이 길쭉하게 생겼다. 베개용암은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특이한 암석인데다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아우라지 베개 용암은 모양이 예쁘고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탄강 절리를 관찰할 때 주변 땅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재미다. 한탄강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협곡이다. 협곡이란 주변의 평균 지형에 비해 낮은 곳을 따라 흐르는 강을 말한다. 한탄강에서는 강 옆의 수직 절벽은 물론, 그 절벽이 평야를 지붕처럼 이고 있는 형태까지 볼 수 있다. 연천의 평야역시 용암과 무관하지 않다. 강원도 철원 평야와 경기도 전곡 평야는 현무암 성분의 용암이 강 주변의 낮은 곳을 채워 평평하게 만들어진 용암대지다. 규모가 작지만 용암대지라고 부른다. 용암대지를 이루는 표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암석이 부스러지는 토양화가 진행된다. 토양이 되면 밭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물이 고여 있을 수가 없어 논농사를 짓기는 어렵다.

그 땅에 논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알갱이가 작은 진흙 섞인 토양을 부어 물이 빠져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른바 객토 작업이다. 벼를 재배하는 철원이나 전곡 평야의 논은 작은 입자로 된 퇴적물이 자연적으로 흘러와 덮였거나,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가는 흙을 실어 옮겨 논을 만든 것이다. 화산 폭발로 생성된 지역은 토양의 특성상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쉽게 빠져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밭농사를 짓는다.



1978년 동두천에 주둔하던 미군 병사 그렉 보웬이 한탄강변에서 우연히 주먹도끼를 발견했다. 이후 고고학계에서는 한탄강 주변에서 유적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고 다수의 주먹도끼를 발굴했다. 이는 단순한 발견을 넘어 세계 고고학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한 사건이었다. 그 때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발달된 주먹도끼 대신 단순한 형태의 ‘찍개’만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병사가 발견한 주먹도끼는 아슐리안형으로 분류되는데 1847년 프랑스 아슐 지방에서 처음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주먹도끼는 석기시대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 찢고 가죽을 벗기는 용도로 사용했다. 그래서 가장자리를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어 썼다. 주먹 크기의 타원 모양 자갈을 고른 뒤, 다른 돌로 때려서 조금씩 떼어내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이 때 주먹도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돌을 골라 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지질학자들이 주먹도끼를 살펴보니 단단한 석영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석영질 사암, 규암, 찰트와 흑요석이라는 암석이 좋은 원석이 되었다. 연천 일대는 이들 재료 중 규암이 풍부하다. 원래 이 암석은 연천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인 편암과 함께 나오는데, 이 둘의 생성 연대는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먹보다 약간 큰 타원체인 규암 덩어리를 주워서 다른 암석으로 때리면 유리처럼 떨어져 나가면서 깨진다. 반복해서 때리면서 모양을 만들면 적당한 크기의 주먹도끼를 만들 수 있다. (그림 참조) 연천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는 약 20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 유적으로, 이 시기 한반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 시절에 만든 주먹도끼는 전국 선사박물관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 ■

100,
000

10만 년 전, 지구 역사가 99.99% 지난 시점



그렉 보웬이 발견한 주먹 도끼. (서울대 소장)

(오른쪽)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79년 전곡리 1차 발굴 현장. 좌측에서 네 번째가 필자 배기동 관장이다.

선사 고고학자에게 연천이란?

전곡 유적이 뭐 길래

사람 팔자라는 말이 있다. 삶이란 운옹하는 자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때론 주어진 운명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는 모양이다. 내가 고고학자가 된 것도 그렇고 고고학자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선사 고고학자가 된 것도 그렇다. 내 인생에서 운명의 여신이 손을 뻗친 ‘기록’이 몇 번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전곡 유적과 관련돼 있다. 전곡 유적은 내가 발견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발견 후 30년 이상 지속해서 전곡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다. 전곡 유적을 처음 발견한 이는 동두천 주둔 미군 병사였던 ‘그렉 보웬’이다. 한국의 주요한 선사 유적 발견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 같은 중견 고고학자들은 얼굴이 화끈거린다. ‘(한국 고고학자들은) 무얼 했길래 중요한 선사 유적은 다 미국 사람들이 발견한 거야?’ 한소리 들어도 마땅한 질책이지만, 사실 한국의 경우 지난 1960~70년대에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활동을 많이 할 상황도 못되었다. 전곡리만 하더라도 지난 1980년대 까지만 해도 가는 동안 군인 검문소를 여러 군데 지나야 했고, 접경지역인 탓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일도 많았다. 1980년대 초쯤이었던 것 같다. 전곡에서 멀지 않은 주월리라는 곳에서 배낭을 메고 지도와 삽을 든 채 조사를 다녔더니, 인근 지서장이 ‘간첩 출현’이라 생각하고 택시를 타고 헐레벌떡 우리를 잡으러 왔었다. 그러한 차림새는 흔히 방공 교육에서 간첩 확인 요령 중 핵심 증거로 등장할 때였다. 이러한 환경의 벽을 변명 삼아 뒤로 물러나 있다가도, 문화유산 해설사나 학예사들이 전곡 유적 발견 연유와 관련해 미군 병사 이야기를 드라마 구현하듯 장황하게 해대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아슐리안?’

전곡 유적은 세계적인 고고학 지도책이나 교과서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유적이다. 당시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된 사실 때문이다. 이로써 전곡 유적은 세계 구석기 분포 학설인 모비우스 이론을 무너뜨린 유적이 되었다. 그런 연유로 발견 초기만 해도 구석기 연구가 발달한 일본에서 더 호들갑을 떨었고, 결국 카미다카모리 유적 날조사건 같은 것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국의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두고 일본 우파 고고학자들이 느낀 열등의식이 그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이 유적 발굴에 참여하게 된 것 역시 운명의 장난이었다. 원래는 시베리아의 스키타이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기마고고학을 전공하려고 했는데 고고학 팔자가 180도 바뀐 셈이다. 나의 선생님은 삼불암 김원용 선생이시다. 문화계에서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다. 전곡리 유적이 발견될 즈음에 나는 호암미술관에 근무하다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조교급 학예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 당시 서울대학교에서는 구석기를 전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는 연합 발굴을 하기로 하고 1차 발굴을 시작했는데, 그때 내가 현장 실무 책임자를 맡게 된 것이다. 내 고고학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다. 유적 발굴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 적어도 5년을 끌어야 했고, 주간 학교로서 현장 책임자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었다.

“구석기도 재미있지. 나도 다시 고고학을 하게 된다면 구석기를 할 거야.” 함께 있을 때 삼불 선생께서는 혼잣말처럼 되뇌셨다. 분발을 바라시는 선생의 은근한 암시가 아니었더라도, 나 스스로도 석기가 가지는 순수함의 마력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주먹도끼를 주제로 석사논문을 썼다. 이게 내 고고학 인생의 시작인 셈이었다.

발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전곡리 발굴의 역사는 아마도 한국 고고학의 한 시대를 장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 중견 고고학자들 대부분은 전곡에서 얼마간 발굴을 해 본 적이 있을 정도다. 한편으로 황당한 에피소드도 많다. 특히 발굴 초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심이 전곡을 들끓게 만들었는데, 그만큼 언론의 취재 경쟁도 심했다. 1차 발굴이 시작되었을 때 땅 속에서 지붕 서까래 굵기의 검은 색 점토가 여러 개 발견되었는데, 취재진들은 ‘구석기시대의 집 자리 구조가 남은 것이 아닐까?’ 또는 ‘구석기시대에 홍수로 나무가 떠내려와서 쌓인 것이 아닐까?’ 등 터무니없는 가설(?)을 내놓았다. 실제로 어느 저명 일간지에서는 ‘구석기시대 집 자리 발견’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큼지막하게 다루기도 했다. 유적이 만들어진 다음 두더쥐나 쥐 등이 관 굴 속으로 늦은 시기의 흙들이 들어가서 생긴 것인데, 어이없는 오해를 하고 만 것이다. 이것이 정말 집 자리 구조물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세계 최고(最古)일 테다.



전곡리 유적 발굴 당시 현장 사무실 겸 유적관으로 쓰던 건물.

목숨이 위협받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특히 내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발굴을 하게 된 지난 1986년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 발굴 과정에서 대전차지뢰 3개가 발견된 것이다. “선생임에, 이거 대전차지뢰입니다.” 합천 사투리를 쓰던 상병이 포그레인에서 내려오면서 무심하게 외치던 말이다. 바로 그 포그레인 삼 앞에 서있던 나와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찔했던 순간이었다. 만일 그 상병이 잘못하여 포그레인 삼밭이 지뢰를 쳤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 대전차지뢰는 도중에 터질까봐 부대로 가져가지도 못하고 발굴 현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터뜨릴 준비를 했는데, 부근 마을에서는 모든 가족을 옮기고 아내와 나는 발굴단 사무실의 모든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였다. 진동으로 깨질지도 모른다는 경고 때문이었다. 터뜨릴 때 발생한 엄청난 폭발음으로 우리 내외는 한동안 등골이 서늘했다.

전곡 유적은 80만 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한국 선사유적으로는 가장 넓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당시에는 인근에 집도 없는데다 주변 땅은 농사도 잘 짓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었다. 게다가 유적지의 바로 옆에 미군과 국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포 마당이 있었다. 포사격 훈련을 할 때는 엄청난 대포 소리, 하늘을 날아가는 대포알의 시뻘건 꼬리에 불면의 밤을 지새울 때가 많았다.

전곡구석기축제, 시작은 이랬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곡읍이 발달하였고, 유적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땅을 두고 주민들의 원성이 점차로 커지기 시작했다. 그 원성은 결국 그동안 고고학 발굴 현장에 책임자로 있던 내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때가 많았다. 나는, 학문의 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적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알리고 싶었다. 1993년에 동아시아 고고학연구소가 주최가 되어 유적관을 만들고 개관 기념 공연을 준비했다. 전위예술로 유명한 무세중 씨를 초빙해 ‘선사 인간들의 현대 나들이’라는 제목으로 행위극 공연을 했고, 어린이 미술제를 열었다. 유적에서 열리는 무용극 공연은 처음이어서 고 김원용 선생, 고 한병삼 국립박물관장 등 서울 경기 지역의 고고학과 박물관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했었다. 문화의 향유에 목이 마르던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공연은 매년 이어졌고, 내가 아프리카에 초빙 교수로 가던 해에도 행사는 어김없이 지속됐다. 이렇게 시작한 행사를 연천군에서 더욱 계발하였고, 이제는 거의 100만 명이 참가하는 축제로 성장했다. 그러고보니 이 축제 때문에 내가 고발을 당한 일도 있었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곡포럼의 멤버였던 도예 작가가 도자기로 풍경(風磬)을 만들었고, 학생 수십 명이 밤을 새워서 그것을 나뭇가지 하나하나에 매달았는데, 이것을 보고 누군가가 유적 훼손이라면서 문화재청에 고발을 한 것이다. 그 도자기 풍경은 바람이 불면 맑은 소리로 사람들을 매료시켰는데, 나 역시 그 소리로 마음을 쫓는 듯했다.

전곡 유적의 의의를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 유적을 매개로 사람들이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크게 평가받을 일일 것이다. ■



전곡리에서 발굴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전곡진사박물관
전곡진사박물관은 동아시아 최초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 옆에 자리하고 있다. 전곡에서 발견된 최초의 주먹도끼들뿐 아니라 인류 진화 역사를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물들이 상설 전시되어 있으며, 특히 울어름에는 전곡리 구석기 유적 발굴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구석기 발굴전이 개최되고 있다. 해당 전시는 8월 31일까지 열린다.
jigpm.ggcf.kr

전곡진사박물관 전경



1993년 제1회 전곡구석기축제 중 행위극 ‘선사 인간들의 현대 나들이’



眉叟
許穆

늘 푸른
나무를
가꾸던
사대부,

웅연에서
노닐었다네

미수 허목의
임진강 뱃놀이



〈허목 초상〉, 보물 1509호
이명기(李命基), 견(絹)에 채색, 72.1×57.0센티미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허목 초상화는 현재 총 세 점이 전해지는데, 위 그림에는
정조가 채제공에게 명하여 허목의 초상을 구하고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 이명기에게 이를 본떠서 그리게[移模]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 후대의 이모본(移模本)임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연천은 한양
사대부들이 살고자 했던
북쪽 경계였다. 임금 있는
곳과 너무 멀지 않고 풍광은
빼어난 곳. 사대부들은
이곳에 정자 같은 집을 지어
학을 기르고 고기를 낚고
벚이 오면 배를 띄워 물 따라
흐르기도 거슬러 오르기도
하며 자연에 기대 사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그 대표
인물이 연천 사람 허목이다.

1658년 6월 10일 오후였다. 임금이 만나자는 것도
거절한 한 사내가 마포나루에 찾아 들었다.
장성한 아들 둘과 함께였던 그는 깡마른 얼굴에
흰 눈썹이 유난했다. 사내는 나루에서 배 부리는
사람을 수소문해 황포돛배를 띄웠으나 때마침
서해바다에서 밀려오는 밀물을 헤치고 나아가기가
버거웠다. 힘겹게 행주나루까지는 다다랐지만 날은
저물고 밀물이 거세 결국 나루에 정박한 배 안에서
하루를 묵어야 했다. 그렇게 기우뚱대는 배 안에서
밤을 지새운 이는 파란만장한 정치 이력을 지닌
남인의 거목, 미수(眉叟) 허목(1595~1682)이다.
그는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가 마을인 왕징면
강서리 석록산 기슭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허목은 1633년 2월, 부친인 의정공 허교(1567~
1632)를 연천 선영에 장사 지낸 후 줄곧 선영
가까이에 머물렀다. 더러 한양이나 타지에 나가
기는 하였지만 그의 주된 거처는 연천이었으며,
숨을 거둔 곳 또한 석록산 기슭이다. 행주나루에
면동이 터오자 밀물은 잦아들고 썰물이 시작되었다.
배는 조수의 흐름을 타고 지금 통일전망대가 들어
선 과거의 오두산성 앞에 다다랐다. 그곳에서부터
임진강을 거슬러 오른 허목은 마포나루로부터
연천 징파나루까지 오며 2박 3일 동안 배에서
지낸 일들과 바라 본 풍경들을 〈무술주행기〉라는
글에 아주 소상히 밝혀 놓았다.

늘 푸른 나무 사이로 학이 거닐던 집
허목이 징파나루로부터 걸어서 다다른 석록산
기슭의 집은 세 칸 남짓한 뗏집이었다. 울타리
가까이 큰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마당 가냘에는
뽕죽하게 생긴 돌을 쌓아 금강산처럼 다듬어
놓았다. 그뿐일까. 허목은 자신이 좋아하던
열 가지의 늘 푸르고 수명이 긴 나무를 심어 가꾸며
‘십청원(十靑園)’이라 하였고, 산이나 강에 흠어져
있는 기이한 돌을 모아 놓고 ‘괴석원(怪石園)’이라
불렀다. 1663년에 지은 〈십청원소기(十靑園所記)〉
에 따르면 늘 푸른 나무 열 종류는 소나무(松)·
측백나무(柏)·전나무(檜)·오엽송(伍葉松)·만년송
(萬年松)·대나무(竹)·자죽(紫竹)·비자(樺子)·권백
(卷柏) 그리고 맥문동(麥門冬)이다. 그런가하면
〈석록초목지〉에서는 십청원에 심은 나무들을
포함하여 모두 스물여섯 종류의 나무들이 석록산
주위에 자라고 있음을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숲 속에 깃들여 사는 홍취를 노래한 〈임거견흥〉
에서는 석록산 기슭에 살며 스스로 흥미를 붙인
열 가지를 말했는데 다음과 같다.



징파강 웅연의 석문(石文) 각석 탁본.



임진강 주상절리를 따라 송의전과 당포성을 지나 상류로 올라가면 나오는 징파나무. 여기서 더 올라가면 웅연이 있던 위치이나 지금은 군남댐 공사로 접근이 어렵다.

- 1 3월에 산꽃이 만발하면
바위 모퉁이에서 산새들이 지저귀는 것.
- 2 숲이 깊고 해가 늦게 떠서
그늘진 산비탈에 밤안개가 걷히지 않는 것.
- 3 새벽녘 해가 뜰 때 겹겹의
산 위에 깔린 맑은 노을.
- 4 비가 그친 뒤에 숲 넘어서
들리는 시냇물 소리.
- 5 비가 갠 뒤에 앞개울에 물이 불어나면
냇시터로 걸어 나아가 냇숫줄을 손보는 것.
- 6 시내바람이 비를 불어오거나
낙조가 산 빛을 머금은 것.
- 7 해 질 녘 산기운이 더욱 아름답고
숲너머 민가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를 때의 어스푸레한 빛.
- 8 달밤에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다 조용한데, 홀로 앉아 숲 그림자가
춤추는 것을 감상하는 것.
- 9 가을에 해 저문 골짜기에 안개가
피어오르고 단풍나무가 겹겹이
늘어서 있는 것.
- 10 온 산에 눈이 쌓여 있을 때 시냇가 울창한
소나무의 푸른빛이 사랑스러운 것.

그런데 그가 말하는 아름다움을 살펴보면
빼어나게 아름다운 것들은 없다. 그저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소소한 풍경들이다. 두드러지거나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불거진 아름다움이
아니어서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것처럼 낮고 좁아서
누추하기까지 한 소박한 자신의 집에 대하여는
〈구루암명〉이라는 글에 자세히 남겼다. 또 그는 집
마당에 학을 한 마리 길렀는데, 관직에서 은퇴하여
포천에 머물던 용주(龍洲) 조경(1586~1669)이
보내 준 것이었다.

한편, 징파나무에서 배를 타고 상류로 거슬러
오른 곳에 있었던 웅연(熊淵) 곁에도 학을 기르던
이가 있었다. 그곳에는 허목의 아들 허함의 장인인
취우(醉愚) 이진무(1608~1677)가 정사(亭舍)를
짓고 살았다. 웅연주인(熊淵主人) 혹은 연상주인
(淵上主人)이라고 불리던 이진무는 웅연 가에서
한가하게 물고기를 낚고 두 마리 학을 기르면서
예법을 중시하고 옛사람들의 곧은 절개를 흠모하는
이였다.

때로 벗이 찾아오면 웅연에 배를 띄우고
산마루에 살던 허목과 강마루에 살던 이진무는
사돈 관계를 넘어 자주 만났다. 대개 허목이
열세 살 연하인 이진무를 찾아 웅연으로 나아가는
풀이었는데 그것은 뱃놀이를 위해서였다. 그들이
주로 노닐었던 곳은 당연히 웅연이었으며,
이진무가 초대하기도 하였고 허목이 찾아가기도
하였다. 1667년 7월에는 이진무가 허목을 웅연으로
초대하였는데 그날은 안개가 자욱했다. 둘은 녹색
빛깔을 머금은 강에 조각배를 띄우고 냇숫대를
드리웠다. 흰 물새들은 배가 가까이 다가가도 놀라
날아가지 않았고, 이에 흥겨움이 더한 그들은
노를 들어 강물을 치고 뱃전을 두드리며 술잔을
놓지 않고 즐겼다. 그러나 7월, 한여름이 아니던가.
갑자기 소나기가 퍼부어 흠뻑 젖었음에도 두 사람은
오히려 연무가 낀 강에서 들려오는 어부들의
노랫소리에 심취했다.

그해 9월, 가을 석류산 기슭으로 손님이 찾아
들었다. 육우당(六友堂) 송석우(1584~?)와 백호
(白湖) 윤휴(1617~1680)였다. 허목은 그들과 함께
웅연을 찾았고, 이진무는 으레 그들을 배에 태워
웅연 가에 있는 석문(石文)을 구경시켰다. 석문은
푸른 돌에 검은 빛깔의 문양이 마치 초서와 예서
형태로 나타나 있는 기이한 모습이었다고 전한다.
이어 지금의 민통선 안 마을인 횡산리로 가는 길에
볼 수 있는 장군탄을 지나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장군탄은 중면 면사무소를 지나 횡산리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민통선 출입초소를 지난 곳에
있다. 초소를 지나 오른쪽으로 크게 구비를 도는
순간 강이 내다보이는데, 강 가운데 만들다 만
다리 교각이 서 있는 곳이다. 대개 임진강의
다리들은 나루터가 있었던 곳에 놓였으며, 이곳은
삼곶리와 강내리를 오가던 장군나루였고, 다리가
놓인 일대는 장군여울이다.

그곳을 지나 강을 거슬러 오르면 송림과 모래밭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횡산리가 나온다. 허목은 마을 앞의 강이 거칠다고 소개한다. 강 속에 돌이 많고 물살이 세차기 때문에 자칫 배가 돌부리에 걸려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여울을 헤치고 이윽고 다다른 곳은 지금 남방한계선의 다리로 설치된 필승교 앞이었다. 그곳 강 건너 서쪽으로는 장경대 석벽이 보이고, 동남쪽 절벽 위에는 도영암이라는 암자가 있었으며, 암자 아래 강은 망저탄이라 불렸다. 그들은 장경대 위에 올라가 날이 어둑해질 때까지 놀았고, 아득한 강물과 흰 백사장에 끼는 저녁 연기가 일품이었노라 말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장경대에도 포구가 있었다고 전한다. 서해에서 소금과 새우젓을 실은 바다 배는 임진강에서 가장 큰 포구였던 고랑포까지만 올라 올 수 있었다고 한다. 그곳에서부터 강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폭이 좁고 빠른 강배에 물산들을 옮겨 실었다. 즉 강원도 이천이나 안협 등지로 향하던 소금 배와 새우젓 배들이 장경대 앞 포구에 머물렀던 것이다. 하지만 그곳은 현재 비무장지대에 속해 있어서 누구도 가지 못하는 곳이 되어 버렸다.



종류가 남긴 인문의 흔적
그해 9월, 이번에는 웅연이 아니라 미강(眉江)에 배를 띄웠다. 미강은 여태 노닐던 웅연과는 반대 방향이다. 일단 석록산에서 배를 타려면 징파나루까지 걸어 나와야 한다. 징파나루는 현재 부엉바위 위에 올라앉은 허브빌리지 쪽으로 향할 때 지나는 다리, 북삼교가 걸린 곳이다. 나루터 일대는 징파강이라 불렸다. 그곳으로부터 괴미포가 있었던 웅연으로 가려면 강을 거슬러야 하고, 미강으로 향하는 뱃길은 물길을 따라 하류로 흘러내려가는 길이다. 허목이 본 미강의 풍광은 아름답기 그지없어, 강을 낀 절벽 아래와 위는 모두 짙은 소나무와 단풍나무 그리고 갈대로 뒤덮였다고 했다. 그날, 허목은 아미사에서 묵었다. 그 절은 징파나루에서 하류로 20리 쯤 떨어진 강가에 우뚝 솟은 절벽 위, 고려 왕의 사당인 숭의전 뒤에 있었다. 허목은 아미사에 대하여 말하기를 “강가에 있는 아름다운 절로서 높은 언덕은 모두 기이한 모양의 바위와 층층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이처럼 허목에게 임진강은 깊은 산골인 석록으로 찾아오는 뱃길과 함께 노니는 공간으로 활용됐다. 그들이 노닐었기에 인문의 흔적들이 남았으며, 비록 상상 속일지라도 그것은 또 하나의 풍경이 되었다. 그들이 즐겨 찾던 웅연은 군남댐 공사로 인하여 더 이상 볼 수 없는 곳이 되었는데, 그렇기에 허목의 꼼꼼한 기록이 더욱 돋보인다. 〈무술주행기〉뿐 아니라 허목이 임진강에서 노닐고 남긴 모든 글에 나타나는 강 주변의 지명들이나 경관에 관한 기록은 아주 소중한 것이다. 웅연은 물론 장경대나 우화정 같은 비무장지대 안쪽이며 북쪽 지역 임진강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의 글이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기에 더욱 그렇다. 그 덕분에 허목의 글 한편, 한 편은 다만 배를 띄워 노닐 사대부들의 흔한 유람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임진강에 대한 인문 지리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섬세하고 방대하다.



(왼쪽 페이지) 미강 잠두봉. (위) 연천군 징파강 장군탄. 연천군 중면 삼곶리 민통선 초소를 지나 횡산리로 들어가는 길 왼편이다. (아래) 연천군 징파강 횡산리 여울.

어느 해였을까. 허목은 8월 14일에 이진무와 함께 다시 웅연에 배를 띄웠다. 상상해보라. 다음날이 추석이었으니 달이 오죽이나 밝았겠는가. 배를 띄운 까닭 또한 달을 감상하기 위해서였다. 허목이 <웅연범주기>에 남긴 당시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정경은 이렇다.

달은 강의 한가운데에 떠 있고
모래는 밝게 빛나며 물은 아득한데,
밤이 내린 강촌에는 사람 말소리가
점점 드물어지고 포구에는
고깃배들의 횃불이 명멸하였다.
이에 흘러가는 배 위에서 즐거워하며
물고기 잡고 나무하는
한가로운 생활을 이야기하였다.

이렇듯 산마을과 강마을을 오가며 노년을 보내던 허목이 84세가 되던 1678년 4월, 애써 가졌던 석록의 멋집이 그만 불에 타고 말았다. 멋집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때마침 숙종의 말을 전하러 이곳을 찾았던 승지 정유악이 그 모습을 보고 왕에게 알렸다. 그러자 숙종은 허목에게 새로 집을 지어주라고 명했고, 10월이 되어 새 집이 완성되었다. 허목은 그 집의 당호를 ‘임금이 은혜롭게 하사한 집에서 살아간다’는 뜻으로 ‘은거당(恩居堂)’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미 노쇠하였던 그는 은거당에서 3년 반을 지냈을 뿐 1682년 4월, 88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허목은 숨을 거둔 해 정월에 병을 얻었는데 앓아누운 지 열흘이 지나자 굳이 스스로 필력을 시험한다며 ‘만목춘오(萬木春塢)’ 낙자의 글을 썼다. 또 입춘 날 저녁에는 자신이 살던 집인 은거당 일대를 ‘만목춘도(萬木春島)’라 칭하며 글을 지었는데, 은거당을 둘러싼 풍경이 그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다.

산중에 높은 바위나 큰 돌이 없다.
땅은 비옥하고 초목이 무성하여
오곡을 심기에 알맞다. 새와 짐승들이
많아서 사는 집은 으스스하며 사람들은
드물다. 봄날이 되어 날이 맑고
길면 숲속에서 새소리와 개울물
소리를 듣는다. 노인은 일이 없으니
내가 사는 집을 만목춘도라 하였다.
즐거움을 기록한 것이다.

만목춘오의 오(塢)가 오(陂)로 표기되기도 하였지만, 만목춘오의 오(塢)와 만목춘도의 도(島)는 모두 독이나 돈대와 같은 작은 성 그리고 마을과 촌락 혹은 섬을 뜻하는 한정된 지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허목은 은거당 일대를 온갖 나무가 봄을 맞이하는 곳으로 인식하며 스스로 자신만의 영역 구획을 한 것으로 보인다.

허목 사후에 후학들인 성호(星湖) 이익(1681~1763)·청천(靑泉) 신유한(1681~1752)·석북(石北) 신광수(1712~1775)·수당(修堂) 이남규(1855~1907)와 같은 이들이 은거당을 찾고 글을 남겼으며, 소치(小癡) 허련(1809~1893)은 그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 그러나 허목 생전의 은거당 모습은 <만목춘도>에 나타난 그것 외에 잘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후학들이 고쳐 짓고 매만진 은거당마저도 한국전쟁 당시 불에 타버려 지금은 그 터만 남았을 뿐이다. ㉡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에 있는 미수 허목의 묘(경기도기념물 제184호).



신유한의 기록으로 보는

연천

허목이 죽고 70여 년 후,
신유한이라는 이가
연천현감으로 부임했다.
당대 최고의 문사였지만
출신에 묶여 한직을
떠돌던 그는 억지로 부임한
연천에서 그러나 일생 중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다. 너무
한가했던 덕분일까. 돛자리
깔고 강바람 쐬던 일마저
기록해둔 그는 연천의 산과
강, 그리고 평생 사숙한 이의
흔적에 탐닉했다.

靑泉 申維翰



«1872년 지방지도» 중 「연천현지도(漣川縣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당시 연천현은 지금의 연천군 연천읍과 증면, 그리고 황지리 쪽을 제외한
군남면에 해당한다. 읍지는 군자산(君子山) 북쪽 읍내리에 있었다.

내가 처음 관아에 도착했더니 말고삐를
잡은 사람이 행뎡그런한 바위 사이에
울타리가 쳐진 곳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곳이 고을의 아문과 창고와
전물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덩불을
헤치고 들어가 작은 집에 앉았다. 아전과
노복과 밥하고 물 걷는 이들 십여 명이
알현하였다. 옷은 정강이도 가리지
못하고, 다들 메추라기나 병아리처럼
집 짓고 먹고 살았다. 깜짝 놀라서
호적대장을 살펴보니 전체 가구가 일천
호(戶)인데 일 없이 노는 양반이 절반에다
부역을 지는 양인과 천민이 2천여 명
남짓이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년 전쯤인 1739년, 막 부임한
신임 현감의 눈에 비친 연천 풍경이다. 그래도
서울에서 가까운 고을인데 하고 사는 꼴이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끔 하고 한숨을 내뿜는
신임 현감은 바로 유명한 문인 청천(靑泉)
신유한(申維翰, 1681~1752)이다.

청천은 6년 전 평해군수(平海郡守)를 끝으로
지방관을 그만두고 고향 밀양에 내려가 있었다.
몇 차례 조정에서 불렀으나 그는 일절 나가지
않았다. 나이 59세 되던 해, 이번에는 연천현감으로
불렀다. 그래도 부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재차 부임을 강권했고 그는 마지못해
연천으로 길을 나섰다. 2월 20일의 일이었다.

청천은 33세 때 문과에 장원급제한 드문
인재였다. 고풍스러운 문장을 구사하는 문인으로
유명하였다. 하지만 당시는 배척을 당하던 경상도
출신에 서얼이라 낮은 직책을 떠도는 신세였다.
39세에 통신사 제술관(製述官)으로 뽑혀 일본에
다녀온 뒤 여행기 「해유록(海遊錄)」을 써 일약
문명을 날렸다. 서울에서 30여 년을 보내며
최성대(崔成大)를 비롯한 명사들로부터 크게
인정도 받았다. 하지만 명성이 있어도 서얼이란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단념한 그는 다시는
벼슬자리에 나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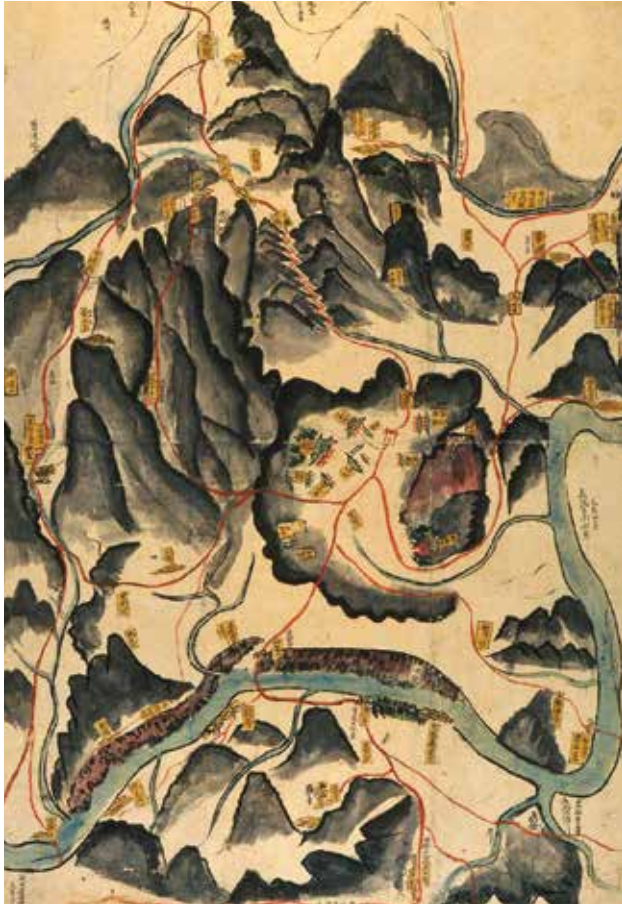
그런 채로 연천에 당도해 마주한 실정은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청천은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려웠는지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이런
시를 지었다.

이 술은 일부러 취하기 위한 것
 얼굴에 수심이 못 오르도록 하기 위한 것.
 관아가 형편없어 화류(花柳)나 상대하고
 고을이 작으니 강산(江山)이나 보고 있네.
 부끄럽게도 임금님 은혜가 무거워
 들뜬 명예가 팽개쳐도 다시 찾아오네.
 칠원리 장자(莊子)는 오만한 관리가 아니니
 마음이 고요하면 일이 곧 없으리라.

此酒能謀醉
 窮愁莫上顏
 官寒對花柳
 邑小見江山
 所愧恩彌重
 浮榮擲復還
 漆園非午吏
 心靜事方閑

부임을 기뻐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 짐작은
 했으나 상태가 너무 나빴다. 고을을 다스릴 걱정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마음은 구슬퍼졌다. 작고
 형편없는 고을이라 원님은 화류나 상대하고
 그나마 강산을 구경할 시간은 많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보개산과 감악산을 오르며 남긴 기문
 연천은 서울에서 가깝고, 한반도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청천이 한심스럽게
 여겼듯이 사는 형편이나 고을의 위세가 열악한
 곳이었다. 당시 경기 북부 지역은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손꼽혔고 연천은 다른 지역보다 더
 낙후한 곳이었다. 이중환도 <택리지>에서 “임진강
 동편에 연천과 마전(麻田)이 있고, 북쪽에는 삭녕
 (朔寧)이 있다. 한양에서 북쪽으로 100여 리 되는
 곳이며 물길로 서울과 개성으로 통한다. 그러나
 세 고을은 모두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거처할 만한 곳이 적다. 그중에서 삭녕은 농지가
 꽤 좋고, 강을 임한 곳에 승경(勝景)이 많다.
 연천에는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살던 곳이
 있다.”라는 총평으로 실상을 잘 보여준다.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는 객관적 평가다.



《1872년 지방지도》 중 <삭녕군지도(朔寧郡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이 당시 삭녕군은 분단 전의 연천군 삭령면, 중면, 왕징면 일부와 강원도
 철원군 마장면, 내문면, 인목면에 해당한다. 읍치는 일제시대까지 삭녕면
 소재지였는데 지금은 비무장지대 내에 있어 거리는 사라졌다.

보개산 원정원사 석대암 돌탑.



가난은 넓은 들이 없는 탓이지만, 대신 연천에는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다. 먼저 산으로는 고대산(高臺山)과 보개산(寶蓋山), 백학산(白鶴山), 감악산(紺岳山)이 있다. 각각 철원, 장단, 파주와 경계를 이루는 산들이다. 연천을 감싸고 있는 산들은 크게 높지는 않아도 자연과 문화가 잘 어우러진 명산으로 꼽혀왔다. 강산이나 바라고 온 청천이 그리로 발걸음을 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그중에서도 청천이 아낀 산은 보개산과 감악산이다.

금강산이나 함경도로 가는 길목에 있는 보개산은 예로부터 시인묵객들이 자주 찾은 명산이다. 내게는 청천과 작풍이 비슷한 어우(於于) 유몽인(柳夢寅)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다. 보개산은 당시 행정구역상 철원에 속해 있었으나 연천의 진산 노릇을 했다. 청천은 해마다 농사를 감독하고 등산하기 위해서 두세 차례씩 산을 찾았다. 가뭄이 들었을 때는 보개산 산신령에게 비를 내려달라는 기우제를 지냈다. 그의 문집에 기우제를 지낼 때 낭독한 기원문이 실려 있다. 기우제를 지낸 장소는 보개산 남쪽 아미천 계곡이다. 기암괴석이 솟아 있어 풍경이 아름다운 이 계곡에는 기우단(祈雨壇)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찬우꾸미라고도 불리는 찬취암(攢翠巖) 또는 삼봉암(三峯巖)이 있었다. 그가 존경하던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도 몇 차례나 여기 와서 쉬면서 집을 지어 살고자 했으나 터가 좁아 이루지 못했다. 이곳 풍경을 아름답게 본 청천은 〈찬취암기(攢翠巖記)〉를 써서 경치와 사연을 기록했다. 현재 찬취암 일대는 유원지로 개발되어 관광객이 모여든다. 원래 보개산에는 유서 깊은 사찰 심원사(深源寺)가 있었다. 청천은 심원사 신도들이 결성한 염불계(念佛契)에 서문을 써주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사찰은 이 지역의 다른 많은 문화재처럼 한국전쟁을 거치며 거의 소실되었고 되었고 현재는 10여 년 전 복원된 원심원사(元深源寺)가 있다.

보개산 외에 청천이 몇 차례 올랐던 산이 감악산이다. 이 산은 그리 높지는 않으나 신비롭고 웅장하고 기이하여 나라 제사를 올리는 산이다. 주변 고을의 지방관이 제관이 되어야 하기에 청천도 산을 세 차례 올랐다. 청천은 1742년 2월 10일 정상에 있는 제단에 올라 제사를 치르는 과정을 〈감악산기(紺岳山記)〉로 썼다. 이 기문에서 특별히 눈에 띄이는 것은 제단 곁에 설인귀사당이 있었고, 당시에도 설인귀를 제사하는 신사(神祠)가 있다고 쓴 대목이다.

설인귀는 당나라 영웅으로 고구려를 멸망시킨 장군이다. 중국의 명장이 본래는 한반도 사람이고, 그 아버지 묘가 감악산에 있어서 성묘하러 왔었다는 전설이 산 주변에 퍼져 있다. 현재도 정상에는 글자 없는 비석, 이른바 몰자비(沒字碑)가 서 있는데 청천은 기문에서 그것이 설인귀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세운 비가 아닐지도 모른다며 추정해보고 있다. 감악산은 무속 신앙에서 숭앙하는 산이고, 그 일대에는 지금도 설인귀를 산신으로 숭앙하는 전설과 신앙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청천은 불교와 노장사상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관심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놀이의 과정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기다
연천은 임진강 동편에 위치해 있고, 뱃길로 서울과 개성으로 연결되었다. 임진강 상류의 협곡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징파강(澄波江)과 한탄강, 그리고 곰소 또는 괴미소라 불리던 웅연(熊淵)이 그 물줄기를 대표한다. 연천의 징파나루와 둔전포(菴田浦)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물산이 모이는 집산지로 뱃길을 따라 개성과 서울로 이어졌다. 청천도 배를 타고 임진강을 따라 강화도 앞바다 조강(祖江)과 통진(通津)까지 살펴보고 간 일이 있다. 그가 지은 장편시 〈조강행(祖江行)〉은 배를 타고 내린 조강 일대의 교통과 풍속을 묘사한 시다.

지금도 대부분 민통선 안쪽에 있어서 훼손이 덜 된 연천의 자연풍광을 청천은 배를 타고 즐기고 난 뒤 시와 산문으로 그 즐거움을 표현했다. 부임한 첫해 6월 9일 웅연에서 노닐고 나서 〈유웅연기(遊熊淵記)〉를 썼다.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려고 웅연 강가로 나가 허목이 놓던 자취가 서린 문석(文石)도 구경하고 돛자리를 깔고 바람을 쐐었다. 그를 만나러 찾아온 지역 유지의 집에 가서 허목의 친필인 〈웅연범주도(熊淵泛舟圖)〉와 〈석문기(石文記)〉 등도 구경했다.



〈태령십청원도(台嶺十淸園圖)〉
소치(小癡) 허련(許鍊, 1809~1892년), 19세기, 종이에 채색,
23.6×29.1센티미터, 남농기념관 소장.
소치 허련이 그 조상인 미수 허목이 살았던 은거당으로 찾아가 그린 실경산수화다.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에 위치한 은거당 옛터.

한 달이 지난 7월 15일에는 보름달 환한 달빛을 받으며 정파강에 배를 띄우고 강가의 자연 풍광과 유적을 둘러보았다. 그 과정은 〈정파강범월기(澄波江泛月記)〉로 자세하게 기록했다. 비가 내린 뒤라 물이 불어 망망한 강물을 따라 노를 거두고 물에 맡긴 채 내려갔다. 마전(麻田)에 있는 휴류탄(鵝鷺灘)과 유탄(榆灘)을 지나 허목을 모신 미강서원(眉江書院)과 아미산(峨眉山)을 지났다. 물길을 돌아 바위가 솟은 곳에서는 고려 태조와 후대 임금을 제사하는 숭의전(崇義殿)을 지났다. 청천은 마중 나온 진감(殿監)이 들려주는 전설을 들었다. 이곳은 본래 고려 태조의 원찰인 앙암사(仰巖寺)터였다. 그런데 조선이 역성혁명을 일으킨 뒤 고려 왕들의 묘를 개성에 지으려고 강을 따라 목재를 운반하던 중 배는 표류하고 폭우와 함께 천둥 번개가 쳐 앙암사를 부수며 묘의 터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세웠다고 했다. 또 앙암사가 부서질 때 절에 있던 범종이 강물에 빠졌는데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운다고 전했다. 청천은 고려 태조의 신령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막지 못하고 겨우 아름다운 강산만 담했다고 웃었다. 배 위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강을 거슬러 올라오며 청천은 소동파가 적벽에서 노닌 것보다 더 낫다며 자부하였다.

뱃놀이는 한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로부터 3년 뒤 1742년 10월 보름에 경기감사 홍경보(洪景輔), 양천현감 정선(鄭愼)과 함께 다시 뱃놀이를 하였다. 저 유명한 〈후적벽부(後赤壁賦)〉를 쓴지 660주년이 되는 임술년 그 날을 기념하여 홍경보가 주선한 자리였다. 감사로서 당대 최고의 화가요 문인인 정선과 신유한을 관내 수령으로 거느리고 즐기는 뱃놀이는 참으로 품격 높은 놀이였으리라. 그날의 놀이를 기념하며 청천이 〈의적벽부(擬赤壁賦)〉를 짓고, 정선은 그림을 그렸다. 이들이 함께 만든 화첩 《연강임술첩》은 지금까지 남아 있으니, 한때의 놀이가 역사가 된 것이다.

평생 사숙하던 이의 자취를 좇다

연천은 한양과도 가깝고 개성과도 가깝다. 그래서 고려 때부터 명사들이 거주하거나 탐방하는 곳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사대부들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려고 하지 않았다. 연천은 한양 사대부가 살고자 했던 북쪽 경계선이다.

임진강 상류 이천(伊川) 지역의 고미탄(古味呑), 광복동(廣腹洞)이란 곳은 사대부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주거지였다. 그래서 연천 임진강 일대에는 서울 사대부의 누정(樓亭)과 전장이 많이 분포해 있었다. 그 대표 인물이 바로 연천의 상징적 인물,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이다.

신유한은 허목을 존경하였다. 고문사(古文辭) 창작풍을 지닌 청천에게 허목은 본받고 싶은 대표 모델이었다. 허목은 영남 남인에게는 학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도자였다. 앞에서 말한 〈의적벽부〉는 고풍스런 분위기를 풍기는 허목이나 신유한의 경향을 잘 보여준다. 청천은 연천 곳곳에서 허목의 자취를 확인하였다. 우선 숙종이 허목에게 하사한 왕징면의 은거당(恩居堂)을 찾았는데, 당시는 허목 사후 60년이 되는 때로 증손과 현손들이 퇴락한 고택을 수리한 뒤였다. 청천이 찾아오자 후손인 허엄(許淹)은 집안을 모두 불러 모아 예를 갖추었고, 청천은 허목의 노년과 47세 때 초상화를 배견(拜見)하였다. 청천은 학(鶴)과 같은 느낌이었다고 썼다. 그 다음에는 비문과 신라금(新羅琴), 숙신씨 돌도끼와 허목의 글씨, 그리고 직접 새긴 인장 53개를 두루 열람하고 감동하였다. 청천은 은거당 고택의 원림(園林), 기이하고 예스런 상록수 10종이 있어 십청원(十靑園)이라 이름한 곳도 두루 돌아보았다.

그는 허목이 생전에 원림을 묘사한 글 〈십청원소기(十靑園所記)〉 또한 이미 읽고 기억하고 있었다. 집 뒤에는 만물이 선명하게 비쳐 보이는 일월석(日月石)이 있었고, 뽕죽뽕죽하게 동굴처럼 솟아있는 용문석호(龍門石戶)도 신기하기만 하였다. 바위에는 허목이 직접 붙이고 쓴 이름과 글씨가 선명하였다. 은거당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완전히 파괴되어 지금은 볼 수 없다. 19세기에 허련(許鍊)이 그린 그림으로 짐작해볼 뿐이다. 은거당을 다녀간 후 청천은 〈관허상국은거당원기(觀許相國恩居堂園記)〉를 지어 호고벽(好古癖)을 지닌 촌사람이 평생 사숙하던 선생의 자취가 서린 고택과 유물을 열람한 드문 행운에 감사를 표했다. 그 복된 기회를 얻은 것은 불승인과(佛乘因果)보다 더한 인연이라며 기뻐 했다. 연천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가졌던 참담함이나 서글픔과는 다른 감정의 빗깇이다. 청천의 인생에서 연천에 머물 때가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시기였고, 연천을 들른 많은 시인묵객 가운데 청천이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객객이라는 사실이 뭔가를 말해주리라. ㄸ

Footnote 2

연강임술첩

글 이정화

미술사학자

세 사내의 보름밤 임진강 뱃놀이 기록, «연강임술첩(漣江壬戌帖)»

조선 문인들의 풍류는 격이 높았다. 경기도관찰사 홍경보, 그는 평소 흠모하던 북송 문인 소식을 좇아 그가 〈후적벽부〉를 지은 것과 같은 해 같은 날인 임술년 10월 보름에 연강(임진강)에 배를 띄웠다. 그날 뱃놀이엔 연천현감 신유한과 양천현령 정선이 함께했고 사내들은 늦가을 보름밤 뱃놀이의 감흥을 《연강임술첩》으로 남겨 기념했다.

북송의 대문호 소식(蘇軾)이 머나먼 타향 황강으로 유배를 갔을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 벗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적벽에서 뱃놀이로 소회를 풀었다. 그의 벗은 먼 옛날 이곳에서 벌여졌던 적벽대전을 떠올리며 인간사의 덧없음에 슬퍼했다. 그런 친구에게 소식은 이런 말을 건넨다. “물은 밤낮 없이 흐르지만 한 번도 저 강이 가버린 적이 없고, 달이 저처럼 찾다가 기울지만 끝내 조금도 없어지거나 자란 적이 없다오. 변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천지는 한 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변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만물과 내가 모두 무궁하다오. 그렇거늘 또 무엇을 부러워하리오.” 그러니 인간의 유한함 대신 다함이 없는 저 강에 부는 맑은 바람과 산에 뜨는 밝은 달을 내 것으로 품어 즐기겠다. 이것이 대자연 속에서 경계를 넘어선 정신의 자유로움을 노래한 소식의 전후 양 적벽부이다.

소식의 문학과 정신 세계를 흠모한 조선 문인들에게 동파가 배를 띄운 날 배를 띄우고 그의 선유를 재연하는 것은 ‘소식 배우기(學蘇)’이자 최상의 풍류였다. 1742년 10월 홍경보(洪景輔)도 임진강에서 적벽선유를 내세우며 뱃놀이를 시작했다. 이때 홍경보는 경기관찰사로서 도내를 순수(巡狩) 중이었다. 수령들의 행정을 살피고 민생을 관찰하는 순수는 관찰사의 공적인 임무지만 도중에 좋은 경치라도 만나면 잠시간 풍류가 곁들어진 유람으로 변해도 무방했다. 이날은 마침 소식이 〈후적벽부〉를 지은 해와 동갑(同甲)인 임술년에 동일(同日)인 10월 보름이었다. 평소 적벽부를 암송하며 소식을 흠모해마지 않던 홍경보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날이었다. 연천현감 신유한(申維翰)과 양천현령 정선(鄭愼)이 뱃놀이에 함께했다. 그는 초대된 객들에게 글과 그림으로 그날의 행사를 기념해 주길 부탁하고, 자신이 지은 서문을 곁들여 《연강임술첩(漣江壬戌帖)》이라는 화첩 세 벌을 만들고 참석자와 나누었다.

신유한이 기록한 기문(記文)을 통해 그들의 선유를 따라가 보자. 경기도의 최북단인 삭령의 순시를 마치고 연천으로 향한 홍경보는 두 손님을 맞이하여 우화정에서 배에 올랐다. 삭녕의 관문인 우화정은 이름조차 〈전적벽부〉에서 나온 것으로 적벽선유를 시작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이들을 실은 배는 횡강과 문석을 지나 웅연에 닿았다. 흥에 취한 그들은 동파와 자신의 우열을 논하며 풍류는 동파보다 홍경보가, 풍광은 적벽보다 임진강이 낫다며 호기를 부리기도 했다. 사실 그들에게는 동파보다 비근한 본보기가 있었으니 70년 전 연천에 머물렀던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선유이다. 이들이 내심 미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은 홍경보와 신유한 모두 미수를 영수로 받드는 남인 문사였기 때문이다.

이날 모인 참석자 중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낯익은 이름이 있다. 《연강임술첩》에 수록된 그림을 그린 겸재(謙齋) 정선이다. 그는 금강산, 한강, 인왕산 일대 등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광 곳곳을 누비며 진경산수를 그렸던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화가였다. 홍경보가 멀리 양천의 현감으로 있는 대화가를 초빙한 까닭은 이날의 뱃놀이를 멋진 그림으로 남기고픈 바람에서였다. 정선은 학문과 활동의 배경으로 김창흡(金昌翕)과 같은 안동김씨를 중심으로 살아온 서인이었다. 그들과 정치적으로 각을 세웠던 남인 문사들과의 뱃놀이는 어딘지 어색한 감도 없지 않지만 화가로서 정선은 당색을 넘나드는 면모가 있었다. 예로 그의 대표작인 〈서원소정도(西園小亭圖)〉는 소론 문사인 이춘제(李春濟)에게 그려준 그림이다. 또한 도내의 수령으로 재임 중인 정선으로서는 관찰사의 호출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이다.



〈우화등선(羽化登船)〉, 《연강임술첩(漣江壬戌帖)》 정선 그림, 조선 1742년, 개인소장.



〈웅연계람(熊淵繫纜)〉, 《연강임술첩(漣江壬戌帖)》 정선 그림, 조선 1742년, 개인소장.

정선은 선유의 하이라이트를 〈우화등선(羽化登船)〉, 〈웅연계람(熊淵繫纜)〉 두 쪽으로 나누어 담았다. 〈우화등선〉은 우화정에서 관찰사 일행이 모여 배에 오르는 장면이다. 우화정 앞에 뜬 큰 배의 선내를 보자. 병풍 앞에 앉은 인물은 흥경보일 것이며, 그 곁에 나란히 앉은 인물들은 신유환과 정선이라. 정자 뒤로 산은 울렁울렁 물결치고 돌들은 드세게 솟아올랐다. 나무는 모두 한 방향으로 기울었다. 격렬한 바람이라도 불었던 것일까? 정선은 실경을 그릴 때 재능이 가장 빛나는 화가였다. 노대가가 임진강의 풍광을 어떤 정서와 조형미로 풀었는지 이해하려면 실제 정치와 대조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화정은 군사분계선 북쪽인 연천군 대사리에 위치한다. 한국인의 발길이 미칠 수 없는 곳에 있다. 정선보다 한 세대 후에 활약했던 정수영(鄭遂榮)이 그린 우화정 그림이 있어 비교해 볼 뿐이다. 정수영과 정선의 우화정은 사뭇 다르다. 정선의 그림에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높은 석축이나 우뚝한 암벽이, 정수영의 그림에는 평온한 언덕으로 표현되었다. 같은 풍경도 그리는 사람의 손을 거쳐 이렇게 달라진다. 철원에서 내려오는 임진강의 물줄기는 삭녕을 거쳐 연천에 이르면 이름이 웅연이 되고 정파가 되었다 다시 유림이 되어 한강을 향해 흘러간다. 두 번째 그림인 〈웅연계람〉은 목적지인 웅연에 이르러 배를 맨 장면이다. 하늘엔 이미 보름달이 떠올랐다. 동산에 뜬 달과 고요한 강물에 비친 달. 적벽선유의 절정은 역시 달빛 아래의 뱃놀이다. 선유를 시작할 때는 강산이 바람 속에 일렁거렸지만 그 마지막은 달빛 아래 온화하다. 강의 양안에 관찰사를 마중 나온 아전과 햇불을 든 촌민들은 부지런히 오간다. 신유환은 이 장면을 보고 도시 못지않은 장관이라며 기뻐했다. 전반적으로 열은 담묵으로 그린 두 번째 장면에서 화면 중앙의 암벽만은 유독 필묵이 강하게 구사됐다. 암벽 상단의 타원형 안의 야릇한 무늬에 눈길이 쏠린다. 이 부분의 표현만은 자연스러운 바위결과 다르다. 얼핏 바위에 새긴 글씨, 명문(銘文)의 흔적처럼 보이지만 읽히지 않는다. 웅연 부근에 명문이 적힌 절벽이 있었던가. 옛 지도의 연천현도를 꼼꼼히 살펴보니 웅연도(熊淵渡), 즉 웅연 나루터 건너에 문석(文石)이라는 지명이 나온다. 미수의 문집에 수록된 〈무술주행기(戊戌舟行記)〉라는 글에는 문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다.

문석이란 웅연의 북쪽 벼랑 위에 초서 같은 문자가 있는 곳인데, 기이하여 분별할 수가 없었다. 전에 어떤 고을 원님이 부수려 했으나, 글자가 깊이 새겨져서 고칠 수 없었다고 한다.

정선의 그림 속 바위에 새겨진 무늬는 미수가 언급한 문석의 마모된 명문을 그려 넣은 것은 아닐까? 흥경보 일행도 선유 중 문석을 언급하였으니 이들이 배를 매고 놀았던 곳도 이곳일지 모르겠다는 추측을 해본다. 신유환이 중국의 적벽보다 낫다고 했던 임진강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연강임술첩》 속 풍류의 현장을 보고자 연천으로 향했다. 그림 속의 임진강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는 곳은 태풍전망대이다. 임술년 선유의 무대는 한국전쟁 동안 가장 치열했던 격전의 현장이었다. 대규모 폭격이 지형도 바꿔 놓았다고 하니 강물도 적벽대전의 그날 밤처럼 불타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DMZ는 녹색 용단인 듯 적막했다. 들판 사이를 굽이굽이 돌아가는 물길의 끝에 행여나 우화정이 보이지 않을까, 눈을 부릅뜨고 보아도 시야는 그곳까지 미치지 않았다. 볼 수 없는 것은 우화정만이 아니었다. 웅연 또한 민간인이 다가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이 강에도 고단한 인간사를 뒤로 한 채 다함이 없는 강물은 흐르고 있었다.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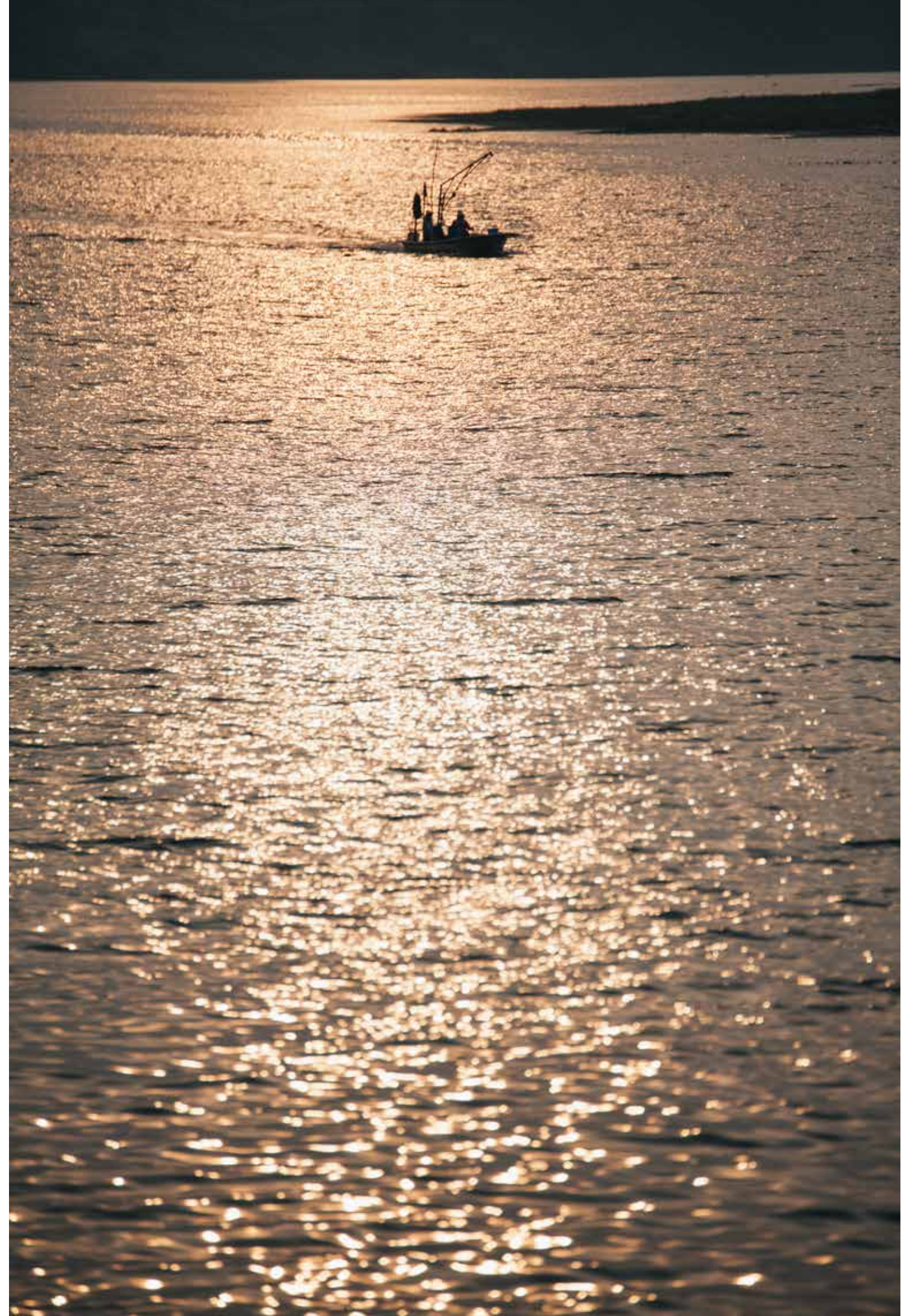
臨
津
江

漢
灘
江

지금,

두 개의
강에
기대어
사는

연천
사람들



‘강은 생명의 젖줄’이라는 도식은 진부할 정도지만, 강을 풍요와 함께 떠올리는 연천 사람은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누군가는 얼어붙은 강 위를 지나는 장갑차를 기억했고, 다른 누군가는 군인이 강에서 노는 소년들을 쫓기 위해 석벽에 쏜던 총소리를 기억했다. 수면 아래 까맣던 잉어를 맨손으로 잡아내던 어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가 싶다가도, 차마 팔 수 없어 제 밥상에 올리고 말던 잔뼈 투성이 잡어처럼 가시 박힌 이야기로 끝이 나곤 했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감싸고 흐르는 연천 땅엔 왜 이런 처연한 기억뿐일까. 남도의 어미로 상징되는 섬진강의 품을 이 두 개의 강에서 떠올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한국전쟁이 가져온 단절 탓이었다. 전쟁은 단순히 남과 북의 이념을 가른 것이 아니었다. 격전지였던 임진강 유역은 전쟁통에 폐허가 됐고, 휴전을 합의한 이후에도 상당 지역이 비무장지대나 민간인통제구역에 묶여 한동안 출입이 제한됐다. 그 땅들은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다.

마을 재건을 위해 몇몇 토박이와 전국에서 모여든 이주민들이 10여년 만에 정착했지만, 뒤집힌 시공간의 삶은 불안하기만 했다. 황무지를 옥담으로 개간해야 하는 당위만이 살아있는 땅은, 그곳에 쌓아온 것을 털어내는 유령 같았다. 사람을 타고 이어지던 마을 신앙이나 생활 풍속은 자취를 감췄고, 강 문화권의 산물인 뱃놀이나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하는 고사·굿조차도 소멸의 길을 걸었다. 배곯던 시절 부쳐 먹을 땅을 기대하고 모여든 외지인들에게 연천 땅의 유전자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과한 욕심이었을 것이다.

그 땅을 며칠간 오가며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강의 과거와 현재를 직접 몸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곳을 살아내느라 마음 한 구석에 그늘 한 뼨씩은 모두어 두고 있었지만, 자신이 지나오거나 지나는 길을 허투루 떠올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배를 줄로 끌고 강을 거슬렀다는 거야.” “한 달에 몇 번씩 조수 따라 황포돛배가 들어왔어. 여기만 해도 바다의 밀물 썰물 영향을 받거든. 사리때 물이 들어오면 강 수위가 높아져. 그 힘으로 배가 왔다 갔다 했지.”

눈을 감고 70년 전 과거를 떠올린 장남면 원당리 이운영(76) 씨의 말이 느껴졌다. 좀처럼 언어화하지 않은 기억인 듯 그는 몇 번을 머뭇대다 장면을 완성시켰다. 그는 마포와 개성을 오가던 뱃길, 그리고 그 길을 잇는 임진강 고랑포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전까지 임진강 최대 무역항으로 꼽히던 고랑포구는 일대의 농산물을 서울 마포까지 실어 나르는 중간 집하장이었다. “황포돛배가 마포서 가져온 것갈, 소금을 여기에 풀어놓고 콩, 쌀, 숯 같은 걸 다시 싣고 떠났다 이거야. 고랑포구가 임진강에서 제일 큰 포구였어. 그 시절에 화신백화점 분점, 경찰서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절벽 경치가 좋아서 부자들 집도 많이 있었고. 사변 나고 뱃길이 3·8선에 맥혀 끊기기 전까진 계속 번성했지.”

당시 포구 주변에만 현재 장남면 인구의 50배에 이르는 3만 명이 거주했다고 하니, 그 상권의 규모는 상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연천의 포구를 키운 그 배는 물자만 운반하는 게 아니었다. 강에 기대 사는 이들의 가난한 삶을 끌어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 당시 둔전나루와 인접했던 마을인 왕징면 북삼리의 이장 김영수(65) 씨는 아버지로부터 듣고 자란 이야기를 전했다. “작고하신 부친이 이십대 초반일 때 이야기야. 무역선이 여기서 50킬로 떨어진 이북의 삭녕읍이란 데까지 올라갔다는 거야. 서양에서 포도주 담는 통 있지? 딱 그런 통에 세멘을 담아가지고 임진강 최상류로 갔단 말이야. 근데 배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여울도 없고 물도 많았지만, 둔전나루 위로는 여울도 많고 물도 적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를 줄로 끌고 올라갔다는 거야. 여기 배 닿는다 하면 젊은 사람들을 30~40명씩 모아서 부역 시킬 준비를 했대. 울 부친이 그 일을 하셨어. 그걸 밀고 끌고 올라갔다가 강물이 늘 때 내리느라고 한 달씩 보름씩 집 떠나 계신 거야.”

‘배를 끌고 강을 거스르는 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연천 사람들이 돌이키는 강가의 삶이란 그렇게 가늠하기 힘든 어려움 투성이었다. 피난을 떠나며 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고향 땅부터가 그랬다. 이운엽 옹이 말했다. “고향이라고 10년 만에 다시 찾아오니, 밭에 이런 아름다리나무들이 자라 있었어. 그걸 캐가면서 땅을 일켰지. 보리하고 조 농사를 지었어. 그걸로 밥을 해놓고 후물뎌 날아갔다고. 밥이 해져, 끈기가 없으니까. 돌아서면 금세 배고프지. 아이고, 배고픈 설움… 옛날 생각하면 끔찍해.”

김영수 씨는 나룻배를 타고 출입 영농다니던 시절을 돌이켰다. 1969년에 입주가 허락되기 전, 그는 4년 동안 임진강을 건너 농지를 오갔다고 했다. 아침에 농사지으러 출근했다 저녁에 일손 놓고 퇴근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나룻배는 썩 훌륭한 운송수단이 아니었다. “여기 하늘은 쨍쨍한데 북한 쪽에 비가 많이 온다 말이야. 그럼 생각지도 않은 물이 임진강에 확 늘어버리거든. 배를 못 띄우니까 소 끌고 농기구 짊어지고 무릉리 돌아 진상리 돌아 8킬로를 걸어 퇴근하고 그랬지.”

그 강물이 얼면 접경지역 사람들만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북삼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노년들은 강의 겨울을 이렇게 돌이켰다. 신정을 전후해 강이 얼면 군인들이 박격포, 장갑차, 탱크를 준비해온다고. 먼저 얼음 한복판에 포를 쏘는데, 그러면 포알이 일 미터 두께의 얼음 한 복판에 박혔다고 했다. 다음은 장갑차 차례. 그런데 장갑차가 누비고 다녀도 멀쩡했던 얼음은 탱크가 올라타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단다. 하지만 탱크가 올라도 얼음이 내려앉지 않는 날이 있었다. 그런 날은 비상이었다. 유사시 언 강은 적진의 탱크가 사방으로 돌진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었기에, 늘 긴장 속에서 검증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건 인근 지역민의 생존과 무관하지 않았다.



“어부는 고기에 맞춰 사는 거야.”

그러나 물살에 닿은 정강이로 강물을 쳐내며 배를 끌던 청년도, 나룻배를 기다리며 하늘 깊숙한 곳의 움직임과 강 너머를 번갈아 살피던 눈도 이제 없다. 사람들의 일상에서 물러난 오늘의 강을 놓지 못하는 건, 그 강에 기대 생업을 해결하는 어부뿐이다.

임진강과 한탄강에서 고기를 잡는 연천의 어부는 30여 명. 지독한 가뭄을 지나며 만난 그들의 속내는 물가에서 별에 타들어가는 몽돌의 표면과 다른 것 같지 않았다. 어부 김광형(56) 씨는 그물을 걷어 올리며 한숨부터 쉬었다.

“이것 봐요. 눈치 한두마리, 덜 큰 참개 몇 마리 외엔 드는 게 없어. 눈치는 살에 잔가지가 너무 많아서 매운탕도 못 끓여요. 사가는 사람도 없고. 비가 와야 고기들도 활동하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역시 어부인 유재학(59) 씨가 거들었다. “강이 가물어도 가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농사에 쓸 물이 없으니까 임시로 보를 막고 물을 펌핑해서 논에 물을 대고 있어. 강물은 어부만 쓰는 게 아니니까.”

수위가 낮아진 강물 아래로 그물을 다시 내리는 김 어부는 할 말이 많다. 가뭄보다 욕심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저 아래쪽 파주 어부들이 실뱀장어 그물을 치거든요. 문제는 모기장처럼 촘촘한 그물을 몇 겹으로 쳐서 강을 틀어막는다는 거죠. 실뱀장어 가격이 제작년엔 마리당 팔천 원까지 갔어요. 잡으면 돈이 되는 거죠. 근데 말이죠, 내가 가서 봤어요. 한 그물에서 실뱀장어를 많이 빼야 열댓 마리뿐인데, 그 그물에서 짓눌린 치어들이 한 바께쓰씩 나오더라구요. 그걸 다 버리니까 치어들이 상류로 아예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강도 물의 농지와 다를 것이 없어서, 어부마다 어로 행위를 허가받은 구역이 정해져 있다. 임진강 하류를 배정받은 김 어부는 실뱀장어 그물에 유독 민감했다. 자신의 구역 어획량과 직결되는 탓이다. 그는 쉽지 않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임진강 댐을 짓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50~80킬로그램씩 잡히던 다슬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다슬기에 의지하던 시절을 잊고 일어설 만하니 이제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됐다고.



그러나 그물이 비어갈수록 강바닥 구석구석을 쫓는 어부의 눈은 깊어지는 것 같았다. 김 어부는 목련꽃이 필 때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성질 급한 고기 두우쟁이를 말했고, 한탄강 중류의 유기환(60) 씨는 철원 직탕폭포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오르느라 닳아 반들대는 참개의 다리를 말했다.

“참개들이 상류에서 먹이 잘 먹고 크다가 9월이면 산란하러 내려오거든. 지들도 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 물 흐름에 따라서 어떤 길로 가야 편히 가겠냐 하는 걸 아는 거야. 옛날엔 고 길목에 수수를 삶아서 매달아놔서. 그럼 개들이 길을 넘다가 고걸 뜯어 먹느라고 사람이 와도 도망을 안 가. 그럼 우리가 햇불 들고 가서 따오고 따오고…. 참개는 야행성이라 주로 밤에 이동하거든.”

그 알뻔 참개들이 줄 지어 내려오는 가을은 어부들이 가장 반기는 계절이다. 큰 비에 잡스러운 것들이 쓸려 내려가는 이 계절엔 반짝이는 바닥의 모래알까지 눈에 든다. 그런 만큼 그물에 고기도 가장 많이 든다. 유기환 씨는 그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 했다. “여름엔 날이 더우니까 고기가 잘 안 움직여. 사람들이 날 더우면 집에 가만 앉아 있듯이 고기도 돌 밑에 들어가 있지. 그러다 장마철에 물이 많아지면 지들도 자리 이동한다고 많이 움직여. 고기가 덜 움직이면 덜 잡고, 고기가 많이 움직이면 또 많이 잡고. 어부는 고기에 맞춰 사는 거야.”

유기환 씨가 덧붙였다. 가뭄 때문에 고기가 줄었지만, 불경기 탓에 자신의 매운탕집 손님 수도 덩달아 줄었다고. 어획량과 손님 수가 그렇게 맞춰진 것이니 된 것이라고. 그는 20대에 민물고기 맛을 깨친 뒤로 일주일에 5일은 강가에서 살다시피하다가 직장을 접고 어부가 되고 매운탕집 주인이 되었다고 했다.

김광형 씨의 말도 그와 다른 듯 같은 이야기였다. 강은 계절에 따라 고기를 달리 내어준다지만, 아무리 메탈라도 어부가 노력한 만큼은 쥐어주는 게 강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그물을 걷기 시작하는 폭우 속에서도 일을 한다. 그 빗속의 일이 즐겁다면서 웃기까지 한다. 흙탕물을 타고 밀려오는 실뱀장어를 한 마리라도 더 만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일까, 강에서 비를 이긴 어부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믿음 때문일까.



어떤 식으로든 오늘의 강을 기억하라
“지금은 눈에 물을 담아서 나룻배를 띄워놔어요. 승선 체험이라도 시켜주려고요. 그런데 내년엔 나룻배가 더 많아질 거예요. 세계 각국의 이름난 나룻배를 열 척 도입하기로 했거든요. 눈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저 강으로 내보내려고 해요. 도선 허가내서 강 건너는 체험까지 추진하려고요.”

왕정면 나룻배마을의 운영진은 마을과 강을 섞을 수 있는 방법을 논하고 있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강으로 번성했던 역사를 가진 마을은 오늘의 강도 어떤 식으로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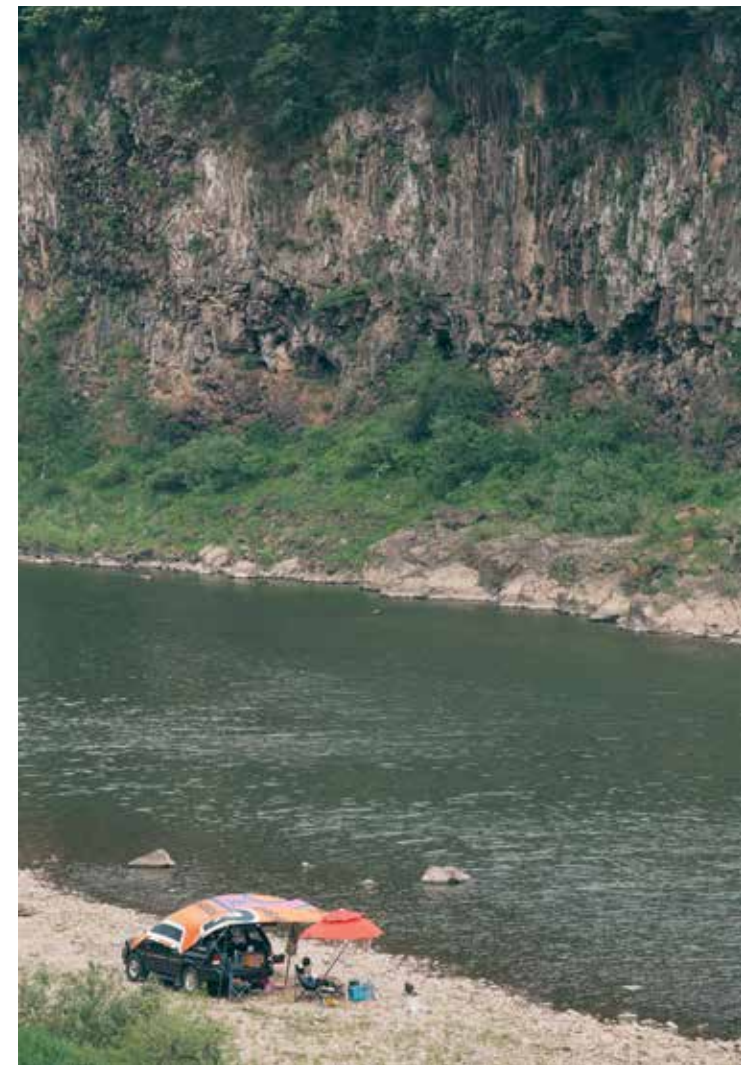
그건 임진강변에서 ‘평화강변수목캠핑장’을 운영하는 주인장의 생각과 통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노년의 주인장은 캠핑장을 찾은 이들에게 임진강의 의미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었다. “북에서 흘러내린 강물이 결국은 남과 만나잖아. 언젠가는 통일이 온다는 뜻이라고. 임진강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곤 대뜸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임진강’이란 가요를 틀어보라고 강권했다. 분단의 한을 담은 구슬픈 곡조가 천지를 울리는 동안, 그는 레저의 대세로 자리매김한 캠핑문화가 이 강가에서 꽃을 피우는 현실을 뿌듯해했다. 강가로 모여든 입김이 ‘대업’의 성취를 앞당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물려받은 목장 부지를 1970년대부터 숲으로 가꾸기 시작한 황해도 출신의 주인장은 강 건너 승의전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승의전은 고려 태조를 비롯한 4왕과 고려조 16공신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여긴 목장이나 할 땅이 아니었어. 삼한을 통일한 고려의 정신이 건너다보는 땅이니, 이 부지는 내 것이 아닌 거야. 그 생각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지. 잡초 하나 안 자라던 땅이 30년 만에 이렇게 변했어.”

그때부터 고려와 통일 이야기가 재차 시작됐다. 승의전 곁에는 56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고려 왕족 후손들의 집성촌’이 자리한다. 그래서 연천은 임진강과 고려를 함께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도시일지 모른다.

그 뒤로도 연천의 강을 이야기하는 이들을 많이 만났다. 임진강 강태공들과는 지렁이 맨 나뭇가지로 뱀장어를 낚던 이 동네의 뭉치질 전통을 함께 상상했고, 급류타기 즐거움에 빠진 한탄강 카약커(kayaker)와는 차탄천 바닥의 진흙을 미끄럼틀처럼 타던 이 동네의 옛놀이를 함께 떠올렸다. 그러나 나누고 오지 못해 더 무거워진 이야기도 있다. 놀이랄 것이 없던 시절 하필 가지고 논 것이 지뢰여서 오른팔 없는 생이 시작된 남자의 이야기에서부터, 겨울이면 마차에 드럼통을 싣고 가서 강물을 길어 올려야 했던 ‘시집살이 괴롭던’ 아낙의 이야기까지.

그 끝에서 생각한다. 강을 가진 도시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캐내지 못해 버려졌고 또 버려지고 있는 보통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아마 우리의 오늘은 통째로 사라지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ㅁ



어부들이 끓여내는

깊고 진한 맛

황복을 지게로 퍼 나를
정도로 잡던 시절이며
팔뚝만한 쏘가리에
공책 크기쯤 됐다는
참게 이야기는 임진강과
한탄강 어부들의 기억
속에만 있지만, 고추장
단지 바리바리 옆에
쌓아두고 그들이 직접 잡아
끓여주는 인심이 후한
쏘가리탕이며 참게탕은
여전히 부러 연천을
찾아가는 이유가 된다.



돌아가신 언론인 홍승면 선생은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다. “여름이 되어 ‘다음 공일에 천렵이나 갈까?’(중략) 천렵이란 말을 들으면 좀 과장해서 나는 전기가 오른 듯한 기분이 돼 버린다...”

천렵 바람 좀 쐬어본 사람이면 이 말 뜻을 알 것이다. 여름이면 천렵이 생각나고, 발바닥을 지질 듯이 뜨거운 모래사장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천변에 간이 화덕을 만들어 술을 ‘걸고’ (이 정겨운 표현이란) 고추장을 슬슬 개다보면 아버지가 자잘한 민물고기들을 잡아서 물가에 부렸더랬다. 민물매운탕은 뭐랄까, 스스로 잡아서 끓이는 추억의 음식으로 기억되곤 한다. 그래서인지 온갖 기호 음식을 다루는 식당들이 널린 서울에서도 민물매운탕을 잘 한다고 하는 식당은 싹뚝 떠올리기 어렵다. 그런 낭만적 정경의 반대편에서 물질을 업으로 하는 이들이 배를 띄우고 있었을 테다. 그들을 신문에선 내수면의 어민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저 강에도 어부가 있군, 이라고 사는 것이다. 연천의 맛을 기록하는 일은 그래서 저 강에서 시작되었다.

한탄강은 그 지역 정서와 묶여 지레 한탄(恨歎)으로 생각하기 쉽고 필자도 오랫동안 그 한자어의 이미지로 분단의 아픔을 안고 흐르는 강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경기 북부 사람들이 원래 불임성이 별로이고 바른 말 하기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더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한탄강은 클 한(漢) 여울 탄(灘)이니 오히려 이 강에서 많이 나는 쏘가리의 물빛에다가 사나운 흐름을 떠올리는 게 더 알맞을 일이다. 사전 취재에 의하면 연천은 콩이 좋다고 한다. 인근에 파주 장단콩의 명성도 있으니 이 일대가 한반도 콩의 원산지라고 하는 설이 결코 무람없는 말은 아닌 듯하다. 연천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부엌 창고를 열어 콩을 내고 순두부를 주었다고 한다. 일제 때는 종포를 마련해 놓고 전국에 콩을 배급했다고 하니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이제 연천 어디에서도 연천콩을 쓴, 연천 음식이라 부를만한 요리를 만나기는 힘들다. 역시 저 드센 여울에서 건진 물고기 요리를 찾아가는 게 맞는 법이다.



매운탕은 고추장이 제일 중요해요
아우라지매운탕집의 박정숙(58)씨는 1983년에
의정부에서 이곳 연천으로 시집을 와 당신 인생의
절반쯤을 탕 끓이고 손님을 맞으며 보냈다.
아우라지란 한탄강과 영평천이 만나는 곳을 이르는
단어다. 강원도 정선에도 아우라지가 있듯이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두 물이 만나는 곳을
뜻한다.

일요일 낮, 마침 날씨도 좋고 야외에 깔아놓은
식당 평상에는 손님들의 바글거린다. 부러
연천까지 와서 탕을 시키는 손님의 정서가 있다.
물가에 평상 놓아 풍류를 즐겨보기 위함이다. 본디
민물고기든 바닷고기든 살이 기름 오르고 맛이
짭짤해지는 건 가을이나 겨울이겠으나, 천렵과
강바람 쐬려는 사람들의 고유한 심리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조선조 재상 맹사성이 ‘탁료계변에
금린어 안주로다’라고 읊었던 ‘강호사시가’ 역시
그런 정서를 반영한다. 금린어는 바로 쏘가리를
말하고, 탁료계변은 천변에서 흐린 술을 마시는
것이니 요즘도 풍류객들이 한탄강으로 나들이
떠나는 마음은 역사적으로 기원이 있는 것이라고
할까. 좀 다른 게 있다면 그 시절에는 고추장이
없었다는 점이다.

“매운탕은 역시 고추장이 제일 중요해요.
집에서 담가 톡톡한 고추장이라야 맛을 내죠.”

악센트가 높고 문장 말미에 급격히 떨어지는
맛이 있는 경기 북부 사투리가 고운 박씨의 설명
이다. 과연 식당 마당에 고추장 단지가 그득하다.
가까이 가서 보니 껍질이 까맣게 농익은 고추장이
입맛 다시게 만든다. 그 두꺼운 껍질 아래 색도 고운
고추장이 있을 것이다.

“연천이 해가 좋고 밤에는 바람이 쉼니다. 기온
차가 크니까 물산이 잘 여물어요. 연천 고추는 다른
지역 거에 비해 두 배 값 가까이 받는다고 해요. 달고
매워서 아주 칼칼한 고추장을 만들 수 있어요.”
마침 동자개(빠가사리)가 좋다고 하여 탕을 청한다.
참게도 드문드문 들었다. 참게는 가을에 여우는
것이지만 다른 철에도 통발이나 그물에 걸린다.
참게는 딱지가 작고 단단하고 진한 맛을 낸다. 흙의
향기랄까, 깊고 그윽한 맛이다. 좋은 제철 참게는
다슬기 향이 난다고 한다. 원래 한탄강에서도
아주 많이 잡혔는데 근자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드물어졌다. 참게는 처서가 되면 수컷부터 바다로
나가서 음력 이월에 다시 강으로 돌아온다.



바다와 강의 기운을 다 품고 있는 어종이다. 요새는 참게장이며 매운탕을 하는 집들이 많아 요행히도 개체 수가 늘었나 했더니 자신들처럼 직접 잡는 곳이 아니면 태반이 중국산이란다. 민물매운탕은 어떤 어종이 최고냐고 묻자 박씨는 쏘가리라고 했다. 대답에 조금도 지체가 없다. 쏘가리는 곰국을 끓일 만큼 뼈에 힘이 좋고 단단한 구조를 가진 놈이다. 매운탕도 그 힘에서 맛이 온다. 쏘가리가 여의치 않을 때는 동자개와 피라미도 좋고 메기도 어지간히 있다. 다만 물속 사정을 알 수 없으니 그때그때 어종은 섞이고 순서를 바꿀 뿐이다. 개성에는 천렵국이라는 게 있다. 민물 개울이나 하천, 계곡에서 잡는 어종으로 끓인다는 뜻도 되고 그저 천렵 가서 먹는 국을 통칭하기도 한다. 쇠고기만 넣은 천렵국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무얼 먹든, 천렵의 즐거움에 방해가 될까. 그래서 천렵 가서 라면만 끓였다는 사람도 기분이 나쁠 리 없겠다. 아무튼, 개성 천렵국은 떡을 넣어 국물을 바둑하게 만든다는데, 연천은 고추장에서 밀도가 나온다. 오래 전부터 연천매운탕의 역사는 고추장에서 나왔다. 물론 맹사성의 시기는 아니었겠지만.



“맛은 다 달라요,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매운탕 좋다는 데를 다 가봤어요. 남도는 된장을 쓰고 우거지를 넣습시다. 강원도는 감자와 호박을 넣고 경상도에서는 미나리와 콩나물 넣는 것도 흔하네요. 연천은 좀 똑 떨어지는 맛이랄까 그래요.”

연천에 김치 맛이 좋다고 하니, 고랭지 배추 덕이라고 했다. 밤엔 춥고 낮에는 햇살이 자지러진다. 작물은 대개 이런 기온 변화에 움츠렸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단단한 조직을 기른다. 맛이 좋아진다는 뜻이다.

연천의 식생은 좀 독특하다. 분단 상황이 반영된 바, 북쪽으로 넘어 가 있는 지역이 크고 남쪽도 그나마 개밭이나 농경 제한에 걸려 될 제대로 심고 말고 할 계제가 아닌 역사가 있었다. 게다가 군사 지역이니 불모지 작업 등으로 식생 파괴도 많았다. 비무장지대가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식생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런 다른 이면도 있다. 분단은 마을과 고장의 전통 정서를 파괴했다. 연천의 음식 문화가 면면하지 못한 결정적인 까닭이다. 원래 연천은 도토리나 꿩이 흔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꿩은 사육이나 해야 먹을 일이지 연천 어디에서 포수가 총 메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겠는가. 하기가 그건 이 땅 어디든 사정은 비슷하지만 말이다. 또 농지도 적어서 20퍼센트 내외다. 그래도 연천에서 맛 좋은 작물이 적은 건 아니어서 파와 울무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어부가 끓인 진짜 매운탕 맛

연천을 끼고 있는 한탄강과 임진강 일대에서 허가 받은 어민이 28명 정도 활동한다. 어민들이 짧은 구간에서 촘촘하게 어로하는 파주와 달리 연천은 1인 당 4~5킬로미터 정도의 어장을 관리한다. 자망, 통발, 강망, 연승(주낙) 같은 다양한 어로법을 이용해 각기 다른 고기를 낚거나 잡아 올린다. 한때는 봄이면 황복이 엄청나게 올라 왔다고 한다. 연천에 살며 오래 어로 활동을 해오고 있고 바로 옆 포천에서 펜션이 딸린 열두개울 따봉식당도 운영하고 있는 이형배(56) 씨에 의하면 ‘지게로 지고 나를 정도’로 흔했다.



“두 마리에 15원 하던 시절이 있었으니 말 다했지 뭐.”

연천에는 지역의 명물인 민물매운탕집이 성업한다. 지금도 주말과 휴가철에는 명성을 듣고 찾는 이들이 많다. 그래도 불황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한때 호황기에는 돈을 미쳐 다 세지 못해서 박스에 담아두기도 했다는 게 이 지역 매운탕집 주인들의 증언이다. 매운탕 맛은 뭐랄까, 상당히 기름지고 진한 느낌이 있다. 그 비싼 장어를 넣거나 적어도 참게를 밑국물 내는데 아낌없이 쓰는 까닭이다. 제 배를 가지고 어로하는 어민이라면 이 인심이 더 후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고기 값도 안되는 돈에 매운탕을 내기도 한다. 그게 연천의 인심이기도 하다.

매운탕에 수제비를 넣는 것도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던지기’라는 재미있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형배씨는 “수제비를 뜯어 넣는 모양을 두고 이른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연천에서는 매운탕이란 별식이 아니라 일상식에 가까웠다는 증언도 의미 있다. 민물매운탕을 문자 그대로 ‘밥 먹듯’ 하는 지역이라니.

이형배 씨는 과거 이 일대에서 고기 잡던 풍경을 전한다. 특이한 어로법이 많이 나온다. 그중에서 오리발 어로는 아주 재미있다. 나무로 오리발 모양을 여러 개 깎아서 줄에 주렁주렁 매달고 여울 위에서 아래로 끌고 내려오면 고기들이 진짜 오리인 줄 알고 쫓겨 내려온다는 것이다. 그러면 밑에서 그저 그물을 치고 ‘줍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투망을 던지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다 들고 올 수도 없던 시절도 있었다. 그렇게 잡은 고기로 마을사람들이 곤궁한 배를 싹쓸 불렀다.

그와 그의 아내가 준비한 매운탕을 든다. 어부가 잡은 고기가 실하게 들었다. 무엇보다 깊고 진하다. 고추장 맛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건, 든든하게 매운 맛이 이 요리의 결정적인 장면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고추장은 잘못 쓰면 탁해지는데, 절묘하게 간을 운용한달까, 오랜 내공의 매운탕집 요리사 솜씨가 빛을 발한다.

강은 댐으로 망가지고, 공해로 이지러져도 적으나마 아직 고기는 나온다. 이런 게 시절이다. 조금 먹먹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 아직 강은 길게 꼬리를 끌고 흐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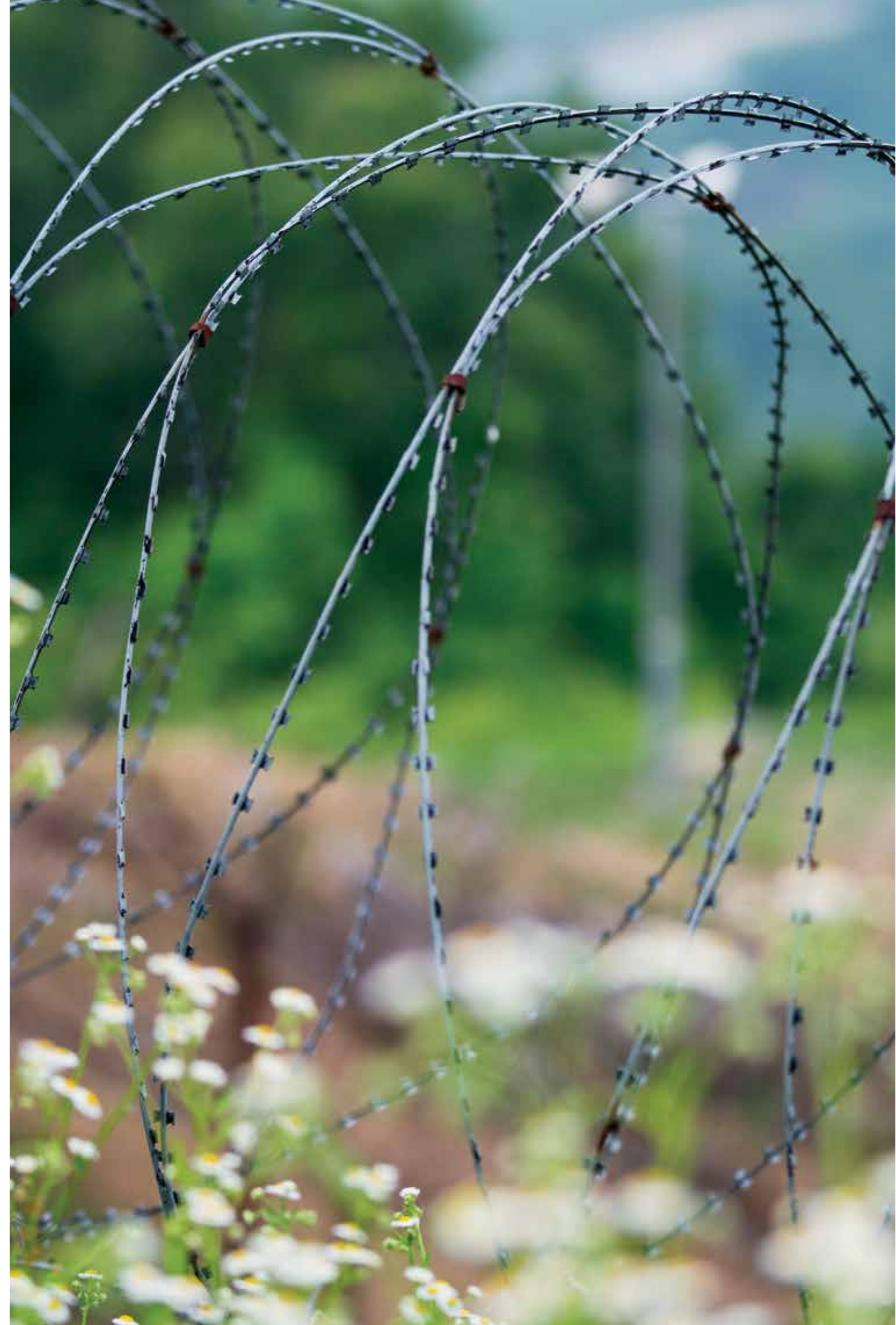


Photo © Park Jeonghoon



Photo © Park Jeonghoon







Photo © Park Jeonghoon







Photo © Park Jeonghoon





인생이 모이는 곳 연천 전곡 재래시장

과일 리어카 밀며 소리치는
꾼이 없고, 커피 밀차
아주머니도 안 보인다. 그저
몇몇 사람들이 군인 관련
용품점을 배경으로 드나들고
있을 뿐이다. 왠지 낯선 난전
대신 소박한 일상을 선택
했다고 할까? 군부대의 모습을
 옮겨다 놓은 것처럼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이곳은
연천 전곡재래시장이다.

글 한창훈
소설가

사진 구범석
바이브스튜디오

날지도 기지도 않은 밥 차려 주는 손

객지가면 배가 빨리 고파진다. 죽 이어진 식당 거리.
좋다. 호객도 안 한다. 종간 한테 메뉴는 거의 같다.
같은 업종끼리 모여 있는 게 시장 특징 중 하나니까.
같은 업종이란 같은 것을 판다는 소리 아닌가.
이럴 때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 첫인상.
이를테면 주인 이미지, 청결, 실내 조명, 그리고
어떤 손님들이 들어있는지와 한적한 자리는 있는가,
같은 것. 식당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쉽지 않다.
주인과 눈이 마주치면 불편하니까. 바로 들어가기도
뭘하고 다시 찾아오기는 더 뭣하다. 그러니까
무심한 척 순간적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빨아들여야
한다. 불현듯 눈에 들어오는 집. 오작교분식. 이 집에
눈이 간 것은 이열중대, 서로 마주앉아 밥 먹고 있는
열 명의 사병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절도 있게
머리를 처박고 이른바 사제 밥과 반찬을 흡입하고
있었다. 먹을 때의 집중은 평소의 생각을 잊게
만든다. 무언가 떠오르는 게 있다면 슬픈 식사이다.
대부분 불편한 것이 생각나기 때문.

자리에 앉자마자 대형 음료수 병이 나온다.
“안 시켰는데요.” 초행이라는 표시를 내가 내버렸다.
그냥 서비스이다. 둘러보니 모든 테이블에 음료수
병이 놓여있다. 순간 삼십 년 전이 떠오른다. 찌는
더위, 그늘이라곤 한 톨도 없는 연병장, 이어지는
갈증. 냉장고 속의 시원한 보리차와 슈퍼마켓의
음료수가 얼마나 떠올랐던가. 나중에 익사할 정도로
마셔 주리라, 했던 시절.

아저씨(황한만, 61세)는 음료수병만 놓아주고
말없이 서있다. 아주머니는 바쁘다. 연신 불을
붙이고 반찬을 담느라 허리가 구부러질 정도이다.
한국 어느 마을엘 가도 한 명은 꼭 있는 순한 얼굴에
이름 또한 이정순(58세). 남편은 가평, 아내는 강원도
강촌이 고향이다. 1975년 결혼. 중매로 만난 지 한 달
반 만에 전격 결혼. 남편 직장을 따라 온 곳이 이곳
연천. 아무렴, 국가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면 혈관
속의 피톨처럼 길을 따라 흘러다니는 운명들이 있다.
그게 없으면 불박이들은 에너지를 받지 못한다.
나무와 물처럼 토착과 유목의 합성이 생명이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고난을 만나게 된다.
아저씨가 머리를 다친 것. 그동안 공장을 다녔던
이정순 씨는 그때부터 분식집을 시작했고 8년 전
이 가게를 세 얻어 들어왔다. 슬하에 2남 1녀.
큰아들이 인근 사단의 상사이다.

근처 군인 사택에서 살고 있어 아들이 자주 들른다. 들르는 거야 아무 문제없다. 그런데 설거지를 잘해준다. “지 엄마가 고생하고 있으니 해야지.” 그녀의 말. 옳은 말씀. 낮에는 국가를 지키고 밤에는 엄마의 건강을 지키는 대한민국 육군 상사. ‘보람찬 하루 해를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뻗’기 전에 설거지 하는 군인 아저씨.

평일 아침은 7시에 문을 연다. 외출 외박병들이 6시 40분에 나오기 때문. 우선 이곳에서 사제 밥 먹고 점심으로 엄마 밥 먹으러 달려가고 저녁에는 여자 친구가 사준 밥을 먹는 것이 순서, 당연히 가장 붐비는 시간은 일요일 저녁이다. 나갔던 군인들이 반대 순서대로 되돌아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리 없기 십상이다.

“왜 자꾸 나에게 물어봐요. 이 시장통에 날고 기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다. 시장통이란 날고 기는 사람들의 장소이기는 하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순한 눈빛으로 그저 김장김치 써는 데에만 열중하는, 날지도 기지도 않은, 그녀가 차려주는 밥이 좋다. 밥 차려주는 손처럼 고마운 게 없다, 는 말은 내가 종종 했던 소리다. 형형색색의 반찬들. 딱 먹기 좋고 손이 가는 것만 놓여있다. 그리고 포인트로 계란프라이. 집처럼 먹고 싶다면 연천으로 오시라.



동그란 나무에 손으로 이름을 새기며 40년

올해 여든이 되신 강 할아버지는 복도처럼 자리 잡은, 자신만큼이나 오래된 가게를 지키고 있다. 굴삭기로 오래된 건물을 찍어 내리고 있는 소음이 가까이서 들린다. 길을 넓힌 단다. 도장 파는 그의 가게는 공사 현장 옆 블록에 있다.

남의 이름을 새기면서 살아온 인생 40년. 낡은 책상에는 도장목 고정시키는 틀이 손때 뻔 채 놓여있다. 그는 마지막까지 손으로 봤다(요즘은 어떤 가게라도 컴퓨터로 도장을 판다). 나무에 직접 이름을 파는 행위는 마치 인생을 통째로 새기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얼마 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했단다. 폐업 직전인 것.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 손 아까워서 어떻게 문 닫아요?”

1997년 11월 그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잠깐 이전의 이력을 살펴보자. 전북 익산 출생. 열아홉 살에 입대하여 48개월 복무 뒤 전역하여 동갑 아가씨와 결혼. 물론 중매. 고향에서 한동안 살다가 옮겨간 게 파주. 이동은 전통 농경 사회의 붕괴와 궤를 같이 한다. 그래서 맨손이었다. 공장에서 내준 방 한 칸에 선금 두 달 치 받아 냄비와 밥그릇 사서 살림 시작. 그 곳에서 5년 동안 헛가루 만든 일을 했다. 조각낸 원석에 소금 뿌리고 구운 다음 물을 뿌리면 폭발하는 것처럼 가루가 피어오른다. 그게 백회이다. 그러니까 그 가루를 꼬박 마시며 살았다는 소리.

이런 거 오래 할 것 못된다. 다시 이동해서 온 곳이 이곳 연천. 비가 오면 걸어다니지도 못 할 골목의 루핑 집에서 살았다. 연천행은 동서가 연줄이었고 그 사람이 뛰어난 기술자였다. 그에게 배웠는데 “사실 나는 도장을 잘 못봤다.”며 그는 웃는다. 개업 초기에 손님이 오면 잠시 나가게 한 다음 숨어서 봤다는 것이다. “손님이 지켜보면 손이 떨려서 말이야.”

처음은 그랬어도 도장 정말 많이 봤다. 하루에 목도장 300개씩 파는 것은 예사였다. 짐작대로 대부분 군인들 것. 월급 때만 되면 주문이 밀어 닥쳤다. 잃어버렸거나 실사 부사관이 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시절 군대는 이럴 때 아주 간단하다. ‘아, 도장 다시 파와.’ 그러면 끝. 엄마 설거지 잘해주는 상사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그의 손을 거쳐 갔을까. 황석영의 단편 〈삼포 가는 길〉에서 백화는 이렇게 말한다. ‘내 배 위로 사단 병력이 지나 갔어.’ 비유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의 손엔 아마 군단 병력이 지나갔을 것이다. 성, 훈, 태, 민, 용, 수, 상, 근, 정, 식, 환, 석, 이런 글자들. 사람보다 더 사람 노릇을 했던, 동그란 나무에 들어간 이름 석 자. 오랜 기간 한국 사회는 사람 자체보다 도장을 더 신뢰했었지 않은가.

고향이 아주 멀었을 그 사내들은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늙어갈까. 맨 처음 봤던 이름은 환갑이 넘었을 것이다. 그 사내들과 지금 어디에 박혀있을지 아무도 모를 자그마한 도장을 생각하면 참 아찔하다. 폐업이라는 말에 그들의 인생도, 아날로그 시대처럼 사라지는 것 처럼 들린다.

다시 교통사고 시점. 그는 거의 사망 상태였다. 근처 세 군데 대형 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돌려 보냈으니까. 그러다 기사회생한다. 왼쪽 발 다섯 군데, 척추 여섯 곳, 갈빗대 세 곳이 부러졌다며 흉터 자국을 보여준다. 아닌 게 아니라 보기에 도 민만하고 미안할 정도이다. 그러다보니 병원에만 38개월 있었다.

이런 기사회생은 그저 운이 좋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단 한 번도 남을 괴롭히지 않았을 품성이 그의 부드럽고 순한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하는 선행이 분명 있었으리라. ‘업은 백년 뒤에나 결실을 얻게 된다.’고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말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와 한국은 다르다. 우선 아주 멀리 떨어져있지 않는가. “병원서는 청소부 한 명만 알아도 그게 뻥이야.” 그것도 뽐으신 말씀. 파출소 잡혀갔을 때 알고 지내는 방법대원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대접이 달라졌던 경험을 우리 세대는 한두 개씩 가지고 있다.

종종 그렇듯이 가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곤란에 빠졌는데 어떤 인연인지 아들 면회 가던 강원도의 어떤 사람이 한 달 뒤 경찰서로 연락을 해 와서 목격자 증언을 해주었다. “내가 인사라도 해야 하는데, 전화라도 드려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송구한 표정을 짓는다. 성품에 걸맞게 버릇 또한 반듯하여 평생 술 담배 하지 않았으며 열 푼 벌면 닷 푼씩 꼭 저축해 왔다는 그의 유일한 취미는 민물낚시. 하긴 이곳은 한탄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이다.



금다방 ‘할마씨 아가씨’와 커피 한 잔

전곡시장엔 다방이 아직도 여럿 있다. 그렇다, 아직도, 이다. 테이크아웃 커피점이 이미 나라를 점령한데다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섬에도 다방이 없어져버렸으니까. ‘여종업원 구함’이 붙어있는 금다방. 내가 문 열고 들어간 곳이다. 아마 저 구인 전단은 일 년 내내 붙어있을 것이다. 늙수그레한 사내 한 명이 저 만큼 앉아있고 실내에는 오래된 시간의 공기만 고즈넉이 내려앉아있다. 커피 한 잔 2천 원. 저도 한 잔? 하면서 아가씨가 앞에 앉는다. 이 풍경도 정말 오랜만이다.

시장은 전국 인물들이 모여드는 곳. 그 인물들 마다 사연을 등짐처럼 지고 오는 곳. 인물이 쉬이면 사연과 사연도 쉬인다. 영화와 드라마가 등장하기 전에는 그게 대리 경험 역할을 했다. 그 형태의 첩병이 다방 아가씨이다. 탐색 시간. 우선 나에 대한 그녀의 스캔. 고향이 어디인가, 물어온다. 저 먼 남쪽 바다라고 대답. 무슨 일로 온 건가. 그냥 일이다. 바로 온 건가? 서울 들렀다 온 거다. 이번엔 내 차례.

이 아가씨는 오십대 중반. 좀 많은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몇 년 전, 우리 마을 주점에는 환갑 처녀도 있었다. 커피를 내려놓는데 왼팔에 도드라진 여섯 개의 별 문신. “형제들이예요.” “그럼 육형제?” “아니 팔남매.” 그럼 둘은? 그녀는 셔츠 왼쪽을 내려 어깨 뒤편의 별 두 개를 더 보여준다. 두 명은 그쪽으로 밀려났거나 아니면 선택되어 간 것이다. 이유 같은 건 물어보는 거 아니다. 스스로 말하기 전에는. 간간해 보이는 얼굴과 말투, 간혹 내쉬는 한숨, 이것으로 그녀의 인생 70퍼센트는 짐작된다. 역시나 스케일이 컸다. 아버지 유산을 두고 오빠와 한바탕 하여 뜯어 낸 돈으로 날아간 곳은 제주도. “내가 튼 거지.”

튀려면 먼 곳으로 가야한다. 그냥 도망은 아니었다. 가겠다고 선언을 한 것. 이 돈으로 제주도 가서 살 거라는 말에 울케의 얼굴이 환해 졌단다. 울케 마음이 짐작 되어서 나는 웃었다. 보고배운 게 있어 가장 먼저 차린 것이 단란주점. 낮선 곳 젊은 나이로 보디가드를 두었다고.(뭔들 안 했을라고).





그녀의 이력 중에 독특하게도 마주(馬主)가 있다. 테우리[목자(牧者). 제주도에서 말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를 두고 말을 사키운 것. 이걸 내가 그동안 들어온 여인네들 사연 속에서 처음이다. 말이 새끼를 치면 키워서 팔아 돈도 좀 만졌단다.

그런데 본 장사인 단란주점이 별로 단란하지 못했다. 점을 쳤다. 곳을 해야 한다는 점괘, 곳을 했다(아, 글썸 뒀을 안 했겠는가). 방울과 징소리로 가게가 한바탕 시끄러웠는데 그때 그 순간 그녀는 보았다, 고 분명하게 말한다. 강림하여 탁자에 앉아있는 아버지 모습을. 무당은 혼절했고 깨어난 다음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손을 내저었다. 막장에서 진 것. 제주는 영등굿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른바 신기가 센 곳인데도 그랬다. 믿었던 무당의 녹다운으로 문을 닫고 다방으로 업종 변경. 그런 식으로 자그마치 17년을 살았다.

과거는 화려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쓸쓸한 기운은 테이블마다 깃들어있다. 군인들이 오나는 질문에 가볍게 답한다. “이런 할마씨들만 있는데 누가 와요.” 그럴 것이다. 이것도 바뀐 세태이다. 우리 세대는 그저 다방이었다. 휴가병이 친구 기다리며 다방에 앉아 성냥개비로 탑을 쌓던 풍경들.

그 당시 주인 마담은 대략 사십대였다. 종업원들은 이삼십대. 그런데 슬그머니 다가와 커피 얻어 마시는 이곳 주인은 육십대이다. 평균수명이 올라간 만큼 여인네들의 나이도 올라갔다고 하면 좀 억지인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내 뒤로 찾아온 손님은 팔십대로 보이니까. 커피를 하루 최고 200잔까지 마셨다고 예전 어느 다방아가씨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마셔야 매상이 오르니까. 그런데 몸이 지탱할까. 그 시절 그렇게 커피를 마셔왔던 여인들, 수십 년 흐른 지금까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을 것이다. 당장 내 눈앞의 ‘할마씨 아가씨’도 그렇게 보인다.

시장 오후가 저물어 간다. 터미널 앞에는 서울과 군부대로 향하는 길이 반대편으로 뻗어있다. 여전히 삼삼오오 걸어가는 군인들이 보인다.

“아이, 기차를 탔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고 군인들만 잔뜩 있더라.” 오래전 우리 할머니가 했던 말이다. 복장과 환경이 세련되게 바뀐 요즘 모습을 보면 무어라고 하실지 생각하면서 나는 그들 사이로 걸어간다. 가방 속에는 금다방 아가씨가 준 껌 세 개가 들어있다. ㅁ



사진 제공: 연천신문사



여기서 부터는 민간인 통제구역 입니다!

연천군에 딱 한 곳 남아 있는
민통선 북방 마을 횡산리에는
2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군인이 주인 같고
주민이 이방인 같은’ 이곳에
사는 불편함이야 말해 무엇
하나면서도, “좁 고립돼
있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그거야 뭐 취향에 따라 장점도
될 수 있는 거고, 횡산리 살기
편찮은 마을이에요.”라고
말하는 이들이다.

글 임윤혁
자유기고가

사진 박정훈
박정훈사진작업실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대한민국에서
‘민간인’(군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북쪽 마지막 지점에는 20대 초반
병사들이 바리케이트를 경계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 초소를 지나면 곧 남방한계선이 나오고
그 안쪽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휴전선)을
넘으면 바로 북한 땅인 만큼 엄격한 출입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이 너머에서는 철저히 군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잔뜩 움츠리고 다가간 민통선
초소에서는 상상하던(혹은 경험했던) 긴장감이나
엄숙함 따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친절한
병사들 덕분에 차 안에 앉아 있어도 출입 신청이
진행됐고, 출입 신청서를 쓰고 신분증과 임시
출입증을 교환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는 끝났다.
‘이렇게 쉬웠어?’ ‘너무 허술한 거 아냐?’ 바리케이트를
열고 거수경례를 하는 병사들을 뒤로 한 채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들어서는 기분은 그래서 좀, 묘했다.

연천군 유일의 민통선 북방마을

“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은 155마일 휴전선에도
다 CCTV가 설치돼 있어요. 민통선 초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막말로 지금 누가 이북으로 넘어가겠어.
등을 떠밀어 봐요, 가는 사람이 있나. 이런 시대에
무슨 민통선이고 초소야. 의미 없는 경계지. 안
그래요? 아 그런데 이놈들이 지키라는 북한은
제쳐두고 주민들만 통제하고 있어요(웃음). 군대
입장이야 알지. 그래도 불편한 건 불편한 거야.
그렇게 아웅다웅 40년 세월이야.”

연천군 유일의 민통선 북방 마을인 횡산리
이장 김학용(61세) 씨. 그는 만성이 된 주민들도
부대장이 바뀌고 초소 근무병이 바뀔 때마다 서로
얼굴 익히느라 몇 달 간격으로 불편을 겪어야 하는데
하물며 방문객들은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개발이며 축진을 논하겠냐고
답답해한다. 이제는 민통선 초소도 횡산리마을
위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게 그를 비롯해 주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사실 지금의 삼곶리 민통초소도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복상을 한 것이다. 불과 십 여 년 전만 해도 민통초소는 삼곶리 월선 아래쪽에 있었다. 민간인 통제구역은 1954년 2월부터 생겨났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선(민통선)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건 한참 뒤인 1983년이였다. 당시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민통선 범위를 휴전선 이남 20~40킬로미터(DMZ 포함)로 설정했다. 그때 민통선 내에 속한 마을은 81곳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군 통제에 따른 출입의 불편이나 재산권 분쟁 등으로 조정 요구가 일었다. 군은 1993년 12월 민통선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20킬로미터로 축소했다. 그리고 1997년에는 다시 5~15킬로미터로 범위로, 2008년 9월에는 5~10킬로미터 축소하면서, 한때 최대 112곳까지 늘었던 민통선 북방 마을은 이제 (DMZ 내에 있는 대성동마을을 제외하면) 9곳, 연천군에서는 횡산리가 유일하다.



나 어릴 적 소타고 풀피리 불며 거닐던 강변

1·4후퇴 때 ‘인민학교’ 2학년이었던 이용섭(74세, 횡산리 노인회장) 씨는 전쟁의 포화를 피해 가족들과 함께 피난길을 나섰다. 지금은 DMZ 남방한계선이기도 한 필승교 근처 ‘전의 이씨’ (全義 李氏) 집성촌 벌말(野村)에서 임진강을 따라 남으로 남으로 내려갔다. 그가 다시 고향을 찾은 건 그로부터 40년이 다 돼가는 1988년. 휴전 직후인 1954년 11월에 행정권이 수복되면서 남한 땅이 된 횡산리에 민간인 입주가 시작된 건 1985년 9월부터다.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비인가로 10여 호 남짓 들어와 개간을 시작했었지. 지금 이장 보는 김학용 씨도 그때 열심히 개간에 참여했던 사람 이야. 나는 피난 나가 평택, 수원에 살다가 그맘때 쯤엔 서울에 살면서 성묘하러 일 년에 두어 번 드나들었어. 성묘하러 올 때도 군인들이 동행해 경계를 서주던 때였어.”

세운상가에서 전기 재료상을 하며 돈도 좀 만져 봤다는 그는, 나이 들어 병도 찾아오고 외상 장사에 실속 없이 마음만 상하는 사업에 진절머리가 나서 다 정리하고 400여 년 대를 이어오던 고향땅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수복 지역 소유자 미 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1982년~1993년까지 시행) 등으로 큰 분쟁 없이 원래의 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찾은 자신의 땅과 외지에 나가 살고 있는 일가들의 땅까지 6만여 평에 이르는 전답들을 가꾸다보니 제법 부농 소리도 듣게 됐다. 거기다 평화롭던 어린 시절에 소타고 임진강변으로 나가 풀 먹이던 기억이 그리워 키우기 시작한 한우도 어느새 150여 마리로 불어났다. 물론 평균 2억 원 정도 하는 기계 값(땅은 넓고 사람은 들어오기 어려워 기계가 아니면 농사짓기가 어렵다)에 인건비에 이래저래 나가는 돈도 수월치 않다. 하지만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돌려주는 농사일로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웠고 대를 이어온 조상님들 묘역도 잘 관리하고 있으니 고향으로 돌아오길 백 번 잘했다는 게 그의 자찬이다.



“우리 영감님이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알아서 들어왔지. 처음엔 답답하고 죽겠습디다.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나, 누굴 불러들이기가 쉬운가. 그렇게 5년을 버티다 영감님 돌아가시고 나서 튀었지. 밖에서 한 7년쯤 식당을 하면서 여길 떠나 있었는데,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여기만한 데가 없더라고. 공기 맑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군인들이 지켜주니 도둑 걱정이 없잖아. 그래 다시 들어왔지. 인테리어 하는 조카한테 별장식으로다 집을 멋지게 다시 지어달라고 해놨어요. 그때 다시 한 번 놀러 와요.”

방금순(70세) 씨는 지천에 널린 뽕나무에서 채취한(아니, 그냥 오며가며 주운) 오디를 발효해 만든 거라며 시원한 주스를 내왔다. 관절이나 변비에 특효란다. 그는 농사를 참 재미있게 짓는다. 다른 주민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애들 소꿉장난 같은 텃밭에 감자·상추·고구마·토마토·가지·오이·참외에 돌미나리·머윗대·토란·땅콩 등등 채소란 채소는 모조리 심어 왔다. 젊어 한때는 A급 미싱사로 가발 공장까지 운영했다며, 타고난 손재주로 임진강 참게 튀김이나 두릅 튀김 같은 별미도 딱딱 해내는 ‘숨씨꾼’이라고 길 건너 윗집에 사는 동갑내기 박승구 씨가 칭찬했다.

박승구 씨 ‘바깥 양반’인 권영우(80세) 씨는 ‘횡산리 조각가’로 중면 일대는 물론 연천군에서도 이름 난 이다. 그는 1·4후퇴 때 피난 나가 서울에서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살다가 퇴직 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원주민이다. 어린 시절(전쟁 전) 살았던 횡산리는 달구지가 드나들기 힘들 만큼 길도 없는 벽촌이었지만, 150여 호 1천여 명(당시 가구당 7~8명 가족 기준)이 오순도순 모여 살던 제법 큰 마을이었다고 한다. 임진강을 따라 크고 작게 형성된 자연 부락들은 대개 몇 백년 씩 대를 이어온 집성촌(전의 이씨, 남양 홍씨, 안동 권씨)이었다는 게 권영우 씨의 기억이다. 그 마을도 시절을 비켜갈 수는 없어서, 어느 때는 말라리아에, ‘왜정’ 때는 징용으로, ‘난리통’에는 인민군에 끌려가 젊은 사람들이 거지반 죽어나가는 비극을 고스란히 겪더니 전쟁 후에는 급기야 마을이 사라지더라.

“농사는 이제 힘이 들어서 못하겠어. 콩에 울무에 벼에, 한 만 평 남짓 짓는데 이제는 시골에서도 기계 없인 농사짓기가 힘들고 사람을 쓸래도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라 엄두가 안 나지. 해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해가 바뀌면 또 어느새 밭에 나가 있으니, 참. 그리고 살면서 답답할 때마다 나무를 깎았지. 내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조소과에서. 그냥 이런저런 잡일을 맡아서 했지. 그때 어깨 너머로 배운 것도 있고, 나무 깎는 걸 좋아하니까 소일 삼아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 수준이야 조악하지. 그래도 재미있어.”



군인이 주인 같고 주민이 이방인 같은 곳

민통선 마을의 주민들은 대개 전역 군인, 이재민, 실향민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황산리는 여기에 김학용 이장처럼 새 터전을 찾아나선 적극적인 이주민들도 포함되어 있다. 최초 개간 당시 이곳을 관할하던 부대장이 고향(전라도)과 처가 쪽(충청도 천안)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유입된 이들도 있다.

“그땐 군용 텐트를 치고 자기도 했고, 눈이 와서 고립되면 군대 부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도 다반사였어. 물자를 마음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던 때라 군용 식판이나 5홉 양은그릇에 밥을 담아 먹었지. 일일 출입 영농을 하던 이들은 군인들 눈에 잘 띄라고 오렌지색 모자를 썼어. 그거 없으면 초소를 통과하질 못했어.”



당시 민통선 안에서 전담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뢰 제거가 필수였다. 국방부 공식 자료에 의하면 DMZ를 포함해 민통선 안 지역에 살포된 지뢰는 대략 100만여 발. 특히 무게가 95그램에 불과한 M14 대인지뢰(일명 발목 지뢰)나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 지뢰는 홍수 등에 휩쓸리기 일쑤여서 개간을 하며 죽거나 다친 이들이 많았다. 황산리에서 제거한 지뢰만도 트럭으로 몇 대 분량이었는데, 민간인 지뢰 전문가들의 탁월함 덕분에 이곳에서는 지뢰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는 게 김 이장의 전언이다.

2000년 세 번째 민통선 북상으로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해제된 삼곶리 주민 최기중(71세, 삼곶리노인회장) 씨는 ‘짬밥’으로 가축을 키우거나 임진강에서 고기를 잡거나 민통선 안에서 점방을 하거나, “여하간 민통선 안에서는 뭘 해도 군인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군인들과 빠가사리 매운탕에 막걸리 한잔씩 걸치던 옛이야기를 들려준다. 삼곶리에서 가게 하던 시절, 민통선 안으로는 술 반입이 금지돼 있어서 한겨울이면 민통초소를 피해 얼어붙은 임진강 위로 경운기에 술을 싣고 건너갔다가 빠져죽을 뻔한 적도 있다며 지난날을 회상한다. 그는 필승교 아래로 침투한 무장공비 색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임진강 어업 허가권을 받았다. 지금은 군남댐 공사로 4년째 어업 허가권을 반납하고 어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민간인들이 오지 않는 임진강 상류엔 지금도 팔뚝만한 빠가사리며 쏘가리가 펄떡인다고 알려주었다.



개촌 2세대들로부터 불어오는 변화의 조짐

초기 이주민들의 뒤를 이어 이용섭 씨나 이기복(67세) 씨, 권영우 씨처럼 황산리 원주민들이 조상 땅을 찾아 들어왔고, 황홍섭(71세)·전명옥(69세) 씨 부부처럼 강원도 화천 출신의 화전민들도 한축을 이루었다. 깨끗한 환경을 찾아 들어온 이재홍(59세, 전곡에서 어린이집 운영) 씨, 목회를 위해 들어온 은금홍(66세, 선한이웃교회 목사) 씨 등은 마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후 들어온 이들도 있다.

그렇게 모인 이들이 45가구 200여 명이었다. 하지만 2011년 군남홍수조절지(군남댐)가 완공 되면서 주민은 20여 가구 70여 명으로 줄었다. 댐을 만들며 수몰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자 ‘취끄리만한 돈푼’을 챙긴 주민들 중 절반 이상이 황산리를 떠나버렸다.

반면에 연로한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러 들어오는 자식들이 생겨났다. 황홍섭 씨의 큰아들 황성수(48세) 씨는 서울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대신해 농사를 짓기로 결심하고 황산리로 이주했다. 그이가 이주를 결심하고 나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아내를 설득하는 일이었다. 농촌, 그것도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서 산다는 두려움은 생각보다 큰 것이었다. 성수 씨는 규모를 갖춘 친환경농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가족들과 함께 황산리에 입성했다. 지금은 석사 학위를 딴 동생도 들어와 부모님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영농자립을 실현해가고 있다.

이용섭 노인회장의 아들 형제도 황산리에서 6만 평 큰 농사를 짓고 있다. 기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벼농사에 비해 사람 손이 훨씬 많이 필요한 율무는 연로한 부모들 대신 젊은 자식들이 도맡으면서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아이들도 늘어나(초등학생 5명, 중고등학생 5명) 이제 아침저녁으로 스쿨 버스가 드나들고, 10여 년 전부터는 하루 세 번 이지만 군내 버스도 다니기 시작했다. 황산리 버스 시간은 오전 8시, 오후 1시, 오후 5시 30분이다. 아들들이 중국 처자와 결혼한 집도 세 가구가 있다 하니 아마도 곧 황산리마을엔 오랜만에 듣는 아기를 울음소리로 생기가 돌 터이다.



좀 고립돼 있다는 건 뭐, 장점도 될 수 있는 거고

해질 무렵, 지난해 말 개관한 마을회관에서 전체 회의가 열렸다. 회의 안건은 ‘마을주민 소득사업 고송표고버섯의 건’. 수물지 보상비를 마을 소득사업에 쓰기 위해 표고와 송이를 결합한 신품종 표고버섯 사업장 20동(1동 100평 기준)을 짓는 데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자리였다. 가구당 대표자 한 사람 이상이 회관에 모여 늦은 저녁과 함께 회의를 시작했다. 은금홍(66세) 목사가 나눠준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김학용 이장의 안전 설명이 이어졌다. 좋은 작물을 생산해 소비자들과 직거래하려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는 은 목사는 횡산리영농조합법인을 맡아 친환경 영농 단지 조성 사업을 벌이는 한편 마을의 이런 저런 행정 업무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해결사다. “제가 2000년에 들어왔는데, 그때까지도 텔레비전이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청에 가서 ‘아이들 숙제도 인터넷으로 하는 세상’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해서 스카이라이프가 들어왔고, 군인들과 부딪쳐가며 이동 통신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니까 여기가 토질이 좋아요. 울무 토질이야. 일교차가 커서 작물들이 맛이 좋아. 특히 고추는 최고입니다. 좀 고립돼 있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그거야 뭐 취향에 따라 장점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횡산리 살기 괜찮은 마을이에요.”

전곡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한다는 이재홍 씨 부부는 횡산리에서 전곡으로 출퇴근을 하는 특이한 경우다. 전국 여러 곳을 다녔지만 횡산리 만큼 환경이 좋은 곳이 없어서 민통선 안이라는 불편을 감수 하면서까지 이곳에 집을 지었다고 한다.

임진강 홍수 조절 목적으로 군남댐이 들어서면서 수자원공사의 양수장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언서(73세, 연천읍 거주) 씨는 1972년에 횡산리에 들어와 40년 넘는 세월 동안 마을의 크고 작은 변화를 지켜봐온 산증인이다.

“1975년에 개간을 하면서 행정리로 등기가 되니까 그때야 땅주인들이 나타났지. 그들이 대개 이씨, 권씨, 홍씨 같은 원주민들이야. 그네들 중중(宗中)은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복 받았지. 누가 거들떠도 안볼 땅이 개간되고 소유권을 찾고 지주들이 됐으니까. 여기서 1만 평 이하는 텃밭이야. 최소 2~3만평은 왜야 농사 짓는다 소리를 하지. 땅값이야 아직도 형편없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론 불안해서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더 떨어졌어요.”





유혈이 사라진 자리, 아워어가는 이야기들

마을 주민 중에는 주소지만 횡산리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외지에 사는 이들도 있다. 분당에서 회의 참석차 들어온 조문기(62세) 씨가 그런 경우. 그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횡산리를 체험 관광지로 만들고 싶어 했다. 민통선 초소부터 산책로를 만들고 임진강을 따라 걷게 해준다면, 접경 지역에 대한 호기심은 물론 자연 생태에 대한 욕구까지 충족시켜 사람들을 끌어들이길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다. 실제로 풍부한 먹이사슬이 존재하고 사람들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횡산리 일대는 겨울철이면 세계적으로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2호)가 찾아와 이를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미 임진강 생태습지원이나 두루미 탐조대도 조성돼 있다. 그러나 군남댐(담수 문제)과 민통선 개발(평화 생태공원)은 양날의 칼이라, 주민들 내에서도 개발이나 보존이나를 놓고 의견이 갈릴 만큼 첨예한 사안이다. 군남댐에 물을 가두면 여울이 사라져 두루미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며, 생태공원을 만드는 일이 자칫 천혜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게 논쟁의 핵심이다. 사실 이러한 논의(개발이나 보존이나)는 횡산리 뿐 아니라 휴전선과 인접한 모든 민통선 지역에서 마찬가지이다.



연천군 중면사무소 부면장인 윤영범 씨는 이번 정부에서 DMZ세계평화공원 건립을 역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연천군도 횡산리 일대를 후보지로 제출한 상태라며, 하지만 연천은 ‘중앙에서 힘 쓸수 있는 인물’이 없어 경기도 내에서도 파주에 밀리는 형국이라고 했다.

“현재 위치하고 계신 곳은 지난 60여 년 간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155마일 휴전선 중서부전선으로 (···) 해발고도 260미터의태풍전망대이며 (···)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부터 수복한 지역입니다. (···) 전방에 S자 모양으로 굽이 흘러내리는 강을 볼 수 있는데 이 강이 우리 민족 분단의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한 임진강입니다. 임진강은 (···) 북에서 남으로 흐르다가 전곡 일대에서 한탄강과 합류하여 서해로 흘러가는데(···) 태풍전망대로부터 휴전선이 형성돼 있는 임진강까지의 거리는 약 800미터이고, 가장 가까운 북한 초소와의 거리는 2.1킬로미터로 휴전선 155마일 상에 위치한 11개의 전망대 가운데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

횡산리를 나오는 길에 잠시 들린 태풍전망대. 관람객들에게 설명을 하는 병사의 목소리가 또랑또랑하다. 사람들은 전쟁과 평화, 단절과 교류, 화해와 용서,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여전히 혼란스럽다. 지금도 그곳엔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있지 못할 광장 /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 아워어가는 이야기뿐인가”(박봉우 〈휴전선〉, 1956년)라고 각혈처럼 토해낸 시인의 절규가,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씩씩한 군가 소리와 뒤섞여 능선을 넘나드는 듯하다. 철조망에 걸린 빨간색 지뢰 표시가 독사의 혀바닥처럼 위협적으로 널름거리는, 여기는 연천군 중면 횡산리, 민간인통제구역이다. ㅁ

“여길 왜 신망리라고 부르냐면 말이야”

한국엔 이런 땅도 있다.
삼팔선 이북에 위치한 이유로
10여 년 간 북한의 통치를
받았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폐허가 되었다. 휴전 후
남한이 되찾았지만, 그곳에
피난민 정착촌이란 마을을
새로 일으킨 건 미군. 분단,
전쟁, 피난, 정착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이 마을은
아이러니하게도 ‘신망리
(新望里)’라 불린다. ‘새 희망을
바라고 살아온 마을’의
오늘을 채집했다.

글 강신재
편집부

사진 박정훈
박정훈사진작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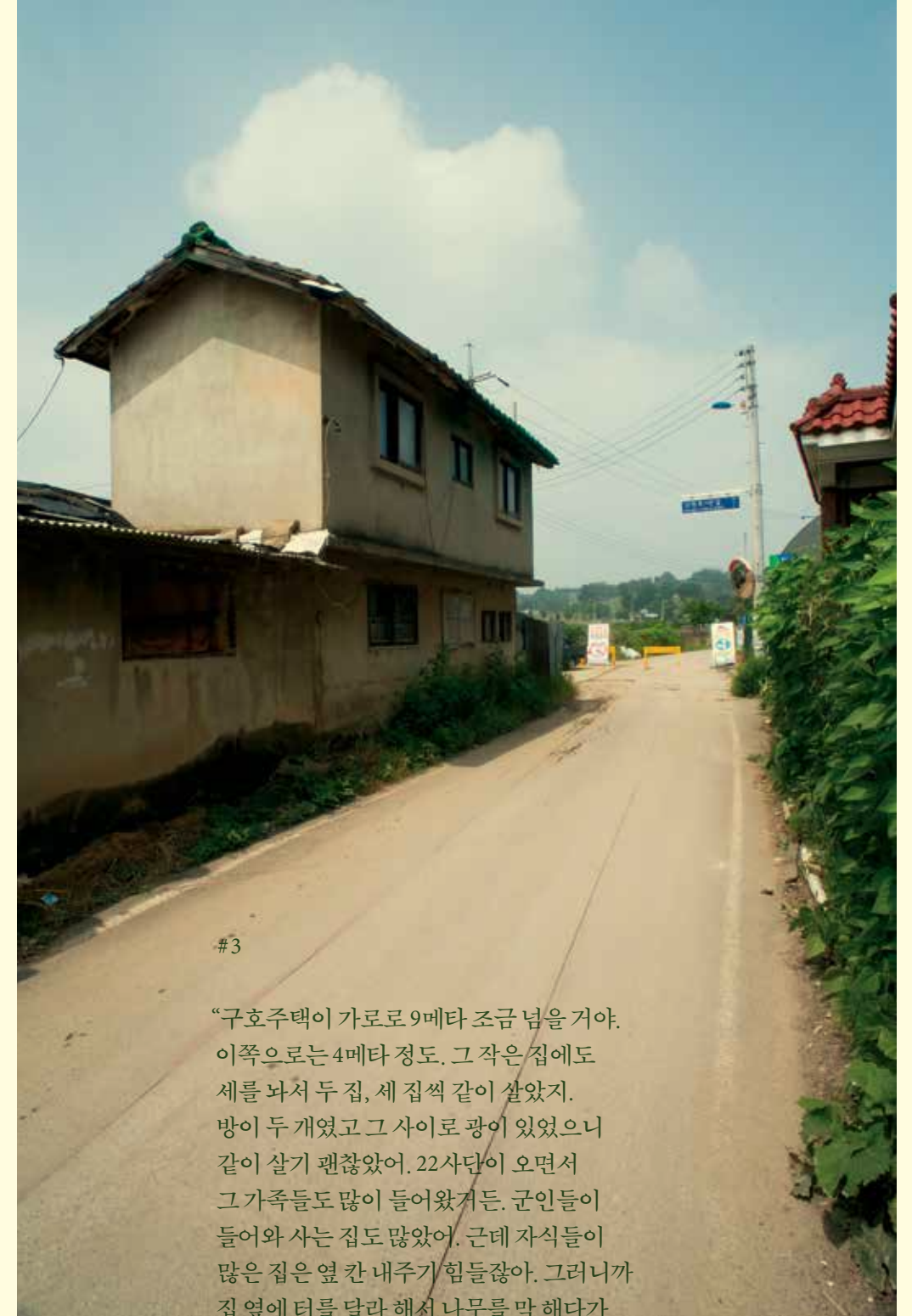
#1

“첨엔 미7사단이 신탄리에다 마을을
갖다줬어요. 근데 거긴 강원도 철원군
신평면이거든? 들어올 사람들이 연천에
연고 있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우린 여기서
못살겠다, 요새 말로하면 데모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상리에 자리를 잡았지. 여길
왜 신망리라고 부르냐면, 수복 당시에
일제 때 공무원 하던 사람이 몇 있었거든?
그 사람들 말이, (이 지역 수복될 때만 해도)
연천(읍)은 수복이 안됐으니까 군청은 일로
들어와야겠다 그러더라고. 군청도 올 것
같다하고 그러니까 미군들이 여기다 ‘New
Hope Country’라고 꽃말을 세워놔있어.
상리초등학교가 수복 후에 개교할 때도
연천초등학교로 열었다니까. 이후에 연천
(읍)이 수복돼 갖고 여긴 상리가 되고
연천은 연천(읍)이 찾아간 거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망리는 마을이니까
뉴 호프 타운(New Hope Town)이라고
하는데 타운이 아니라 컨트리야. 군지에도
타운이라고 돼 있던데, 오기야. 언젠가 군수
나왔다고 돌아다니는 애가 여기는 상리지
왜 신망리냐고 바꿔야한다고 하던데,
이 이름은 육이오 때 동족상쟁이라는
뼈아픈 전쟁의 산물이야. 없앨 게 아니라
두고 봐야지. 역사에 남을 건데 지금 맘에
안 맞는다 어쩐다 그렇게 아니야.”

新
望
里



“휴전하고 미군이 구호주택 100호를 지어줬지. 똑같은 집 100채. 마을회관, 파출소, 학교 관사, 병원 자리 4~5채를 공동 건물로 내놓고 나머진 주택으로 썼어. 상리는 60년이 흘렀는데도 마을 안길이 엄청 넓어. 바둑판처럼 해놔서 여기서 창문을 열면 저 끝까지 보일 정도였다니까. 집이 다 똑같고 도로가 반듯하게 잘려 있어서 동서남북 분간 못하는 사람은 많이 헤매고 땡겼지. 미군이 집을 완전히 지어준 건 아니고 기본 골조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한 거지. 벽체 만들고 그런 거... 4년간 묵은 땅이라 나무가 없으니 들에 가서 뽕양쪽이라고 대가 쪽쪽 올라가는 쪽 비어다 엮어서 흙벽을 발랐어. 모래고 돌도 우리가 직접 저다 날랐지. 미군이 차량 지원은 해줬어. 그때 내가 열일곱이었는데 대광리 신탄리까지 군인차 타고 가서 타버린 집 찾아서 구들장을 썼어. 둘은 동막리에서 집어오구... 어릴 때니까 고생이고 뭐고 재미있었지. 근데 그러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 열여섯 집은 얼마 안 돼서 떠났어. 농사짓던 사람들은 목정논을 파서 뭐라도 했지만 그게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있어야지. 그래도 빈집은 곧 다시 보충이 됐지. 이집은 그때 지은 구호주택 70호이야. 원형 그대로 남은 유일한 집이지.”



#3

“구호주택이 가로로 9메타 조금 넘을 거야. 이쪽으로는 4메타 정도. 그 작은 집에도 세를 파서 두 집, 세 집씩 같이 살았지. 방이 두 개였고 그 사이로 광이 있었으니 같이 살기 괜찮았어. 22사단이 오면서 그 가족들도 많이 들어왔거든. 군인들이 들어와 사는 집도 많았어. 근데 자식들이 많은 집은 옆 칸 내주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집 옆에 터를 달라 해서 나무를 막 해다가 엉뚱뚱 집을 짓고 그러고 살았어. 집집마다 흑이 생겼지 고담서부터는. 다들 구호주택 허물고 다시 짓고들 사는데 우리는 구호주택 위에 늘리고 붙이고 해서 집을 고쳐짓고 사는 거지. 봐요, 집이 땅바닥에 붙어 있잖아. 안방에 들어가면 흙벽 그대로 우둘두둘... 도배를 해도 잘 뜨고 그래. 대신 겨울에 옷풍도 없고 여름엔 덜 덥지.”

“이 건너편이 사격장이었어. 어렸을 때 거기서 고철을 주워 팔잖아, 그럼 하드 쪼그만 거 하나라도 사먹을 수 있었어. 철사 쪼가리 묻어놓고 몇 년 뒤에 캐서 옛 사먹고 그랬지. 포탄을 넣는 상자가 터져나가지 말라고 가운데에 10미터짜리 철근으로다가 조이는 게 있었어. 그거 하나 주우면 그때 돈 오원을 받았으니까 뭐…. 근데 고철보다는 탄피를 주우면 좋았지. 그건 낫쇠니까 값이 더 나갔거든.

그것만 했겠어? 미군들이 쳐놓은 철조망 다 거뒀지, 철주 뽑았지. 철조망을 전부 다 따서 철사를 톨라에다가 넣고 쪽 뽑으면 그게 나가서 못이 돼서 들어오고…. 그 정도 했으니까 경제가 아주 활발했지. 발전이 없는 건 농사꾼들뿐이었어. 군대 보급 물자로 돈 번 사람도 많았고. 군수품을 곡식 사이에 숨겨갖고 새벽 기차에 싣고 나가서는 동대문 시장에 가서 팔았다니까. 그거 잡는다고 요즘 말하면 기무사고 전에는 특무대라고 했는데 여하튼 개네들이 차간에서 짐 조희하고 죄지는 놈은 도망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 휴전은 됐지만 생계터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였어.”

“전기 들어오면서 변하고, 전화 들어오면서 변하고 그랬지. 전화가 1977년인가 1978년인가에 들어왔어. 415번이 그때 이장하던 사람, 416번은 강원슈퍼, 417번은 지금 이장집, 418번은 미장원하고 사진관하는 놈, 내가 419번 그렇게 다섯 대였어 첨엔. 516번은 나중에 받은 거지. 34국에 516이러면 전화가 됐어.”



“여기가 다방 거리야. 화려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딴 데서 보면 우습다하죠. 연천에서 다방이 켈 처음 들어온 곳이 신망리예요. 전곡땅 한 평에 십오 원, 십 원 갈 때 여기는 백오십 원, 이백 원 갔다니까. 술집은 아주 그냥 수두룩하게 많았고. 여기 마주보는 두 집이 전성기 술집이었어. 취산정, 서울집. 어마어마한 술집이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거 봐. 40~50년 된 건데 건물이 그대로 있잖아. 여긴 건축 행위가 자유롭지 않아서 새로 짓지도 증축도 못해. 그대로 무너지고 있는 거지. 순대가게도 30년이 더 됐는데 지붕만 바꾸고 고철 수가 없어요.

저기 파란집 있잖아. 저 자리가 옛날에 창녀촌이었어. 전곡 같은 데는 윤락가 아가씨들이 사오백 명쯤 됐는데 그게 군대로 보면 대대 병력쯤 되거든? 그래서 대대본부, ‘씨피(CP)’라고 불렀다고. 여기는 집을 철조망으로 밖에 못하게 해서 철조망집이라고 했어. 아가씨들이 사오십 명씩 있었지. 뭐, 현찰이 제일 많은 동네였으니까. 고철 팔아 돈 번 사람들이 흥청망청 써던 거지. 전쟁 후에 떨어져있는 폭탄 껍데기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연천가면 고물을 캐든 뭐를 하든 먹을거리가 있다고 해서 팔도에서 다 모여들었다고. 재밌는 동네야. 그 사람들은 농사도 안 지었어. 하루 나가면 그때 돈으로 십만 원, 이십만 원씩 벌었으니. 그게 얼마나 큰돈이에요. 남한테 사정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라 해서, 신망리 이름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러 온 곳이 여기야.”





#6

“제가 1954년생이에요. 부모님이 백일도 안된 저를 안구여기 신망리 수북 지역에 들어왔으니 수북동이나 마찬가지로. 제가 대여섯 살쯤 됐을 때 조기 교육을 받은 게 있어요. 아버지가 살던 고향땅이 삼팔선 이북이었거든요. 육이오 때 격전지였잖아요. 아버지가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아냐면서 절 불러 앉혀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밤에 인민군이 우리 군인 옷을 입고 마을에 내려와서 인민군 어디 갔냐고 물어본대요. 입이 빠른 사람은 인민군 새끼들 나쁜 놈이라는 말이 먼저 나가요. 그럼 죽는 거죠. 그 애길 하시면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절에는 뭐든 모른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본 적이 없다, 모른다...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으면 대여섯 살 밖에 안된 애한테 사는 법을 가르쳐야 했던 건지...”

#7

“신망리 노인네들은 다 꽃을 좋아하지. 근데 이 꽃이란 걸 잘 키우려면 성질을 잘 알아야 돼. 이건 능소화야. 강원도 능소화가 이빠서 강원도엘 가서 가지 두 개를 잘라왔어. 집에 와서 꽃았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살아서 잘 자란 거야. 7월에는 뭐든지 이식을 하면 살아요. 철쭉 가지를 잘라서 땅에 꽂으면 산다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7월에 장마가 지잖아.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사는 거 같아. 이건 미니 장미야. 이런 꽃은 다 진 다음에 꽃대를 잘라주면 돼. 그럼 새로 또 피지. 잘라주면 일년 내 꽃망울이 계속 나와. 화초 키우는 재미가 그런 거지.”



#8

“옛날에 상여랑 결혼식 때 입는 관복 있는 동네가 여기 밖에 없었어. 그걸 갖게 된 게, 5사단 사단장이 1955년 9월에 여기서 나가면서 역전에 강당을 차리고 쌀 30가마하고 돼지새끼 20~30마리를 주고 갔거든. 두고 간 돼지를 키우니 새끼 몇 마리씩을 다시 내놓을 수 있었지. 공동 기금이 생겼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집집마다 큰일을 치르려면 그릇 같은 걸 얻어다 써야 하잖아. 유물계라고 해서 동네 그릇도 만들었어. 놋그릇이 450개인가 있었을 거야. 그분이 이 동네로 봐서는 큰일을 해주고 가신 거지. 근데 그걸 기억하는 동네 사람들이 몇 안 남았어.”

#9

“가게 한지는 30년쯤 됐어요. 우리 집은 밭 배달 손님이 많아요. 봄부터 가을까진 밭일이 바쁘니까요. 농사지으면서 밥 챙겨드시기 힘들지 않아요. 주문 받을 때 누구네 어느 밭으로 갖다 달라하세요. 다들 밭을 여러 개들 가지고 계시는데, 어느 쪽의 누구네 밭 이러면 거의 다 알아요. 이 철가방에 식사가 아홉 그릇 들어가는데, 한창 바쁠 땐 이 가방으로 부족할 때도 있어요. 두 개도 들고 많이 갈 땐 차로도 가고. 옛날엔 점심때 밥을 백이십 명분, 백오십 명분씩 해 달랐는데 이제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도 마을 분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어요.”



“전곡 역전에서 육이오 참전용사 쫓기대회가 있어. 다들 조기 입고 모자 쓰고 오지. 모이는 사람 별로 없어. 다 죽고 얼마 안 돼.”

“우린 연천 복지관 가는 거야. 거 가면 늙은이들이 한 이백 명 있어. 다른 사람들은 부채춤도 장구도 치고 탁구도 치고 장기도 두고 오만 거 다하지. 난 그런 거 못하니 사람들 치다보고 있다 오지. 이 마을에도 경로당이 있는데 화투를 안 배워서 못 가. 경로당에선 화투 하는 사람들만 사람이지만 화투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거든. 난 목단 꺾테기는 알아도 다른 건 몰라. 신랑이 노름을 해서 수많은 재산 다 까먹구 거지거지 상거지 노릇을 하다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화투 안 배웠어.”

“오늘 두 시에 영정사진 찍으러 온다는데, 안 찍어?”
 “난 찍어논 거 있어.”
 “그때 교회서 찍은 게 몇 년도였지?”
 “모르지.”
 “그거 너무 젊어서 못 씌. 너무 젊어서 안 돼.”
 “젊으면 좋지. 죽어서라도 젊어야지. 안 되긴 뭐가 안 돼.”

“신망리역 이빠, 쳐다봐봐. 코스모스 필 땐 천국 같애. 얼마나 이쁜지 몰라. 축제도혀. 군인, 민간 다 섞어져 갓구. 코스모스 필 때 연락해줄까? 전화번호가 있어야 연락을 해주지. 꽃피는 거 알라면 우리 집에 전화하구 와. 새벽 일찍 해도 돼. 난 혼자 있으니까. 두시서부텀은 안자. 그냥 누워서 텔레비전 보구 있어. 텔레비전은 생전 안 끄니까.”

“2005년에 와서 대매소를 했어요. 표를 끊어주고 1프로 마진 갖고 그랬죠. 2009년부터 명예역장으로 일했는데 지금은 그 제도도 없어졌어요. 요새는 그냥 마을 일이니까 와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건물도 다 망가지거든요. 아침에는 제가 와 있고 곧 집사람이 나와요. 집사람은 여기서 수선 일 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역에 노래도 틀어주고. 하루에 한 300명은 드나드는 역이니까 사람이 있어야죠.” ■





Mountain Temple

산사기행: 보개산 원심원사 석대암

논물은 강물보다 깊고 나비는 수평으로 난다

보개산 자락에 살던 아이는 어릴 적 동네에서 이런 이야길 들었다. “지장보살 전설이 담긴 석대암이라는 빈 절터가 보개산 절골 골짜기 어딘가에 있다.” 훗날 아이는 기억을 더듬어 그 암자 터를 찾아 나섰다. 유실된 지뢰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산을 오른 그는 1984년, 생지장보살의 전설을 간직한 보개산 원심원사 석대암 폐사지를 발견했다. 한편, 전쟁으로 석대암이 소실됐을 때 사라진 지장보살 석상은 훗날 되찾아 현재 철원 심원사에 모셔져 있다. 초여름, 시인은 두 심원사를 오가며 지장보살의 의미를 되새겼다.

글 이산하
시인

사진 유동영

서울에서 파주를 지나 연천으로 가는 들판에는 모내기를 마친 어린 벼들이 자라고 있다. 이따금 논에 직접 씨를 뿌린 직파논들도 보인다. 푸른 실핏줄 같은 벼 위로 하얀 나비들이 날고 있다. 얼마 전 저 논들은모를 심기 위해 몸을 낮추고, 물을 받아들여 평평한 논물을 만들었을 것이다. 저 논물처럼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수평 자세이다. 논이 몸을 낮추면 물이 들고, 물이 들면 벼가 익고, 벼가 익으면 사람이 고개 숙이고, 사람이 고개 숙이면 세상이 몸을 낮춘다. 그리고 다시 논이 몸을 열고 물을 받아 수평을 이룬다. 수직으로 출렁거리지 않고 수평으로 찰랑거린다. 나비의 자세다. 나는 것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다. 오늘 내 눈에는 저 논물이 강물보다 깊다.

지장보살의 성지, 원심원사 가는 길

연천 동막골 입구에서 왼쪽아미천을 따라 들어가자 방갈로와 펜션들이 띄엄띄엄 보인다. 처음 ‘동막골’ 도로 안내판을 보자마자 난 영화 ‘웰컴투 동막골’을 떠올렸다. 영화의 배경은 강원도 삼척이지만 영화의 원작인 동명의 연극 배경은 연천 동막골이라 한다. 그게 어디든 ‘멧돼지’라는 이데올로기가 수시로 나타나 마을을 짓밟는 전방은 어느 곳이나 다 ‘동막골’이다. ‘웰컴투 동막골’은 내게 남·북 공존을 다룬 영화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인상 깊게 남은 영화다. 한동안 영화 속의 나비와 멧돼지가 내 마음을 감기도 했다. 멧돼지가 발톱으로 핏줄이며 상처를 내면 나비는 날개로 상처를 지우며 단청을 했다.

여러 유원지가 있으나 아직 피서철도 아니고 하천의 물도 부족한 탓인지 주변이 한적하다. 동막골 계곡으로 들어가는 도로 주변으로 여러 개의 확성기가 눈에 들어온다. 군부대의 훈련장들인 듯했다. 잠시 내 목적지의 지리적 정체성이 환기되며 긴장하는 사이 도로 왼쪽으로 그 옛날의 심원사 부도밭이 나타난다. 12기의 승려사리탑과 2기의 비석으로 이뤄졌다. 나비가 앉은 부도에는 도당을 비롯해 청심당, 호연당, 연월당, 총음당, 허백당, 소요당, 제월당 경헌, 취운당 학린 등의 이름이 보인다. 서산대사의 범맥을 이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선승들의 공동묘지다.

취운당 부도는 한국전쟁 때의 상흔으로 보이는 여러 발의 총탄자국으로 패여 있다. 임진왜란이나 한국전쟁 등 수많은 전란에도 지금까지 보존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위치나 형태 등이 내 까막눈에도 너무 엉성해 자료를 확인해보니 장소도 옳졌고, 유물 도굴 사건으로 부도도 파손되었고, 무계획적인 복원으로 원형도 손상되었다고 한다. 도로 좌우로 ‘사진 촬영 금지’ 경고판이 달린 군부대 철조망이 나온다. 검은 철조망 위로 하얀 나비들이 날아다닌다. 나비 한 마리를 쫓다가 놓친다. 마침내 한국 제일의 지장 성지인 원심원사(元深源寺)가 보인다.

주지스님에게 듣는 원심원사 역사

여기는 원래 해방 이후 북한 땅이었다가 한국전쟁 이후 남한 땅이 되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토박이 주민들의 국적이 모두 바뀐 것이다. 이곳에서는 3·8선보다 휴전선이 더 북쪽으로 그어진 까닭이다. 한국전쟁 때는 남한군과 북한군 합쳐 13,000명이나 죽은 격전지였다. 북한군의 근거지였던 큰 절과 작은 암자들은 미군이 불태웠지만 다행히 이 절의 상징인 지장보살석상만큼은 참화를 면했다. 이 석상은 전쟁 중에 행방이 묘연했다가 극적으로 되찾아 1954년 지금의 강원도 철원 심원사(深源寺)에 봉안되었다.

원심원사 입구에서 보니 폐사지는 흔적도 없고 대웅전과 요사채 등 커다란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넓은 공터에는 원목과 대리석, 기와 등의 건축 자재와 포크레인과 화물 운송 차량이 보였다. 복원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 경내를 둘러본 다음 중무실에 들러 주지스님을 찾았다. 정오 주지스님은 허름한 컨테이너가 거처였다. 스님이 아주 귀한 것이라며 차를 끓였다. 짧고 소탈한 스님과의 차담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기도 했고, 바람 부는 처마 끝의 풍경처럼 아슬하기도 했다.



問 여기는 경원선이 지나가고 금강산 가는 길목이라 복원하면서 통일 염원도 남달랐을 것 같다.

答 원래 이 심원사 터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한반도의 한가운데에 속한다. 부근에 ‘한반도의 배꼽’이라는 전곡이 있다. 멀리 삼국시대에는 한강 유역을 선점하기 위해 세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요충지였고, 한국전쟁 때도 격전지였다. 8년 전 당시 주지스님인 세민스님이 불사 전에 대웅전 앞에서 전국의 1만 여 불자들이 참가하는 ‘6·25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성대하게 봉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그 위령대재에는 한국전쟁 때 산화한 1군과 3군의 20만 장병 명단을 입수해 일일이 위패를 써서 모셨고, 외국인 전몰장병의 영가까지 천도하는 등 지극정성을 다했다.

問 이 절은 한국 제일의 ‘생지장보살’ 성지인 만큼 그 역사도 깊다.

答 이 원심원사는 한마디로 1,300년의 역사를 가진 역대 고승들의 교육 도량이었다. 신라시대 때 영원조사가 처음 영주산에 ‘홍림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했지만 두 번이나 불타버렸는데, 조선시대 때 무학대사가 삼창하면서 산 이름도 보개산(寶蓋山)으로 바꾸고, 절 이름도 심원사로 바꿨다. 또 임진왜란 때와 순종 때도 병화로 소실되었다. 그 전에는 250칸의 당우와 12개의 부속 암자, 1,609위의 불상, 32위의 탕화, 탑 2기 등을 갖추고 있어서 대찰의 위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뒤 1939년까지 일부 당우를 복원하고 천불전을 조성하는 등 불사가 속속 진행됐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인 백용성 스님을 비롯해 전 조계종 종정 서암·월하스님, 전 태고종 종정 안덕암 스님 등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호국불교의 요람이었다. 그런 만큼 세민스님도 이 원심원사 복원에 더욱 공을 들였을 것이다. 게다가 그 위치가 호국영령과 전몰장병을 위안하기에 최적인데다 과거 보개산이라는 명산의 정기가 서린 한국 최고의 지장 성지라 수행과 기도의 영험이 컸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問 한국전쟁 이후 절이 폐허로 변하고 군사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었다.

答 그렇다. 휴전 이후 이 절터는 국유지가 돼 육군 5사단 포병대대 내로 편입되었다. 그래서 휴전선이 그어진 2년 후인 1955년에 당시 주지인 김상기 스님이 강원도 철원에 새로 절을 짓고 이름도 ‘심원사’로 지었다. 말하자면 폐사지로 변한 옛 심원사의 포교당격인 신심원사(新深源寺)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자리를 되찾아 복원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지속됐다. 그래서 1997년에 영도스님이 국유지로 변한 원래의 심원사 전체 250만 평을 5년간의 긴 소송으로 되찾았다. 250만 평이면 여의도의 세 배가 넘는다. 그리고 2003년에는 경기도와 연천군의 지원으로 이 옛터를 발굴해 본당인 천불전(극락보전)부터 복원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찰 명칭은 같은 교구(제3교구) 내에선 중복해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원래의 심원사’라는 뜻에서 원심원사(元深源寺)로 지은 것이다.

問 이 절이 한 때 대사찰의 면모를 갖춘 것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왕사인 무학대사의 힘이 큰 듯하다.

答 양주 회암사를 근거지로 활동하던 무학대사가 이 절에 주석하면서부터 사세가 크게 번창한 게 사실이다. 당시 화재로 소실된 절을 재건해 왕의 처소로 사용했고 귀빈용인 분청자기와 청화백자도 대량 발굴되었다. 또 저 위의 석대암(石臺庵)은 철종 때 왕실의 내탕금으로 중건한 것이다.

問 그런데 원심원사 창건 시기가 문헌마다 다르다. 1942년 일제 때 나온 <심원사지>에는 신라 진덕여왕 원년(647)에 영원조사가 창건했고, 석대암은 성덕왕 때(720) 이순석이 창건했다고 나온다. 그러나 고려시대 충렬왕 때(1307) 펴낸 민지(1248~1326)의 <보개산 석대기>에는 설화만 나올 뿐 구체적인 창건 기록은 없다. 혹 원심원사 폐사지 발굴 때 나온 가장 오래된 유물로는 어떤 게 있었는가.

答 일회문 막새와 단판연화문 막새가 나왔다. 이 막새들은 고려시대 초기의 유물이고 아직 신라시대의 유물이 출토된 적은 없다.

問 그럼 신라 때의 창건주인 영원조사의 실체에 대해서는 <심원사지> 문헌 외에 알려진 기록은 없는가.

答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지만 계속 문헌을 찾고 있다.



정오스님과 차담을 나누고 석대암을 오르려는데, 스님이 길이 멀고 위험하니 ‘힘이 강한 것’으로 직접 안내하겠다고 했다. 스님은 손수 작은 타이탄트럭을 운전했다. 연천군의 최고봉인 보개산 지장봉(877.2미터) 가는 길은 스님 말처럼 가파르고 위험했다. 타이탄트럭도 버거운지 연신 비명을 질렀다. 절골의 울창한 숲과 골짜기마다 작은 폭포와 소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문득 이곳 지명인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内山理)가 스친다. 내산의 산내산(山内山)은 ‘산 속의 산’이다. 임궽정과 궁예가 큰 뜻을 품고 활동했다는 보개산의 형세가 첩첩산중이라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멀게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오비이락)’는 속담의 탄생지이고, 가깝게는 광복 3일 전에 8·15 해방과 남북분단을 예견한, 소위 두 줄기 빛인 쌍광방(雙放光)이 쏟아진 곳이라고도 한다. 고려 말 목은 이색도 “보개산 지장보살 석상의 상서로운 감응은 세상이 모두 아는 바”(〈보개산 석대암 지장전기〉)라고 했다. 전국 사찰 기행을 하다보면 이처럼 ‘근거 없는’ 신비한 현상들이 절간의 부처만큼 널리고 널렸다. 절간에 부처의 진짜 사리와 유골이 묻혀 있어 불상 자리가 텅 빈 5대 적멸보궁도 마찬가지다. 전부 시쳇말로 ‘기도빨’을 띄우기 위한 상징이자 ‘단청’이다. 난 불교신자도 아니지만 내 마음은 늘 텅 비어 있다. 이 석대암에도 그런 단청을 한 금뿔돼지와 사냥꾼이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배경은 이 절터의 작은 우물이다.

생지장보살의 전설을 간직한 원심원사 석대암

마침내 ‘힘이 강한 것’이 보개산 8부 능선에서 비명을 멈췄다. 석대암 도착이었고 젊은 스님(경담스님) 한 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내 눈을 의심케 한 것은 식물 모종 하우스 같은 단층의 사면 유리 건물이었다. ‘생지장보살의 성지’인 그 법당이다. 굳이 추사의 세한도처럼 고졸한 분위기의 암자까지 기대한 것은 아니다. 한번 아닌 건 내 유골이 강물에 뿌려져 40리쯤 떠내려 갈 때까지 봐도 아니다. 40리는 내어릴 때 매일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갔던 시골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다. 무엇에 연연한지는 모르나 폐사지에 급조한 티가 역력하다. “이 건물을 지으려고 기자재를 실은 헬기가 50번이나 날아왔다”는 정오스님의 말도 무색하게 들린다. 이런 ‘복원’이라면 차라리 폐사지 그대로 보존하는 게 더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모두 ‘지장보살 성지’라는 브랜드 만들기에 조금한 결과일 것이다. 절 뒤쪽의 쓰러질 듯이 기운 영험비와 돌탑 수행 굴들을 둘러보면서도 내가 연신 고개를 가웃거리자 주지스님이 슬쩍 말을 흘린다. “다시 제대로 지어야 하는데…”

하얀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유리 건물 앞의 작은 마당과 돌탑 주변은 온통 부서진 기와 조각들이었다. 두 스님이 기와 조각들을 유물감정사처럼 살살 어루만지며 한참 설명을 한다. 저 조각들의 DNA를 분석하다보면 혹 이 암자가 창건됐다는 신라 성덕왕 시대의 유물로 판명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아직까지는 원심원사도 이 석대암도 신라 때 창건됐다고 고증할만한 확실한 기록이 없다.



갑자기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경담스님이
‘유리 건물’ 모퉁이의 우물로 안내했다. 이 우물이
바로 ‘사냥꾼과 금멧돼지’ 설화의 배경인 듯했다.
살을 발라낸 창건 설화의 뼈는 간단하다. 이순석
이라는 사냥꾼이 금멧돼지를 발견해 활을 쏘자
피를 흘리며 달아나던 돼지가 쓰러진 곳이 바로
이 우물이었다. 그런데 금멧돼지 대신 왼쪽 어깨에
화살이 박힌 지장보살 석상이 있어서 화살을
뽑으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대경실색해
용서를 빈 이순석은 내일도 여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대오각성하고 출가하겠다고 맹세했다. 역시
다음날도 석상은 화살이 박힌 채 가만히 있어서
이순석은 바로 머리 깎고 300여 명의 추종자와
암자를 창건해 득도했다. 물론 돌로 지은 암자
이름은 석대암이고 법당에 모신 것도 우물 속의
그 지장보살 석상이었다.

이 얘기는 민지의 〈보개산 석대기〉에 나온다.
한마디로 지장보살이 금멧돼지로 변신해 살생하는
인간을 구제한다는 얘기다. 문득 남북한 군인들을
서로 분리시키기도 하고 결합시키기도 하는
〈웰컴투 동막골〉 속의 ‘멧돼지 사냥’ 장면이 떠오른다.
지장보살은 고통 받는 중생이 없어져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가장 민중적인
보살이다. 지옥은 죄인이 벌 받는 곳인데, 그 죄를
대신 다 짊어지겠다는 것이다. 영화 속의 멧돼지도
죄를 짊어지고 숨 가쁘게 도망 다닌다. 살생해서
잡아먹어봤자 잠시 배부르고 또 잡아야 한다.
이데올로기가 그렇다. 인간의 부질없는 추적은
계속되고 멧돼지라는 이데올로기는 본의 아니게
숨 가쁘기만 하다. 그래서 석대암의 멧돼지와 영화
속의 멧돼지는 서로 ‘도플갱어’다. 이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나비밖에 없다. 오늘 내가 본 수많은
나비들은 〈웰컴투 동막골〉 영화 속의 나비들이다.
그 나비들이 계속 나를 따라온 것이라고 난
의도적으로 착각한다.





한 농부의 호기심이 찾아낸 전설 속 폐사지

그런데 현재 진품 지장보살 석상은 엉뚱하게도 강원도 철원의 심원사 명주전에 있다. 한국전쟁으로 석대암이 불탔을 때 행방불명됐다가 나타나 그쪽으로 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원심원사와 석대암 법당에는 모조 석상과 진품의 사진만 남아 그 풍경이 처연하기 이를 데 없다. 석대암의 풍광을 7언율시로 읊은 매월당 김시습의 표현이 애잔하게 들리는 것도 그 탓이리라.

넝쿨 쥐고 절벽 잡으며
바람 찬 천제(天梯)에 오르니
암자 옛 뜨락 소나무에는
학 한 마리 등지를 틀었구나.
숲 아래 경쇠소리는
바람 저편에서 애절하고
서쪽 봉우리의 남은 해는
찬 시내로 떨어지는구나.

실제로 석대암 뒤편 환희봉 정상으로 뻗은 수많은 능선의 봉우리들이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天梯)’ 같기도 하다. 또 석대암은 예로부터 바람이 심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 깊고 외진 골짜기의 석대암 폐사지는 어떻게 발견되었을까. 한국전쟁 땀 불타버리고 휴전 이후엔 민간인통제의 군사보호구역이 아니었던가.

“어릴 때 동네 사랑방에서 어른들의 얘기를 들었다. 지장보살 전설이 담긴 석대암이라는 빈 절터가 보개산 절골 골짜기 어딘가에 있다고.”

보개산 자락에 살고 있던 한 농사꾼이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그 암자 터를 찾아 나섰다. 민간인통제를 뚫으며 유실된 지뢰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탐험한 끝에 1984년 마침내 발견했다. 지장보살의 성지를 한 농사꾼이 찾아낸 것이다. 그는 이때부터 문화유산답사를 평생의 업으로 삼아 지금은 현강문화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우형 씨다.

저녁 무렵, 난 강원도 철원의 심원사로 갔다. 문제의 그 지장보살 석상 ‘진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심원사 대웅전은 텅 비어 있고 바로 옆 명주전은 참배객들로 만원이다. 다시 시냇말로 ‘기도빨’이 대박을 터뜨린 듯하다.

명주전에는 과연 석대암처럼 모조품과 사진이 아니라 그 진품이 있었다. 높이 63센티미터, 좌폭 43센티미터 아담한 크기이고, 왼손에 구슬을 받들었다. 사냥꾼 이순석이 쏘았다는 왼쪽 어깨를 자세히 보니 화살맞은 상처자국이 뚜렷하다. “좌측 어깨에 길이 한 치 정도의 비긴 흔적이 있으며, 이것은 창건 당시 이순석이 쏜 화살맞은 흔적”이라는 고려시대〈보개산 석대가〉의 기록과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전체 석상의 색깔과 빛깔이 ‘청흑색’이라는〈보개산 석대가〉기록과는 달리 마치 최근에 만든 것처럼 하얗다. 진품이 ‘진짜’ 진품인지, 또 고개가 가웃거려진다. 이번 산사기행은 여러 모로 고개가 많이 아프다.

돌아오는 길, 갈 때 본 그 길과 들판이다. 어제보다 논물이 더 깊어졌다. 나비들의 나는 자세도 더 낮아졌다. 모든 것은 낮은 자리로 돌아간다. ㅁ



늙은 군인을 만났다

연천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이 터지던 그날 부친을 잃었다는 팔순 노인은 낡은 지갑 속에 지금도 아버지 사진을 넣어다닌다. 그는 군속으로 있으며 겪었던 한국전쟁과 듣느니 처음인 ‘삼팔무역’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군대가 의무가 아니라 30년 직장이었던 또다른 누군가는 정말이지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라는 노래 가사의 주인공 같았다.

글과 사진 이지누
사진가

서승후 씨 이야기

아이스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냉커피가 제격이었다. 벽에는 헐벗은 아가씨가 대책 없는 포즈를 취한 사진이 걸렸고, 마담 언니와 함께 앉은 중늬은이는 선글라스 뒤에 숨어 이방인 같은 나를 경계하듯 목소리를 낮췄다. 다방에 낮게 깔린 미묘한 기류는 낮익은 이가 들어서며 흩어졌다. 그이는 1936년 초성리에서 태어난 서승후 였다. 이미 전곡에 있는 참전유공자회 사무실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는 그는 앉자마자 다 헤진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다.

“이게, 우리 부친이고, 요기 요 학생이 나야. 전에 왜 말했잖아 6·25사변 났을 때 미군 공병대 군속으로 일했었다고, 그 무렵에 찍은 건데 1951년 4월이었지 아마, 그때 여기 있던 미군부대에서 통역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 이름은 지금 모르겠고 성이 박씨야. 그래서 사람들이 박통역, 박통역 그랬다고. 그 사람 따라서 미군 36전투공병단 수송부에 가서 일했지, 쉽게 말하면 군속이야. 미군부대서 일하는 한국 노무자. 그런 거라도 해야지 그때는 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어. 난리 통에 뭐 있나. 그래도 내가 덩치가 좋아서 그 나이에 그런 일이라도 해서 배를 굶지 않은 거야. 그러다 전쟁 막판에는 노르웨이 부대로 가서 1953년 7월까지 있다가 나왔지. 그런데 거기서도 군인은 아니었어. 말 그대로 노무자지. 그래서 휴전되고 다시 군대를 갔다가 25사단에서 제대했지. 그런데 말야. 내가 군속으로 가기 전이야. 그때 마을에 치안대라는 것이 있었어. 사변 날 때 여기는 미군이 지켰고, 강 건너 전곡은 소련군이 지켰다 말이야. 그런데 순식간에 인민군이 서울로 밀고 내려갔다가 다시 9·28 수복이 됐다 말이지, 그때 서울에서부터 여기 초성리까지는 국군도 없고 인민군도 없이 된 거야. 마을 사람들은 절골이라는 골짜기에 모두 숨어 있고, 치안대들이 마을 순찰을 돌았는데 소년 치안대였던 내가 순찰할 때 평양시 인민군 부위원장이라는 놈이 도망가다가 나한테 붙잡힌 거야. 잡고 보니 이 사람이 배가 고프다잖아, 그러니 어떡해 뱉어야지. 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총은 내가 뺏고 밥 뱉어서 보냈지. 아무리 북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동포잖아 그러니 어떡해. 전쟁 때 그런 일도 있었어.”



그이와 30분 남짓 나눈 이야기는 아득하여 손에 잘 잡히지 않았다. 초성리에서 전곡으로 한탄강을 건너는데 징검다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며, 일제강점기에는 아침이면 전곡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줄을 서서 건너던 학생여울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었다. 또 해방이 되면서 전곡에는 소련군이 초성리에는 미군이 들어 온 이야기는 더욱 극적이다.

“해방 되고 난 담에도 1948년도까지는 이쪽 저쪽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왕래를 했어. 그때 의정부 동두천 다 전기가 없었는데 전곡에만 전기가 들어왔다 말이야, 마을이 크지는 않아도 금강산 전기를 땄겨서 불을 밝힌 거야. 여기에 놀미라고 있어, 거기가 원산하고 서울하고 반정이야. 중간이라는 말이지. 그래 장꾼들이 원산에서 바다 것들, 건어물이나 생물 생선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파는데 장이 대단했었어. 그런데 해방이 되고 삼팔선으로 갈려 버려서 서로 출입이 제한되니까 장이 시들하잖아. 그러니까 인제 마을 사람들이 장을 또 벌렸지. 장이래야 말이 장이지, 겨우 물물교환 정도였는데 거간꾼이 있었어. 저쪽은 소련이고 이쪽은 미군이니까 그것을 중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쪽 사정에 밝은 사람이 왔다, 갔다하며 중재해서 난장을 만든 거야.”

접경지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혹시 그때 사진들은 없냐고 물으니 홍수 이야기를 꺼냈다. 사진들이 있긴 했는데 한탄강 결 강마을에서 산 탓에 몇 차례의 홍수를 겪으며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당신 생애 두어 차례 큰 홍수에 휩쓸려 겨우 몸만 빠져 나왔다니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그 난장과도 같은 물물교환 장터에서는 어떤 것들이 거래가 됐는지도 궁금했다.

“그때 그거를 우리는 삼팔무역이라고 했어, 삼팔선을 넘어서 장사를 한다 이거지. 그때 소련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미군을 앞세워가고 그랬어, 군인들이 앞을 봐 준 거지. 그때 북쪽에서 주로 가져 오는 거는 북어, 오징어, 인견사, 한약재 이런 거야. 원산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 장꾼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이쪽에서는 주로 전기 다마, 싸지 쓰봉, 도꾸리샤쓰 같은 거 또 약재 같은 거 다이아짱, 페니실링, 아까징끼 이런 게 많았어. 그리고 아까 거간꾼 같이 난장을 중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중간첩들이야. 이쪽 다니면서 중재한다고 하면서 정보를 팔고 저쪽 가서도 그랬던 거지, 그래 들통이 나는 바람에 잡혀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 양쪽을 왔다, 갔다하니까 그리 될 밖에 없는 거지.”

전기 다마는 백열등을 말하는 것이고, 싸지 쓰봉은 영어와 불어 그리고 일어의 조합이다. 싸지는 미군들의 계급 중 하사관을 일컫는 서전트(sergeant)를 말하는 것이고, 쓰봉은 불어로 양복 바지를 뜻하는 즈봉(jupon)이 일본으로 건너가 즈봉(ズボン)이 되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쓰봉 혹은 쓰봉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싸지 쓰봉은 미군들이 입는 군용 바지를 뜻한다. 또 도꾸리샤쓰는 목이 긴 셔츠다. 이것도 미군들이 입던 것으로 도꾸리(德利, トックリ)는 입구가 좁고 긴 술병을 뜻하며, 샤쓰(シャツ)는 셔츠의 일본식 발음이다. 또 다이아짱은 미국에서 들어 온 다이아진(diazine)의 일본식 발음이다. 그 약은 각종 세균성 질환에는 특효로 소문났던 만병통치약으로 누런 가루로 되어 있었다. 페니실링은 페니실린이며, 아까징끼는 빨간약인 머큐로크롬(mercurochrome)의 일본식 조어이다.



박철주 씨 이야기

곧 80세가 되는 서승후 씨가 내 놓은 일제강점기의 말들을 되새기다 보니 어느새 신서면 자치센터 서예교실 앞이었다. 이곳에서, 1955년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서 태어나 직업군인으로 연천에서 장기 복무를 하고 전역한 박철주 씨를 만나기로 했다. 요즈음 붓글씨에 빠져있는 그가 글씨를 쓰다 만 테이블을 정리하고 주섬주섬 부탁했던 사진을 펼쳐 놓았다. 그 중 퍼뜩 눈에 띄는 것은 정복을 입고 사단장과 악수를 하는 사진이었다. 정복의 오른쪽 소매 끝단으로부터 팔뚝까지 굵은 금테가 마치 계급장처럼 수놓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소매에 금테 줄, 이게 뭐니까.” “아, 그거요. 이 사진이 전역하던 날인데 사단장에게 전역 신고를 하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치하 받는 거예요. 소매의 줄은, 그거 한번 세 보세요.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아홉 줄이고, 저는 열두 줄 일겁니다. 그 줄 하나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줄 하나를 3년씩 계산해서 저는 36년, 옆에 있는 사람은 27년 동안 군대에 복무했다는 연수를 표시한 거죠. 그런데 저는 1976년에 입대해서 2010년에 전역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4년 6개월 근무했는데 줄이 열두 개인 것은 반올림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중간에 1년짜리 줄이나 2년짜리 줄을 또 만들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그가 군에서 지낸 날은 모두 12,500일이다. 하지만 그도 처음엔 장기복무를 생각지 않고 사병으로 입대했다. 그러다 제대를 앞 둔 1978년, 갈등 끝에 장기복무를 선택했다. 마침 그 무렵 근무하던 부대가 경기도 양평에서 연천으로 옮겨오면서 최전방 GOP 근무를 비롯하여 부대 안살림까지 해 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고 물었더니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는다.

“가장 힘들었을 때가 뭐냐 하면은 전우 잃었을 때거든요. 제가 1983년도에 전방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었어요. 그때 애들 둘이 작전 중에 지뢰를 밟아서 죽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대인지뢰는 밟으면 지뢰가 1미터 이상 도약을 해서 공중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남을 수가 없지요. 오래 된 것이라 1미터까지 도약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둘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시신이 만신창이가 돼서 너털너털했어요. 그래 그걸 들춰 업고 나왔는데 죽은 장병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 후에 많이 힘들었어요. 요새 말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그런 거였던 가 봐요. 그때 본 장병들 시신 생각이 나서 피나 붉은 색도 제대로 못 봤고, 시내에 있는 정육점 근처도 못 갔단 말예요. 멀리 정육점이 보이면 빙 돌아서 다니고 그랬지요. 심지어 고기도 못 먹었으니까 상태가 심각했죠.”







또 한 때는 부대의 군용지 관리를 맡았는데 그때가 한참 민통선과 비무장지대 쪽의 부동산 구매 열풍이 불 때였다. 당시 접경지역에는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군사 작전 지역이나 비무장지대의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한동안 그들을 말리느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며 웃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중형무진하며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랬을까. 군대에 다녀 온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는 요령 이라고 입을 모으는데 말이다.

“저는 단 한 차례도 내게 떨어진 임무를 못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임무가 주어지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해결했죠. 그러나 그 일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나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전문가라고 생각했죠. 누구나 하면 되는데 시작을 안 하는 것뿐이라 말예요. 그래서 늘 임무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지 단 한번도 그 임무를 모면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일을 피한다고 일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 거든요. 내가 하지 않으면 전우 중에 누군가가 대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무를 받고난 다음 그게 어떤 임무였어도 두려운 적이 없었어요. 또 해보니까 다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임무를 쫓을 때 ‘아,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인간형일까, 아니면 고지식하기 짝이 없는 것일까. 둘 다 아니더라도 상명하복의 군대 사회에서는 가장 요구되는 인간형이지 않았을까. 그런 그가 전역 후 맞닥뜨린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가장 힘든 부분들이 약속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군대에서는 자기가 말을 하면 지켜야 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 편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자기가 만나자 해 놓고 나는 한 10분 전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아, 미안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이래요. 참, 적응이 안 됐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었죠. 점심 약속 같은 거 말입니다. 군대는 점심시간이 칼같이 12시 아닙니까. 이젠 10분만 늦어도 난리가 나요. 그게 버릇이 돼서 저는 12시에 맞춰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시에도 먹고 두 시에도 먹고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자기 일이 바빠면 왜 이리 빨리 오고 그러냐고 하니까 답답했죠. 불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는 지금 활발하다. 좌충우돌, 사회 초년생과도 같지만 늙은 군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활발한 사회인으로 중형무진이다. 군 생활 막바지에 야간 대학에 진학하여 못다 이뤘던 학업의 꿈도 이뤘고, 효행지도사로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군대에서 몸에 밴 고지식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싶다. 고지식하다는 것이 나쁜 것일까. 결코 아니다. 오히려 결눈 팔지 못하는 순수함을 말하는 것 아닌가.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혼을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이며, 여전히 스스로에게 주어진 삶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군인이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 그를 만나고 비로소 깨달았다. ■

Pick Up
부대에서 찾은 연천의 색



군인들의 전투 식량

스타일링 김정민 (더스타일링그룹) 사진 문성진 (아인스튜디오) 촬영 협조 육군 제5보병사단

경계 근무 풍경은 이런 게 아닐까, 상상해보며





PX 제품으로 차린 꽃밭 위의 만찬. 사병들에게는 가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화생방 훈련 때 쓰는 방독면은 꼭 스타워즈에 나오는 가면 같고,
요즘 '쌀진빵' 안에 든 별사탕은 별 모양이 아니다.



LS네트웍스는 LS용산타워
2층에 앤티크 자전거 전시 공간
「두바퀴 Bicycle Galler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원형인 '드라이지네', 최초의 페달
자전거인 '미쇼 벨로시페드' 등
20여 점의 앤티크 자전거와 관련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으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관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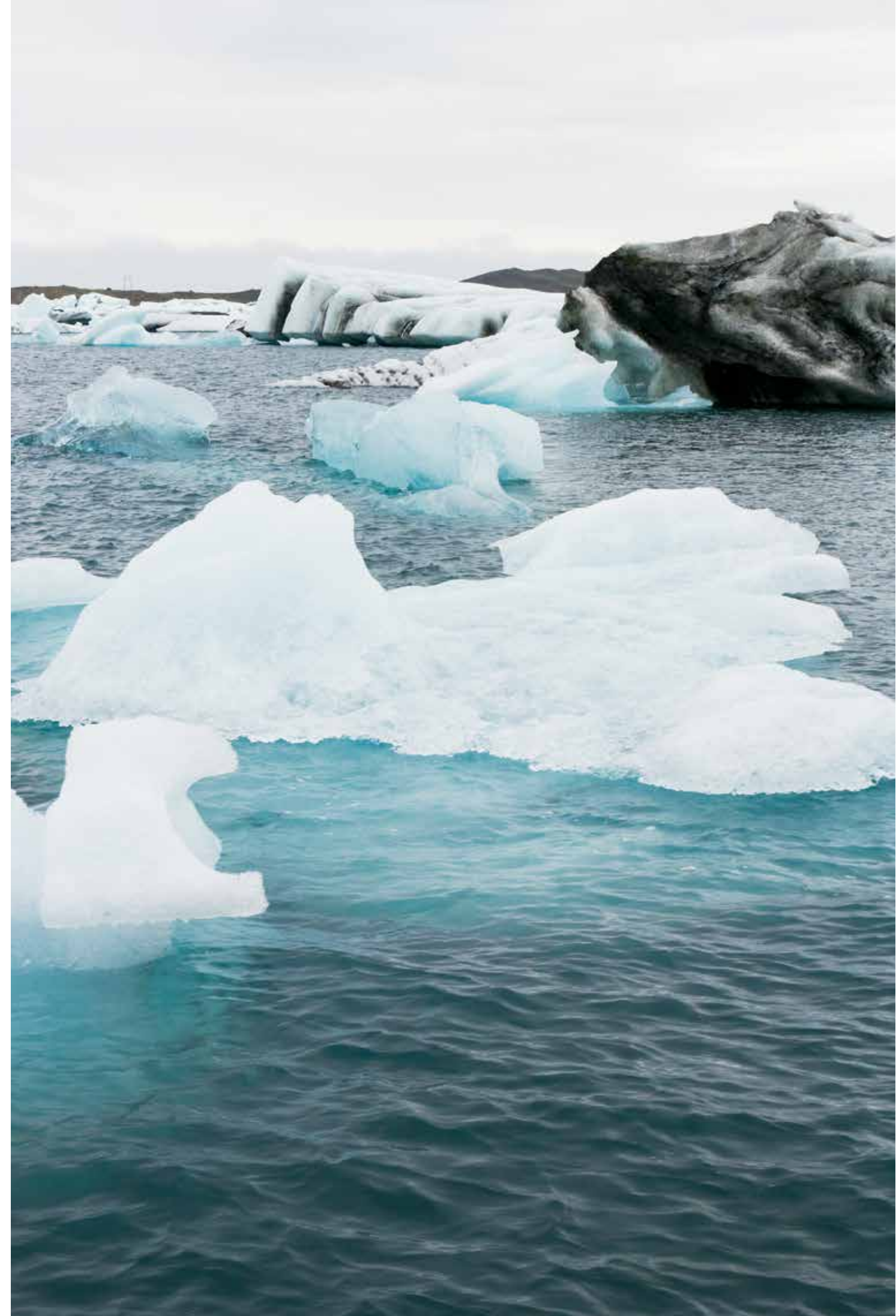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LS용산타워 2층

교통: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월~금)

문의: 02-799-7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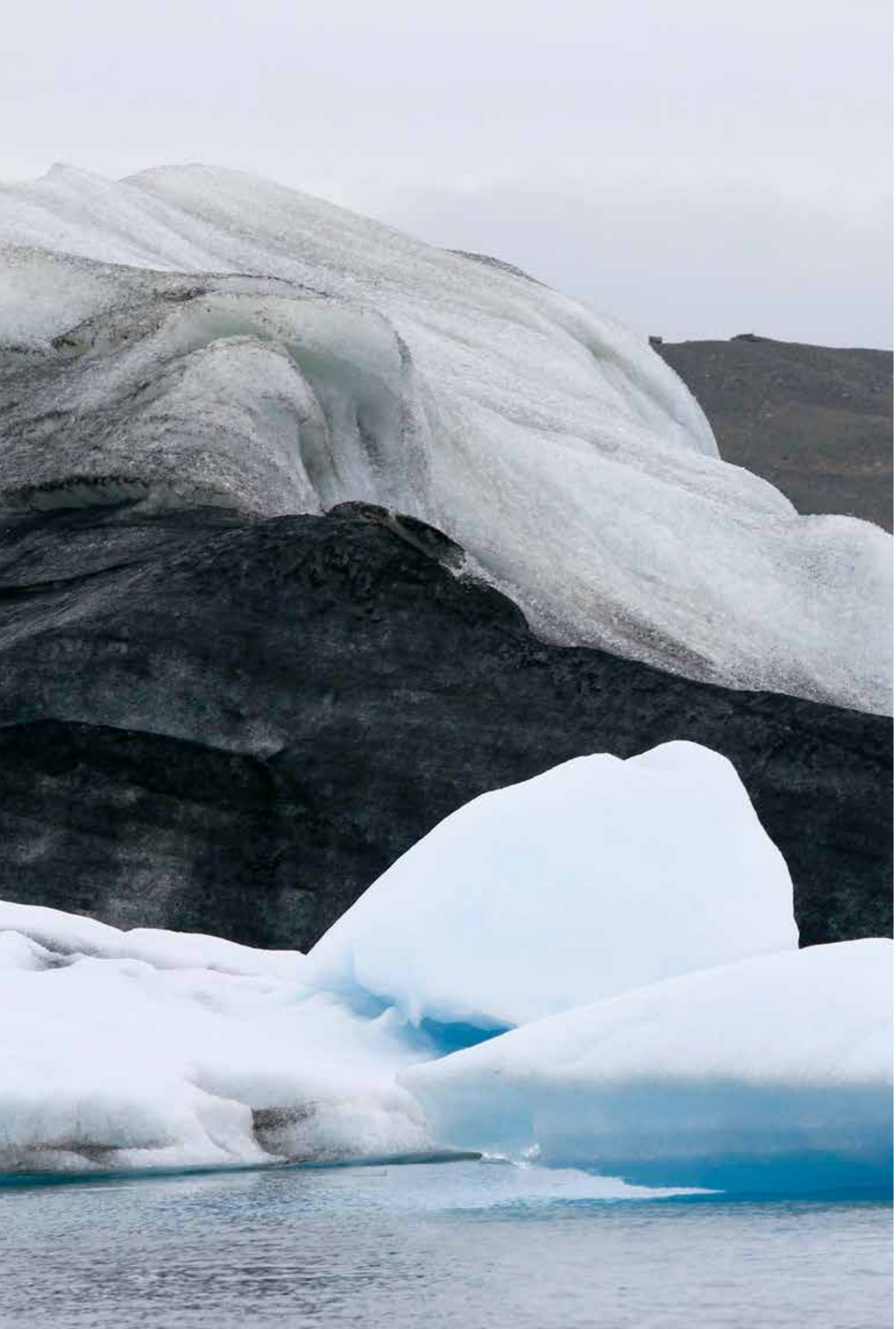


Photo © Park Jeongh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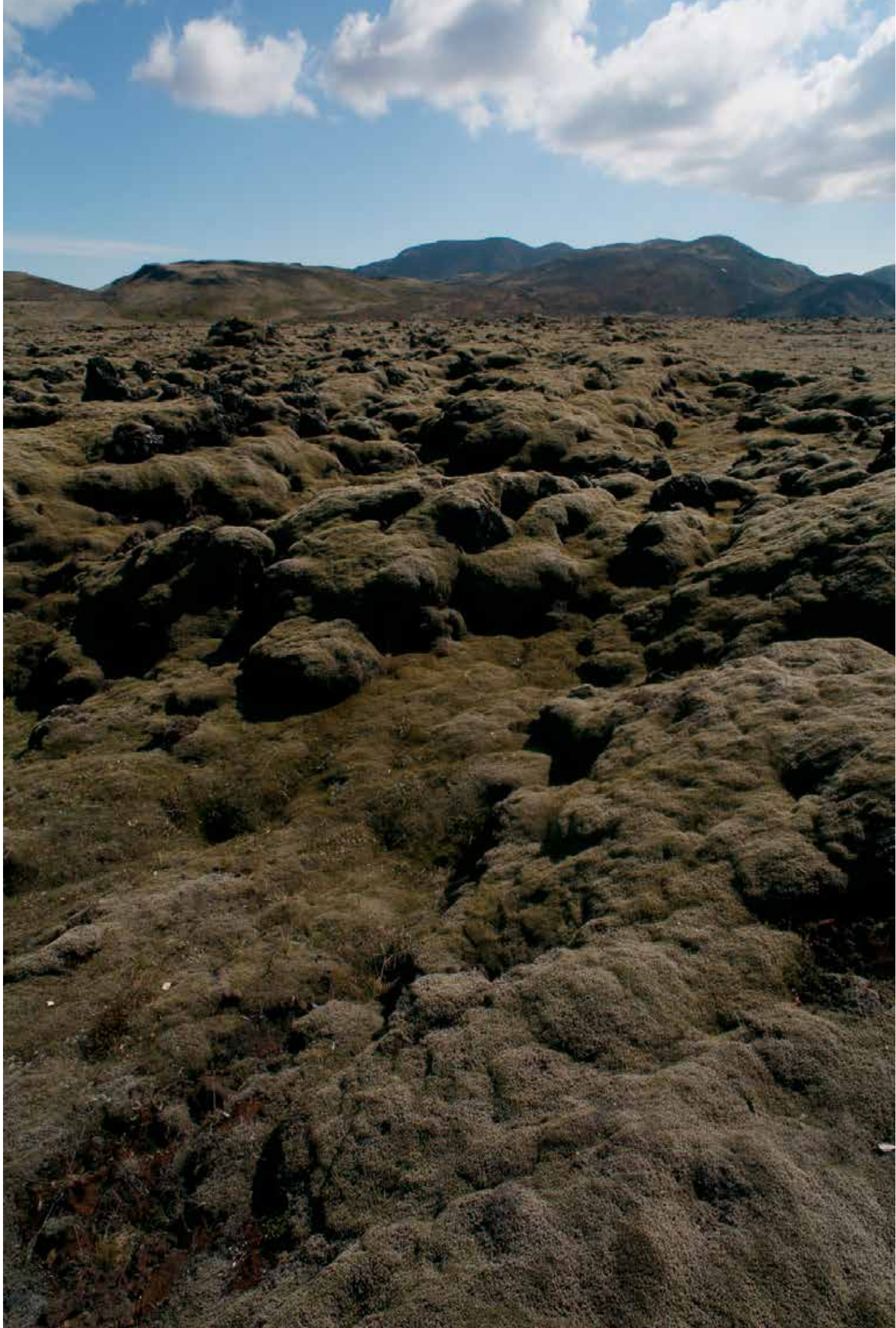


Photo © Park Jeonghoon



Photo © Park Jeonghoon



Photo © Park Jeonghoon



Photo © Choi Myungae



Photo © Park Jeongh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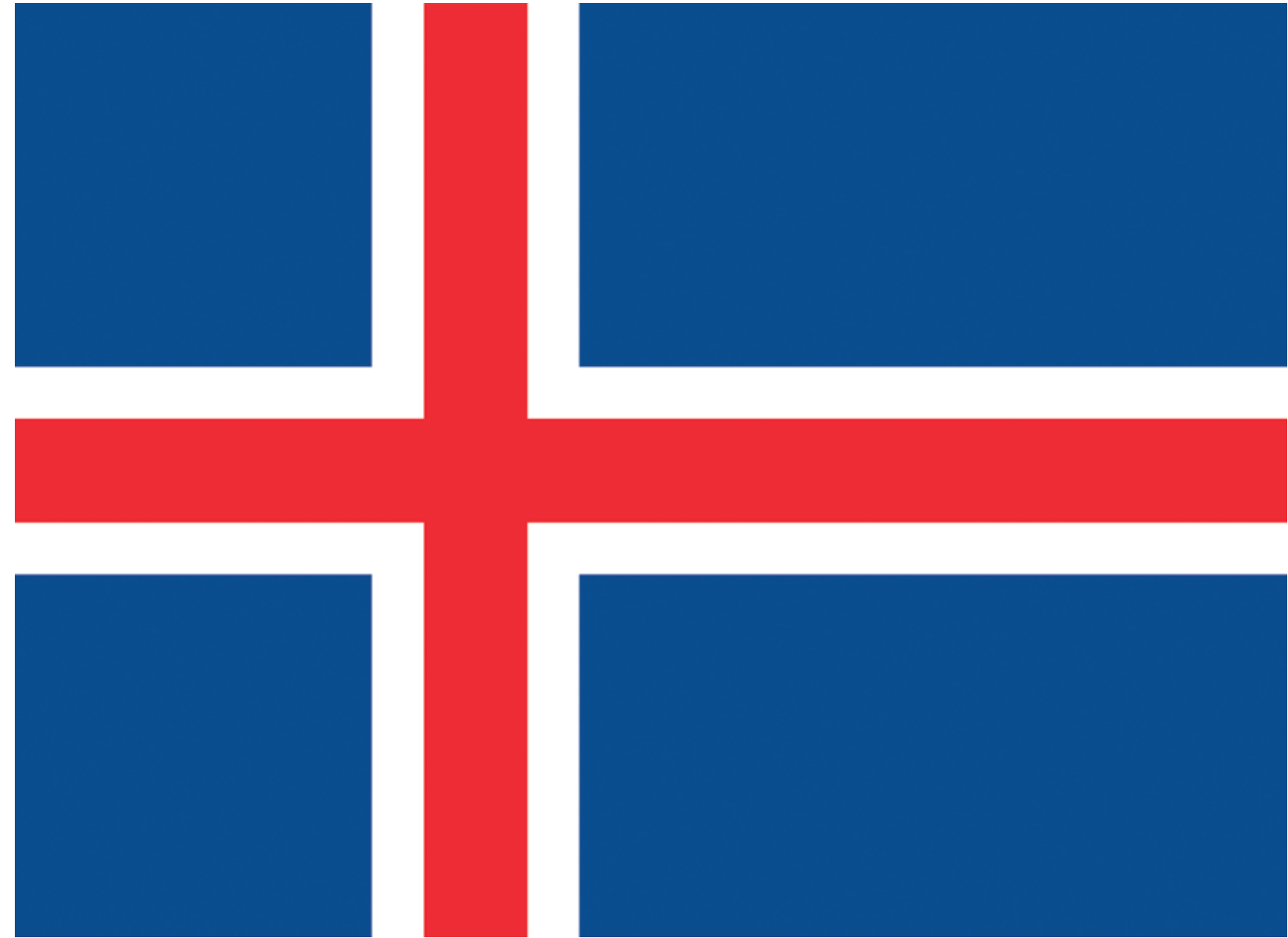
Photo © Park Jeonghoon



Photo © Park Jeonghoon



Photo © Park Jeonghoon



ÍSLANDS

What do you do?

I am a politician and I do Music.

아이슬란드인에게 직업을 물으면 때때로 이런 답이 돌아온다. “저는 회사원이고 음악을 합니다.” “전 양을 키우고 음악을 합니다.” “전 정치인이고 음악을 합니다.” 자유로운 만큼 불안하고 아름다운 만큼 외로운 땅 아이슬란드에서 음악은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생존 신호 같은 것이다. 다큐 〈천 개의 레이블: 아이슬란드 팝 기행〉으로 미리 만나본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마 거의 아는 게 없을 겁니다. 우선 이 나라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시험에 문제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게다가 유명인이라곤 포스트 펑크 음악의 디바라고 불리는 비외르크(Björk)가 전부지요. 하지만 그녀는 뉴욕에서 활동 중이라 아이슬란드를 떠난 지 오래입니다. 물론 좀 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몽환적인 비트와 거의 슬로우 모션처럼 진행되는 기타 코드로 멜랑콜리한 사운드의 풍경화를 들려주는 시구르 로스(Sigur Rós)를 왜 두 번째로 호명하느냐고 불평을 늘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이에요, 당신도 그게 아이슬란드에 대해서 아는 전부잖아요. 물론 좀 더 교양이 있다면 이 나라에 이미 «독립적인 사람들(원제: Sjálfstætt fólk)»이라는 책으로 195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할도르 락스네스(Halldór Laxness)처럼 훌륭한 소설가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 약 32만 명인 이 나라는 국민 열 명 중 한 명이 자기 이름을 낸 책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아일랜드의 더블린, 영국의 에딘버러, 호주의 멜버른, 미국의 아이오와 시티에 이어서 레이카비크를 ‘세계 문학 창의 도시’로 지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독서열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는, 2008년 금융 위기를 맞은 다음 의회 특별조사 위원회에서 2,000쪽에 달하는 경제 분석 보고서를 출판했는데 그 책이 그해 베스트셀러 명단에 올랐다는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읽은 다음, 추운 나라고 할 일이 없으니 일 년 내내 집에서 책이나 읽고 일기나 쓰는 거겠지 뭐,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 한 편을 소개합니다

첫 장면은 지붕이 보이는 어느집 옥상입니다. 한 사내가 이상하게 생긴 악기를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렉트로니카 사운드 같기도 하고 현대 음악 퍼포먼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전기톱을 활처럼 건드려서 웅웅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쇠로 된 막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명 현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 악기는 원래 도청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진동판이었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사내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고양이와 함께 지나가던 할머니가 유심히 지켜보다가 갑니다. 그리고 해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별난 사람들의 거친 땅, 그건 세계 최대의 화산섬인 아이슬란드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창의적인 예술계가 탄생했고, 그 다양성에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죠.” 그리고 제목이 떠오릅니다. <Polarkreis Rock: Islands Pulsierende Musikszene>. 한국에는 2013년 제10회 EBS 국제다큐영화제(EDIF)에서 ‘천 개의 레이블: 아이슬란드의 팝 기행’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었습니다. 요나스 니비안다와 앙드레 세이퍼 두 사람이 감독한 이 다큐멘터리는 아이슬란드 음악 여행이라고 할 만한 영화입니다. 아마 비외르크나 시구르 로스를 들은 다음 아이슬란드 음악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그건 신비주의로 가득 찬 로큰롤이지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마 이 나라의 신비로운 풍경이 그런 꿈결 같은 인상을 더했을 것입니다. 인터뷰를 하는 내내 보이는 화산과 빙하가 공존하는 기이한 이미지들은 거기서 정말 요정이 나타난다고 해도 믿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인터뷰에 등장한 올라푸르 아르날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이슬란드 음악이 특별하다고들 하는데, 우리의 음악이 빙하와 화산을 상징한다는 건 말의 걸치레일 뿐이지요. 그건 관광청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음악을 하는 나라

우선 깜짝 놀랄 준비부터 하세요. 아이슬란드는 인구 중 절반이 음악 활동을 합니다. 절반이 음악을 들으러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연주를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연주 활동은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상상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요나스와 앙드레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라이브 연주장을 찾아다닙니다. 현악사중주를 연주하는 우아한 무대에서 갑자기 미국 펌프스에서 급방 온 것 같은 촌스러운 복장에 수염까지 기른 아저씨들이 블루스 음악을 관직하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레이 본 스타일의 연주를 하는 이 아저씨들은 무기슨이라는 밴드입니다. 이에 질세라 격렬한 헤비메탈의 강철 노이즈를 토해내는 햄(HAM)이 디트로이트 밴드풍의 질풍노도를 보여줍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토니크라는 대학생 듀오처럼 보이는 2인조는 턴테이블 앞에서 디제잉 샘플링을 하면서 마치 프렌치 듀오 에어 같은 일렉트로니카 사운드의 풍경화를 펼쳐 보입니다. 여긴 뉴욕이 아니라 인구 11만 명이 사는 작은 도시 레이캬비크입니다.

겉보기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에이나르 오르 베네딕슨은 직업이 정치인이자 음악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겹직이죠.

“우리는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음악은 메시지이자 마사지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두뇌가 마사지를 받는 거지요.” 마치 미디어 비평가 마살 맥루한이 눈앞에 나타난 것만 같은 이 대답이 끝나자마자 고스티지털이라는 그룹이 피를 토하는 듯한 보컬로 말 그대로 ‘죽이는’ 라이브를 보여줍니다. 전 그만 레이저 어게인스트 머신이 투어 공연을 온 줄 알았단니까요. 말하자면 인구의 절반이 메시지의 전도사이자 두뇌 마사지 전문가들인 셈입니다.

이 영화에는 유명한 삼인조 밴드 FM 벨파스트도 등장합니다. 여성 보컬인 로아와 우연히도 아르니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명의 남자 빌할드손과 루나르 홀로드베손으로 이루어진 이 밴드는 발라드 일렉트로니카풍의 노래를 합니다. 그들은 프로페셔널 밴드라기보다는 마치 취미로 하는 동아리 모임처럼 작곡도 하고 음악 견해도 나누고 새로운 녹음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린 이게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차를 타고 우리는 멀리, 멀리 여행을 떠날 거야.” 아, 아이슬란드에서도 사람들은 멀리 떠나고 싶다고 노래하는군요. 우린 거기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가는데 말입니다.

예술을 하며 자유를 누리는 대가

만일 당신이 새로운 음악에 목말라 있다면 아이슬란드는 보물섬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행 중이라면 레이캬비크 101구역의 클럽에서 생각지도 않은 근사한 무대를 만날 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음악을 들으러 일 년 내내 아이슬란드에 머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아이슬란드 음악을 집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이슬란드 에어웨이브 페스티벌(Iceland Airwaves Festival)을 시작했습니다. 닷새 동안 무려 686개의 무대가 펼쳐지고 유명 밴드를 포함해 거의 모든 아이슬란드 밴드가 총출동하는 축제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명 레코드사 에이전트들도 빛나는 신인을 찾기 위해 매년 이 페스티벌을 찾아오고 또 그들과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는 야심에 찬 신인들도 무대에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잔뜩 버르는 스테이지의 풍년이 매년 펼쳐진다고 합니다. 유명한 음악 잡지 <롤링스톤(Rolling Stone)>은 에어웨이브 페스티벌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hot!) 록페스티벌의 하나로 선정한 지 오래입니다. 올해는 11월 5일부터 9일까지라고 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화끈하고 창조적이며 신비로운, 웅압과도 같은 무대를 만나는 행운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 관광을 위한 화석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서로 경쟁을 하지 않아요. 대다수 밴드들이 스케줄이나 계획을 전혀 짜지 않고 무작정 공연을 한다는 게 문제죠. 여기서 드럼을 치던 연주자가 시간이 되면 저 밴드에 가셔도 연주를 하고, 그러다보니 서로 비슷비슷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천국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한편으로는 아이슬란드 음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기서는 대형 스타가 되어도 고작해야 음반 1,000장이 팔리면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니 대형 음반사가 없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지요. 상업주의와 관계없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음악으로 먹고 살려면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다소 멧쩍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예술적 자유를 누리는 대가이기도 합니다.



Heima © Sigur Rós

아름다운 만큼 외로운 풍경, 그 곳에서 발신하는 S.O.S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에피소드는 온 그나르가 들려 주는 이야기입니다. 온은 원래 배우이자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는 정치 풍자를 위해서 장난으로 ‘최고당 (Best Party)’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인기가 있어서 진짜로 당을 만들어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카비크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시의원인 오타르는 데스메탈을 걸쭉하게 한국 녹음한 다음 올해 예산회의를 하러 시의회에 출근합니다. 그는 밴드 활동을 하던 정신 그대로 자신이 무정부주의자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태도를 정치에 반영하겠다고 맹세하듯이 말합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 그런 걸 재미있게 생각하는 풍토. 정치와 음악이 정말 서로 자리를 바꾸어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



아이슬란드가 원래부터 이렇게 음악 천국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올드 팝 유행가나 따라 불렀습니다. 변화는 1988년부터입니다. 아이슬란드에는 펑크 음악이 다른 나라보다 10년쯤 늦게 상륙했습니다. 레드 제플린처럼 어마어마한 연주나 펑크 플로이드처럼 고상한 프로그레시브에 질린 젊은세대들이 그저 세 개의 코드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음악이야, 라고 선언한 다음 등장한 음악. 그래서 ‘쓰리코드 뮤직’이라고 불린 로큰롤. 비틀즈를 끝대로 만들어버린 섹스 피스톨즈의 혜성 같은 등장과 자살로 막을 내린 유성 같은 소멸. 아이슬란드 젊은이들은 거기서 자신들이 용암이라는 사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에서 음악이 중요한 이유를 가장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장면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음악이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땅이 이렇게 넓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서일 겁니다. 음악은 서로 한데 모여서 놀 수 있도록 하는 중개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아무나 두 사람을 선택해보세요. 이를테면 저하고 (아무나) 다른 사람. 두 사람이 서로 관계가 있을 확률은 100퍼센트입니다. 한 다리 건너 다 아는 사이인 걸요.”

아마 여기에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이 자연을 아름답다고 느끼기보다는 외롭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풍경이 마냥 아름답게 보이는 건 그저 며칠 머무르는 관광객들뿐이겠지요. 거기서 그들이 구경거리의 일부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친구들을 모으고 함께 노래하면서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을 창조하는 것이라는 걸 이들은 스스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슬란드에서 음악은, 지금도 불과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는 수 없는 화산과 한여름에도 칼날처럼 반짝거리는 얼음에 둘러싸인 너무나도 넓고 한적한 이 나라에서 서로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S.O.S.입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구조 신호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천 개의 레이블: 아이슬란드 팝 기행〉
감독: 요나스 니비안다, 앙드레 세이퍼
RBB/ARTE 제작, 2011년, 칼라, HD,
상영 시간 52분

Polarkreis Rock: Islands Pulsierende
Musikszene aka. Le rock venu du
frroid; La folle scène musicale
islandaise(eng title) Pop on the
rocks; Iceland's Vibrant Music Sce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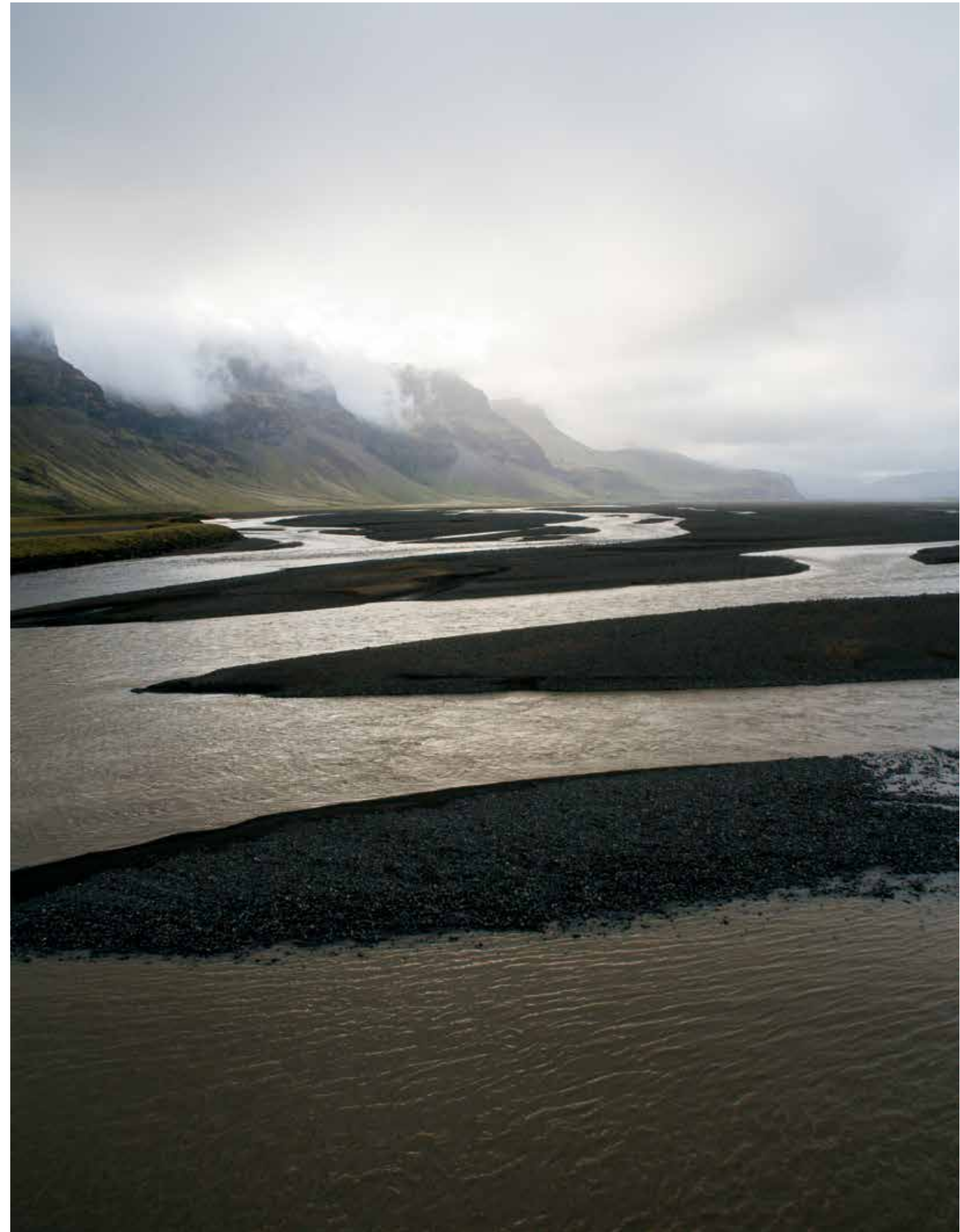
이 영화는 2013년 제10회 EBS 국제
다큐영화제 EIDF(www.eidf.org)에서
〈천 개의 레이블: 아이슬란드의 팝 기행〉
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었습니다.



Have a go!

‘일단 한번 해보지 뭐!’의 정신을 가진 나라

최명애는 한 때 신문
기자였고 지금은 영국에서
지리학을 전공하며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학생이다. 10년 동안 매년
북위 66.5도 안팎 나라들을
다니며 «북극여행자»란
책을 내기도 한 그녀가
네 번째로 아이슬란드를
다녀와 들려주는 ‘내가 자꾸만
아이슬란드로 향하는 이유.’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Iceland)는 북극권 바로 아래, 북위 63~66도에 걸쳐 있는 북대서양의 섬나라다. 남한보다 조금 큰 국토에 고작 32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인구 밀도를 보이며 끝도 없이 계속 되는 황무지와 고원지대가 국토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여전히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북극권 가까이 있어 빙하 흐름도 활발하다. 높은 산 사이로 형성된 빙하(국토의 약 12퍼센트)가 바다를 향해 저지대로 흘러내리지만 이는 멕시코 만류와 섞여 북극권 근처의 다른 나라를 보다 따뜻한 편이다. 그러나 “지금 날씨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15분만 기다려라.”라는 말이 농담이 있을 만큼 기후 변화가 매우 심해서 안개가 끼어 있거나 비 오는 날이 많다. 연평균 강수량은 지역마다 달라서 남쪽 지역은 연중 4,100밀리미터 이상인 반면 중북부 지역은 406밀리미터로 건조하며, 이러한 요소들의 모두 합쳐져 아이슬란드의 극적인 풍광을 만든다.



땅이 보이기 시작하자 나는 창으로 얼굴을 바짝 갖다 댔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아이슬란드는 언제나 경이롭다. 숨 막히게 아름답다거나 벅차오르게 웅장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다. 뭐랄까, 이상하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상한 풍경. 처음 비행기에서 아이슬란드를 내려다 보았을 때 나는, 달나라에 상륙하는 우주인들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을까 생각했다. 석식거리며 김을 내뿜는 땅, 포스터 칼라를 풀어놓은 것 같은 하늘색 강, 잊을만하면 화산이 폭발하고,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땅. 이 광포한 땅에도 사람들이 산다. 약 32만 명, 서울 광진구보다도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남한의 반 만한 크기의 섬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여기서 어떻게 사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왜, 지구 반대편까지 아이슬란드를 찾아가는 걸까.

나는 지난 10여 년 동안 몇 차례 아이슬란드를 드나들었다. 한 해 내내 별려 짧은 여름휴가를 다녀오기도 했고, 운 좋게 값싼 항공권을 구해 다녀오기도 했고, 예정에 없이 찾아온 휴가에 어쩔 줄 몰라 하다 무작정 비행기 표를 찾아보기도 했다. 아이슬란드는 처음 내게, 세상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수도, 그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 레이캬비크(Reykjavík)가 있는 나라였다가, 바이킹의 나라 였다가, 오랫동안 불과 얼음의 나라였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나는 아이슬란드, 라고 말을 하면서 화산과 빙하만이 아니라, 레이캬비크의 서점에서 책을 읽던 사람들의 밝은 금발 머리와, 커피 한 잔을 따라서 불쑥 내밀던 음반 가게 청년의 얼굴과,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웃어야 할 지 모르겠는 아이슬란드 식 유머를 떠올리게 됐다. 왜 아이슬란드를 가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손가락을 꼽아 가며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는 이래서 아이슬란드를 자꾸만 가게 되는 것 같다고.



백야와 오로라

런던을 출발한 비행기가 레이카비크 케플라비크 (Keflavík) 국제 공항에 도착한 것은 자정을 30분 넘긴 무렵이었다. 당혹스럽게도 공항 밖은 아직도, 혹은 벌써, 환했다. 부드러운 분홍빛 햇살 속에서 사람들은 마중 나온 가족과 포옹하고, 짐 가방을 끌고, 자동차와 버스로 향했다. 하지 무렵의 레이카비크는 자정을 갓 넘겨 해가 지고, 새벽 3시가 되기 전에 해가 뜬다. 그러나 수평선 너머로 지고 수평선 위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사실상 어두워지지 않는다. 백야. 해는 막 졌지만 어둠은 아직 내려앉지 않았고, 해가 뜨지는 않았지만 이미 동이 터서 환하게 밝아오는 때. 이 이상한 북국의 밤. 숙소로 돌아가 잠을 청하기엔 밖이 너무 밝고, 돌아다니자니 거리의 인적이 끊어지고, 상점 문도 이미 닫은 시간. 한국으로 치면 오후 7시 30분이 계속되는 기분이었다. 레이카비크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해가 지지만, 아이슬란드 북쪽 끝은 하지 무렵엔 아예 해가 지지 않는다. 레이카비크의 위도는 북위 63.6도. 북위 66.5도의 북극선 이북은 하지 무렵 4주간 해가 지지 않고, 동지 무렵 4주간 해가 뜨지 않는다. 이 북극선은 아이슬란드 북부의 작은 섬 그림세이(Grímsøy)를 지나간다. 그것도 그림세이에 있는 교회 목사님 댁 침대를 정확하게 지나가고 있어서 목사님은 북극선 이북에서, 사모님은 이남에서 주무신다.

한여름 해가 지지 않는다는 건 한겨울엔 해가 뜨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백야가 있는 곳엔 극야, 폴라 나이트(polar night)도 있다. 동지 무렵 레이카비크에는 간신히 세 시간 정도 해가 떠있지만, 그림세이의 목사님 댁 같은 곳은 아예 해가 안 뜬다. 밤만 계속된다는 이야기다. 햇볕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다는데. 거짓말 같지만, 그 이름도 슬픈 SAD (Seasonal Affective Disorder: 계절성 감응 장애) 라는 진짜 병도 있다. 밤만 계속되는 겨울날을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견디는 걸까. “뭐, 책을 많이 읽어요, 아무래도 밤이 기니까. 음악도 듣고.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온천 수영장도 가고.” 레이카비크에서 잡지를 만드는 온 칼달(Jón Kaldal)은 쾌활하게 대답했다. 책, 음악과 함께 술은 아이슬란드라는 심장을 뛰게 하는 혈액이다. 주중에는 한 방울도 입에 안 대다가, 주말이면 새벽까지 들이키는 아이슬란드 ‘폭음’ 문화는 유럽에서도 유명하다.

“그러니까, 평소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극야에도?” “그렇죠. 적응해서 살아왔으니까. 아, 그리고 겨울엔 오로라가 뜨잖아요.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운은 손을 들어 일렁이는 오로라를 그려 보이며 말했다. 지난 겨울엔 유난히 오로라가 자주 떠서, 레이카비크 시내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볼 수 있었다. 여름이라고 해서 오로라가 안 뜨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두워지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레이카비크 시내 오로라 체험관의 ‘오로라 일기예보’에 따르면 6월 9일 오늘의 오로라 강도는 10 만점에 2.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어두워지지 않음”이 붙어 있었다. 6월의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를 만나기는 어려워 보였다. 대신 오로라 체험관에서 지난 몇 년간 아이슬란드 밤하늘을 떠들썩하게 한 오로라 영상들을 봤다. 아이슬란드의 오로라는 화산 위로, 빙하 위로 떠올랐다. 북쪽 하늘에 짙은 회색의 구름 덩어리가 보이면 오로라가 나타난다는 신호다. 구름 덩어리가 천천히 흩어지면서 붉은 장미 빛깔의, 혹은 초록색의 오로라가 하늘을 덮기 시작한다. 몇 해 전 늦여름 아이슬란드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내가 본 것도 초록색 오로라였다. 그 때의 오로라는 저렇게 춤추지는 않았는데, 겨울에 아이슬란드를 다시 와야 할 이유가 생겼다.



Photo © Vilhelm Gunnarsson





Photo © Vilhelm Gunnarsson

화산과 함께 살아가는 법

빠르기도 하다. 레이캬비크 항구의 주말 벵룩시장에는 벌써 “에이아파틀라이외퀴틀(Eyjafjallajökull) 화산 웅암가루를 넣어서 만들었다”는 점시가 나와 있었다. 이 에이아파틀라이외퀴틀은 2010년 4월 폭발해 유럽의 항공을 마비시켰던 바로 그 화산이다. 화산재가 엔진에 들어가면 엔진이 정지돼 대형 항공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 유럽의 비행기 이착륙이 며칠간 중지됐다. 이 초유의 항공 대란을 보도하던 전 세계 미디어는 “도대체 이 화산 이름을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를 놓고 곤란을 겪었다. CNN은 아예 화산 이름을 가지고 뉴스 한 꼭지를 만들었고, 그 해 가을 아이슬란드의 기념품 가게들은 “따라해 보세요! 에이아-파틀라-이외퀴틀. 화산 이름 의뢰로 어렵지 않아요!” 라는 티셔츠도 만들어 팔았다. 에이아 파틀라 이외퀴틀, 에이아 파틀라 이외퀴틀. 여전히 어렵다.

이 화산은 아이슬란드 남부에 있다. 화산 입구에는 농가를 개조해 만든 ‘화산 전시관’도 생겼다. 화산 폭발로 근처 목장들은 피해를 입었지만, 죽거나 다친 사람의 숫자는 놀랍게도 0명. 폭발하는 화산은 에이아파틀라이외퀴틀만이 아니어서, 이듬해에도 근처 그림스뵈튼(Grímsvötn)화산이 폭발했고, 헤클라 같은 큰 화산도 10년 주기로 폭발하고 있다.

심지어 1973년에는 바다 속에서 화산이 폭발해, 물 위로 솟구친 웅암이 마을을 덮친 적도 있다. 에이아파틀라이외퀴틀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베스트 만나에이아르에르(Vestmannaeyjar, 베스트만 섬)가 거기다. 마을의 3분의 1이 웅암 밑에 깔렸는데, 주민 5,000여 명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탈출에 성공했다.

화산이 폭발하고, 폭포가 생겨나고, 땅에서 김이 솟아오르는 이 불가해한 자연.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이슬란드를 “지옥의 입구”로 여겼다. 아이슬란드에 흩어져있는 여러 화산 중에서도 특히 남부의 헤클라(Hekla)를 정확하게 “지옥으로 통하는 문(gateway to hell)”으로 생각해왔다. 헤클라는 1104년 처음 분출해 일대 바이킹 거주 지역을 싹 쓸어버린 뒤, 지금까지 열다섯 번이나 분출해 유럽을 떨게 한 무시무시한 화산이다. 그 헤클라에 지금은 전 세계 트레커들이 찾아온다. 하이킹 여덟 시간이면 정상까지 갈 수 있으니, 지옥은 생각보다 참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 헤클라 만이 아니다. 폭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에이아파틀라이외퀴틀을 걸어서, 혹은 사륜 차량으로 둘러보는 상품도 이미 나왔다. 화산은 빙하와 함께 아이슬란드의 대표 관광 상품이 됐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정녕 화산과 함께 사는 법을 알고 있나보다.



Photo © Vilhelm Gunnarsson



Photo © Vilhelm Gunnarsson





빙하에 서면 물소리가 들려

빙하 투어 가이드인 바네사는 형광 초록빛 플라스틱 테에 ‘Royban’이라고 적힌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왔다고 했다. 보트를 타고 돌아볼 수 있는 이외퀼사우를론(Jökulsárlón)은 아이슬란드 남부에 있는 바트나 빙하(Vatnajökull)의 빙하호다. 바트나 빙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다. 알프스나 노르웨이에도 빙하가 있긴 하지만, 규모 면에서 바트나 빙하와 비교가 안 된다. 이 ‘유럽’ 스케일 빙하를 보러온 관광객들도 주로 유럽인이었다. 수륙양용으로 만들어진 보트가 자갈밭을 툼툼거리며 달리다 빙하호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주섬 주섬 주머니에서 카메라를 꺼내기 시작했다.

빙하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는 처음이었다. 아이슬란드 남동부 대부분은 빙하가 덮고 있어서, 자동차로 일주도로인 링로드를 달리면 오른쪽으로는 바다가, 왼쪽으로는 빙하가 이어진다. 물론 예전에도 빙하를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빙하 ‘접근성’이 이만큼 좋은 곳은 아이슬란드 말고는 없었다. 빙하를 보려면 보통은 서너 시간 하이킹을 하거나, 설상차를 타고 달려야 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남부에서는 휠체어를 타고도 빙하의 혀(혀처럼 뻗은 빙하의 끝 부분) 끝까지 갈 수 있고, 보트를 타고 빙산 사이를 누빌 수도 있다.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빙하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다.

“빙하는 예전부터 여기 있었지만, 빙하 호수가 생긴 건 100년이 채 안 돼요. 빙하 조각들이 녹고, 지구가 또 온난해지면서 계속 호수가 커지고 있어요.” 이외퀼사우를론은 바트나 빙하에서 흘러 내려온 빙하 조각(빙산)들이 바다와 만나면서 녹아 만들어진 빙하호다. 바네사는 투명한 빙산 하나를 망치로 깨기 시작했다. “맛을 보세요. 이 얼음이 1,000년 전에도 여기 있었다는 걸 한 번 상상해 보세요. 바이킹이 살던 때라고요!”

눈앞의 빙산 너머로 빙하가 보였다. 빙하 윗부분은 얼음이지만, 빙하 아래에는 얼음이 녹아 강이 흐른다. 세상 이곳저곳에서 많은 빙하를 보고 온 친구가 알려줬다. 빙하에서는 그래서 물소리가 난다고. 한편 빙하가 너무 빨리 녹으면 빙하 아래 강물이 불어나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빙하의 끝으로 터져 나온다. 그게 빙하 홍수이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이따금 화산 때문에 빙하 홍수가 일어난다. 빙하 아래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그 열기 때문에 빙하가 녹아 강물이 불어나면서 홍수가 발생하는 거다. 1996년 11월 바트나 빙하의 그림스비튼 화산이 폭발했을 때에는, 하류의 철교가 무너질만큼 거대한 물살이 몰아쳤다. 이외퀼사우를론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그 때 휘어진 철교 조각이 마치 설치 작품인양 놓여 있다. 바네사가 건네준 작은 얼음 조각을 깨물다가 문득, 컷전에 갖다 뒀다. 여기서도 빙하 밑을 흐르는 깊은 물소리가 들릴까.



아이슬란드 국민 음식, 핫도그

토요일 오전 11시. 레이카비크 항구의 핫도그 스탠드 앞에는 벌써부터 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이슬란드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본 광고가 생각났다. “아이슬란드 남부 바트나 빙하가 유럽 최대 빙하라는 건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 놀랄 일은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고작 핫도그라는 것!”

정말 그랬다. 항구 옆 허름한 핫도그 스탠드. 컨테이너 절반 크기의 조그만 노점 두 개가, 그것도 재활용 쓰레기통과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끊이지도 않고 모여들었다. 이래 봐도 이 작은 핫도그 노점은, 레이카비크 시내에 다섯 개, 공항에 두 개의 지점까지 거느리고 있다. 아마도 아이슬란드 최대의 음식점 프랜차이즈일 것이다. 바로 이 자리에서 1937년부터 핫도그를 팔아왔다고 한다. 스탠드 안에는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이 다녀간 사진도 걸려 있다.

핫도그는 정녕 아이슬란드의 ‘국민 음식’인 모양이었다. 언젠가 이곳 동네 신문에서 “사람들이 아침에도 핫도그를 먹고, 점심에도 핫도그를 먹고, 저녁에도 핫도그를 먹는다.”고 걱정해 놓은 기사를 본 적도 있다. 핫도그만이 아니라,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피자도, 햄버거도, 콜라도 많이 먹는다. 링로드 휴게소에서, 주유소에서, 베스트만나에이르 섬으로 가는 페리 안에서도 햄버거와 핫도그를 팔았다. 패스트 푸드점처럼 번호를 보고 고르면 세트 메뉴를 준다. 레이카비크 시내에는 ‘American Style’이라는 식당도 있다.

아이슬란드에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맥도날드가 없다. 그러나 KFC도, 미국식 타코를 파는 타코 벨도, 미국 아이스크림 벤 앤 제리도 있다. 맥도날드만 없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미국식 ‘정크 푸드’ 사랑은 놀라운 데가 있다. 왼쪽 끝에 아이슬란드가, 오른쪽 끝에 미국이 있는 세계 지도를 보고 자라온 한국인으로서 아이슬란드와 미국의 밀접한 ‘음식 지리학’을 단번에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구본을 다리 사이에 끼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비로소 이해가 된다. 미국과 아이슬란드는 ‘옆 나라’다. 아이슬란드는 미국과 유럽 사이의 대서양에 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유럽으로 오는 주요 항공 노선 중 하나가 아이슬란드 경유편이다. 미국 동부 워싱턴 DC에서 아이슬란드까지 다섯 시간.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싱가포르 정도의 거리인 셈이다. 미국의 영향은 음식만이 아니어서, 아이슬란드 어린이들은 미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자라고, 미국식 영어를 쓴다. 한편 같은 북유럽이라도 유럽에 더 가까운 스웨덴은 영국식 영어를 쓴다.

물론 아이슬란드에 미국식 패스트푸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슬란드는 국민 경제의 90퍼센트가 생선에 달려 있는 어업 국가다. 특히 대구는 ‘국민 생선’이어서, 말려도 먹고, 구워도 먹고, 찢어도 먹는다. 1970년대에는 북대서양 대구를 놓고 영국과 전쟁을 벌인 적도 있다. 동네 베이커리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담백하게 구운 빵과 도너츠를 팔고, 계란뿐 아니라 새알도 즐겨먹는다. 이들이 먹는 새알은 한쪽 끝이 원추형으로 뾰족하다. 새들은 절벽에 동지를 틀고 알을 품는데, 혹시라도 알이 굴러가 떨어지지 말라고 원추형으로 진화했다고 한다. 원추형 새알 맛은 어떨까. 새알 장수 아저씨는 아이슬란드 사람 특유의 심드렁한 얼굴로 말했다. “노른자가 좀 더 빨갛고, 계란보다 훨씬 맛있어. 먹어 봐야 알아.”





‘프리윌리’의 고향

가수 비외르크(Björk)와 시구르 로스(Sigur Rós) 다음으로 아이슬란드가 배출한 월드스타는 아마도 범고래 케이코(Keiko)일 것이다. 케이코라는 이름은 몰라도, 영화 ‘프리윌리’에 나온 그 고래, 라고 하면 아하, 고개를 끄덕일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할리우드 스타의 고향이 바로 아이슬란드 앞바다다. 케이코는 두 살 무렵이던 1979년 아이슬란드에서 잡혔다. 국제적으로 고래잡이가 금지되기 이전의 일이다. 대서양 건너 팔려간 케이코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시티의 수족관을 전전하며 평범한 ‘쇼 고래’로 살았다.

범고래 케이코의 인생은 1992년 영화 ‘프리윌리’에 출연하면서 일대 전기를 맞는다. 영화 속 범고래 윌리는 방파제를 뛰어 넘어 먼 바다로 유유히 유영해 나가며 자유를 찾았다. 그러나 현실 속의 케이코는 영화 촬영이 끝난 뒤 좁은 수족관 속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 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전세계 어린이들이 항의 편지를 쓰고 고사리 손을 모아 성금을 내면서 케이코를 야생에 풀어주자는 ‘프리 케이코 재단’이 만들어졌다. 수족관은 결국 1995년에 케이코를 재단에 무상 기증했고, 영화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가 400만 달러를 내 줬다. 케이코는 1998년 수족관을 벗어나 19년 만에 고향 아이슬란드 앞바다로 되돌아왔다. 미국 공군 수송기가 케이코를 실어 나르고, 유럽과 북미는 물론 대만의 텔레비전에까지 생중계된 ‘세기의 수송 작전’이었다.

케이코가 야생 적응 훈련을 받은 곳이 아이슬란드 남부 베스트만나에이아르 섬이다. 절벽이 만을 감싸고 있는 이 천혜의 가두리에서, 케이코는 다시 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고, 바다에서 수영하는 법을 익혔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사람과 함께 지냈던 것일까. 먼 바다로 나가다 말고 케이코는 자꾸만 사람을 찾아 돌아오곤 했다. 그러던 2002년 어느 날, 케이코는 문득 결심한 듯 두 달을 헤엄쳐 노르웨이 해안에 닿았다. 그리고 이듬해 폐렴으로 죽고 만다.

아이슬란드에서 케이코의 흔적이 직접적으로 남아 있는 곳은 북부 후사비크 고래 박물관(The Húsavík Whale Museum) 정도다. 케이코의 사연을 전시한 안내판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틀어 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성장한 아이슬란드의 고래 관광이야말로 아이슬란드에 선연한 케이코의 자취가 아닐까 싶다. 아이슬란드는 2014년 현재 유럽 최대의 고래 관광지다. 전 유럽 고래 관광의 15퍼센트가 아이슬란드, 특히 후사비크와 레이캬비크 주변에서 이뤄진다. 아이슬란드가 일본과 함께 아직도 고래를 잡는 대표적인 포경 국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다. 레이캬비크 부두에는 여전히 포경선이 정박해 있다. 그렇지만 포경선과 어개를 나란히 하고, 고래 관광 보트들도 도열해 있다. 레이캬비크 시내에서 “고래를 잡지 말고 먹지 말고 관찰만 해요”라는 포스터를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이슬란드의 고래는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생활의 중심, 온천

공휴일이었던 월요일 오후 6시. 레이카비크의 라우갈달슬라우그(Laugardalslaug) 온천 수영장은 이미 만원이었다. 온천이라고 노인들만 오는 게 아니다. 팔에 튜브를 끼고 헤엄치는 어린아이, 뒤에서 지켜보는 젊은 부부, 등을 움츠렸다 펴 보이는 중년의 아저씨, 체중계의 눈금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소녀들. 팔에 문신을 한 젊은 청년은 난간에 머리를 기대고 졸고 있었다. 사람들은, 조곤조곤 속삭이다가 이따금 큰 소리로 웃음을 터트렸다. 이 낯설면서도 익숙한 풍경. 딱 공휴일 오후 6시의 동네 커피숍이었다. 노트북을 들여다보거나 커피를 마시지 않고, 또 모두가 수영복 차림으로 앉아 있다는 게 다를 뿐이었다.

바로 여기가 아이슬란드 생활의 중심이다. 아이슬란드에 세상 어느 곳과도 다른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온천’이다. 영국에는 펍이 있고, 프랑스에는 카페가 있듯이 아이슬란드에는 온천이 있다. 채 백여 명이 살지 않는 작은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온천이 있고, 여름에만 문을 여는 산장에도 온천이 있다. 모든 상점이 대여섯 시면 문을 닫는 레이카비크에서 온천은 유일하게,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곳이었다. 아이슬란드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의 단골 온천이 있다. 라우갈달슬라우그는 레이카비크의 미술 치료사 우누르 오타르스도티르(Unnur Ottarsdottir)의 단골 온천이다. 우누르는 지도에 동그라미를 쳐 주며 “오늘처럼 날씨가 화창한 날엔 사람들로 터져 나갈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다.

도대체 왜 온천이 생활의 중심이 된 것일까. 38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수영장 풀에 몸을 담그고 앉아 있으니 알 것도 같은 기분이었다. 아이슬란드의 날씨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는 “춥다”도 “해가 길다”도 아닌 “변덕스럽다”다. 아침에는 맑다가 오후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여름은 24시간 맑고 겨울은 24시간 어둡다. 따뜻한 야외 온천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두워도, 밝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장소다. 몸이 조금씩 풀리자 기분도 덩달아 좋아졌다. 아, 이래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온천 옆에 모여서 살거나, 온천이 없으면 끌어와서라도 만드는구나.

동네 사람들은 비싸다고 잘 가지 않지만,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은 공항가는 길에 있는 ‘블루 라군(Blue Lagoon)’일 테다. 온천수와 바닷물을 섞어서 지열로 데우는 이 온천의 물은 한없이 불투명에 가까운 하늘색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지구 같지 않은 아이슬란드 풍경에, 블루 라군은 정점을 찍겠다고 작정을 한 듯 초현실적이다. 한편, 북쪽 뤼바튼 화산 지대에는 ‘뮌반 바스(Mývatn Nature Baths)’가 있다. 블루 라군과 비슷한 하늘색 물빛의 야외 온천인데, 발 아래로 화산 지대가 펼쳐진다. 바닥에서 온천수가 퐁퐁 솟아오르는지, 앓 뜨거, 깜짝깜짝 놀라며 종종 걸음으로 돌아다녀야 한다. 그렇지만 딱 한 곳만 꼽으려면, 나는 남부 내륙 란드만나뢰이가르(Landmannalaugar)의 노천 온천을 선택하겠다. 자연 온천이 솟아오르는 곳에 구덩이만 파 두었을 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은 문자 그대로의 날것 온천이다.







풍경을 닮은 음악

점원은 이미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이상한 음반 가게다. 카운터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다. 커피 잔을 건네면서 그는 콧등으로 맞은편을 흘깃 가리켰다. 소파와 헤드폰이 놓여 있는 음악 감상실이었다. 듣고 싶은 만큼 음악을 듣고, 마시고 싶은 만큼 커피를 마시다 가라는 이야기였다. 이미 헤드폰을 낀 중년 부부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음반 재킷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12 토나르(12 Tónar)’는 레이카비크의 음반 가게 겸 인디 레이블이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70개가 넘는 음반을 발행했고, 그 중 하나가 지금 가게 안에 올려 퍼지는 사마리스(Samaris)의 앨범이라고 했다. 낯선 이름이었다. ‘아이슬란드 음악’이라고 묶어 놓은 판매대에서는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다. 비외르크, 시구르 로스, 에밀리아나 토리니(Emiliana Torrini). 아이슬란드는 음악의 나라다. 겨우 32만 명이 사는데,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와 밴드들이 아이슬란드와 뉴욕, 런던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레이카비크 시내 곳곳에는 6월말 열리는 ‘미드 서머 뮤직 페스티벌’ 광고판이 나부꼈다. 해가 지지 않는 여름 밤. 클래식부터 일렉트로니카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아홉 개의 콘서트가 나흘 동안 릴레이로 열린단다.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뚜렷한 색깔이 있는 음악가들이 나오는 걸까. 앞서 소개한 ‘아이슬란드 매거진’ 편집장 운은 그 이유로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꼽았었다. 32만 명이 사는 작은 나라. 상업화되고 관료화된 문화 산업이랄 게 없다. 노래를 좋아하고 재능만 있으면 발탁된다는 거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음악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친구 중 한 명쯤은 베이스를 치거나, 노래하는 애가 꼭 있어요. 방송국이나 잡지에서 일하는 애들도 있죠. 클럽에서 연주 좀 한다 싶으면 전국 단위 라디오 타는 건 금방이에요. 그러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에밀리아나 토리니도 그랬다. 이탈리아인 아버지와 아이슬란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노래를 부르다 밥 먹으러 온 레코드 회사 관계자의 눈에 띄어 발탁됐다. 운이 적어준, 비외르크와 시구르 로스에 이어 주목받는 3세대 아이슬란드 밴드들 중 하나, 아우스게이르 트라우스티(Ásgeir Trausti)의 CD를 골라 플레이어에 넣었다. 공기 중으로 입자가 흩어지는 것 같은 몽환적인 음악이 흘러나왔다. 2012년, 스무 살의 나이로 혜성처럼 나타난 이 청년은 아이슬란드 음악 차트를 다시 쓰고 있단다. 어쩌면 이 음악들은, 아이슬란드의 풍경과 이렇게도 닮았을까.



국민 열 명 중 한 명은 작가

다시 확인했지만 다섯 개가 맞았다. 서점 직원은 방긋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뭘, 우리가 워낙 책 읽는 걸 좋아해서요.” 다섯 개는 레이카비크 시내 중심가의 서점 수다. 반경 500미터 이내에, 커피숍도 하나씩 있는 큼직한 2~3층 대형 서점이 그만큼 있다는 이야기다. 세계 곳곳에서 서점이 문을 닫고, ‘종이책의 위기’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는데, 아이슬란드 서점은 여전히 흥성거리는 모양이었다. 지난해 영국 BBC방송은 아이슬란드의 출판문화를 취재하고 “이 나라는 어찌된 영문인지 디지털 시대에도, 경제 위기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더 많은 책을 본다.”고 보도했다. 국민 열 명 중 한 명은 책을 출판했거나 쓰고 있고, 매년 250만 권의 책이 팔린다. 아이슬란드 인구가 약 32만 명이니, 한 사람이 매년 여덟 권의 책을 사는 셈이다.



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책을 많이 보는 걸까. 사람들은 피식 웃으며 “긴긴 겨울밤에 책 읽는 것 말고 할 일이 있냐.”고 되물었다. 그래서인지, 크리스마스 선물에는 빼놓지 않고 책이 들어간다. 카드를 주고받듯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책을 선물한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출판물의 80퍼센트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출간된다고 한다.

아이슬란드 사람 대부분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핫도그 스탠드의 소년도 서울의 대학 교수보다 영어를 잘 하지만, 출판물은 여전히 아이슬란드어로 나온다. 겨우 32만 명이 쓰는 소수 언어로 소설을 쓰면서, 아이슬란드 소설가 할도르 락스네스(Halldór Laxness)는 이미 1955년에 노벨 문학상도 받았다. 다운타운의 에이문드손(Eymundsson) 서점에는 그의 소설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출세작은 «독립적인 사람들(Sjálfstætt Fólk)».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살아가는 아이슬란드 농부들을 담담하게 그렸는데, 정작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과 너무 다르다.”며 투덜거렸단다.

할도르 락스네스의 작계 선배는 아마도 12세기 바이킹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아이슬란드는 유럽에서도 가장 바이킹 문학 전통이 강한 나라다. 바이킹 정착자들의 모험을 그린 서사시 사가(Saga)는 600여 년에 걸쳐 전승되고, 정리돼 왔다. 사가는 바이킹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문학 자료일 뿐 아니라 중세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 자료로도 중요하다. 유럽 대륙의 일부인 덴마크나 노르웨이와 달리, 아이슬란드는 섬이라는 고립된 위치 때문에 중세 이후 언어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즉 지금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말하고 쓰는 언어와, 사가에 기록된 중세 바이킹 언어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자국어 사랑은 프랑스 사람들의 그것보다 더 하면 더 하지 덜하지 않다. 이들은 기존의 어휘로 설명할 수 없는 새 문물이 들어오면, 외래어를 쓰는 대신 기존 어휘를 조합해 새 문물을 설명한다. 가장 아름다운 아이슬란드 신조어 중 하나는 컴퓨터, ‘틸바(tölva)’다. 계산한다는 뜻의 탈라(tala)와 여성 예지자를 뜻하는 뵐바(völva)의 합성어다. 미래를 내다보는 기계 여신.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가이드»에 나오는 슈퍼컴퓨터 이름 ‘깊은 생각’과 같은 이야기 아닌가!





Photo © Vilhelm Gunnarsson

아이슬란드의 다른 얼굴, 인랜드

여행자 안내소 직원은 냉정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안 된다. 사륜구동 자동차가 아니라, 사륜구동 할아버지라도 아직 란드만나퓌이가르로 들어갈 수는 없다. 길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고, 설령 찾아도 차체 허리까지 물이 들어올 거란다. 올해는 빨라도 6월말, 현실적으로는 7월 중순부터 두 달 동안만 길이 열린단다.

란드만나퓌이가르는 인랜드(inland), 혹은 하이랜드(highland)라고도 부르는 아이슬란드 내륙의 하이킹 명소다. 란드만나퓌이가르 뿐 아니라 인랜드 지역 대부분이 여름 한 철에만 개방된다.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깨어지는 빙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 식지 않은 웅암이 김을 뿜어내는 대지, 그게 인랜드다. 여름 한 철 양을 키우는 목동들은 있어도, 인랜드에는 사실상 사람이 살지 않는다. 아니 못 산다. 아이슬란드 사람의 3분의 2는 동부 해안의 레이캬비크를 중심으로 살고, 나머지의 대부분이 북부 해안의 아퀴레이리(Akureyri)에 살고, 일부가 해안을 따라 점점이 마을을 이루며 산다. 인랜드는 요정과 트롤, 그리고 이따금 세상을 버린 무법자들이 들어와 사는 곳이었다. 인랜드의 도로는 지도상에서 산악도로를 뜻하는 'F'로 시작한다. 말이 도로이지, 길만 나 있는 자갈길이다. F도로의 중간 중간에는 '강'을 뜻하는 'V' 표시도 나온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강을 건너는 튼튼한 사륜구동 차량으로도, 날씨가 온화하고 덜 번덕스러운 여름 한철에만 접근할 수 있다.

란드만나퓌이가르 산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다. 해안에서 겨우 50킬로미터 정도 들어갈 뿐이었는데, 그 길을 가는 데 하루가 꼬박 걸렸다. 비포장 길에 강을 건너야 해서만이 아니었다. 지평선 끝까지 검은 화산재가 덮인 사막을 건넜고, 마법사의 고깔모자처럼 끝이 살짝 휘어진 산을 지났고, 문득 입을 벌리고 있는 화산 칼데라 호에 마음을 빼앗기며 란드만나퓌이가르로 들어섰더니 이미 늦은 오후였다. 빗어놓은 것처럼 흙 색깔이 바뀌는 붉은 산도 건고, 빙하를 머리 꼭대기에 이고 첩첩이 막아선 노란 산도 보았다. 그 풍경은 너무나 초현실적이어서, 정말 내가 내 눈으로 본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그 뒤로도 인랜드 다른 지역들을 자동차로 달린 적이 있었지만, 란드만나퓌이가르 만큼 이상한, 그래서 매혹적인 풍경은 본 적이 없다. 란드만나퓌이가르에서 해안까지는 하이킹 코스가 있다. 두 빙하 사이의 골짜기를 걷는 중거리 루트다. 란드만나퓌이가르에서 또 다른 인랜드 지역인 소르스뵈크(Þórsmörk)까지 나흘간 53킬로미터, 거기에서 이틀을 보태 26킬로미터를 더 걸으면 남부 해안의 스코가(Skógar) 폭포에 닿는다. 몇 년 전 한국 에어컨 광고에도 나왔던 바로 그 폭포다. 60미터 높이에서 물줄기가 거침도 주저함도 없이 떨어진다. 스코가 폭포 옆 산길로 제 키만한 배낭을 짊어 진 하이커들이 한 줄을 서 올라가고 있었다. 낮엔 걷고 밤엔 캠핑을 하면서 톨스모르크까지 갈 거란다. 언젠가는 나도 저 하이커의 대열에 합류하리라.





Photo © Choi Myungae





북유럽인이라는 정체성

노르딕 하우스는 아이슬란드대학 캠퍼스 옆에 있다. 레이카비크 시내 중심가에서 도로를 하나 건너면 된다. 마칠 점심시간이었는지, 대학 건물 계단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학생들 너머로 낮익은 노르딕 하우스의 지붕이 보였다. 물결이 일렁이는 것처럼 깎아 놓은 질은 보라색 지붕인데, 주변의 야트막한 구릉성 산지와 어울리도록 만든 것이라다. 노르딕 하우스는 핀란드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 알바 알토의 작품. 그가 아이슬란드에 지은 유일한 건축물이자 그의 마지막 작업 중 하나다.

핀란드 건축가가 아이슬란드에 와서 지은 이 건물은 참으로 어울리게도 북유럽 도서관으로 쓰이고 있다. 출판물 3만 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아이슬란드 자국어로 된 책은 한 권도 없다. 스웨덴어,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핀란드어에, 그린란드어,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에 떠 있는 페로 제도의 언어, 그리고 핀란드 북부 사미족의 언어 이렇게 일곱 개 언어로 된 책과 잡지가 있다. 손가락으로 꼽아가며 설명해주던 직원은 핀란드 사람. 그러고 보니 몇 해 전 이 도서관을 안내해 준 자원봉사자도 스웨덴에서 태어나 노르웨이에서 자라 아이슬란드로 시집온 ‘스칸디나비아 코스모폴리탄’ 이었다. 책 뿐 아니라 그림도 빌려준다고 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그림 세 점을 대출해 3개월간 집에 걸어놓고 볼 수 있고, 반납한 뒤 다시 다른 그림을 대출하는 식이다.

세상 끝에 외로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슬란드는 언제나 북유럽 공동체의 일부였다. 철도와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까지 인류의 주요 교통수단은 배였고, 언제든 배로 갈 수 있는 섬은 고립된 곳이 아니었다. 특히 겁 없는 바이킹들이 북해의 바다를 제 집처럼 누비던 북유럽은 더욱 그렇다.

아이슬란드의 첫 정착자들은 바이킹이었다. 이 나라는 오랫동안 노르웨이의 일부였다가, 덴마크의 식민지를 거쳐 1944년에야 독립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말은 태어나면 아이슬란드에서, 사람은 똑똑하면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다시는 아이슬란드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슬란드 시골 마을을 다니다 보면 이따금 ‘우리 동네에서 출세한 사람’ 기념물이 있는데, 설명 대부분은 “덴마크에서 생애를 마쳤다”로 끝난다. 지금도 아이슬란드 어린이들은 아홉 살부터 학교에서 덴마크어를 배우고, 아이슬란드의 유럽 항공 허브는 코펜하겐이다.



아이슬란드의 정체성은 이제 스칸디나비아의 경계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듯하다. 2007년 경제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2013년 기준, 인구의 8.1퍼센트, 약 2만 6천 명이 이민자들이다. 남부 비크(Vík)에 사는 크리스티나 헨즐러(Kristina Henzler)도 그 중 한 명이다. 슬로바키아 출신인 그는 체코인 남편과 결혼해 4년째 아이슬란드에 살고 있다. 아이슬란드가 유럽연합(EU) 소속은 아니지만 유럽경제공동체(ECC)의 일부여서, 유럽인들이 일하고 거주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 없단다. 크리스티나는 아이슬란드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며 삶의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한다. 여기서는 “아무도 내가 슬로바키아 사람인지 노르웨이 사람인지 묻지 않는다. 그냥 크리스티나일 뿐.”이라고 했다. “이제 아이슬란드가 두 번째 고향(second home)이 되었겠다.”는 내 말을, 크리스티나는 “이제는 아이슬란드가 첫 번째 고향, 슬로바키아가 두 번째”라고 고쳐 주었다.

코미디언 시장, 레즈비언 총리

레이카비크 영자 주간지 〈레이카비크 그레이프바인(The Reykjavík Grapevine)〉 1면에는 레이카비크 전 시장 온 그나르(Jón Gnarr)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그의 4년 임기는 이제 막 끝났다. 시장이기 전에 그는 아이슬란드가 사랑하는 코미디언이었다. 과묵한 주유소 주인으로 출연한 시트콤 〈야간 근무(Næturvaktin)〉는 인기를 거둬해 시즌 3까지 찍었으나, 온의 시장 당선으로 제작이 중단됐다. 신문은 “아무도 코미디언 온이 끝까지 선거 레이스에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가 훌륭한 시장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그가, 출마만 하면 당선될 그가,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 줄 몰랐다.”고 적고 있었다. 이 사랑받는 시장은 “기성 정치에 충격을 주기 위해 ‘농담 삼아’ 출마했다. 그 소임을 다 했으니 ‘농담 정치’를 접고, 나는 코미디언으로 돌아가겠다.”고 답하고 있었다. 정치가, 정치인이 이렇게 ‘쿨’할 수도 있나.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연예인이 온이 처음은 아니다. 아이슬란드는 국민 전체가 정치에 관심이 많은 나라다. 화가도, 음악가도, 작가도 당연히 정치 발언을 하고, 집회에 참여한다. 아이슬란드 동부 산간 지대에 대형 수력 발전소 건설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는, 록밴드 시구르 로스가 전국을 돌며 집회 지지 콘서트를 열고, 가수 비외르크의 엄마가 단식 농성을 벌여 외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나이나 성별은 아이슬란드 정치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 5월말 총선으로 당선된 새 수상은 1975년생으로 불과 39세. 아이슬란드의 첫 여성 총리이자 수차례 재선을 거뒀한 관록의 정치인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Jóhanna Sigurðardóttir)는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이다. 수상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0년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자 오랜 파트너와 결혼식을 올렸다.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는 많지만, 국가 수반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나라는 아이슬란드가 유일하다.

전 국민의 숫자가 서울 광진구 구민보다도 작은 이 나라에서 정치인은 저 멀리 까마득히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아이슬란드에서 정치인에게 할 말이 있으면, ‘보좌관의 비서관의 행정실 직원’을 찾아서 이메일을 보낼 게 아니라, 그냥 전화번호부에서 그 정치인의 이름을 찾아서 전화를 걸면 된단다. 정치는 복잡한 파워 게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지를 함께 의논해서 해 보는 것. 그것이 930년 퉁벨리르에서 첫 아이슬란드 국회가 구성되었을때의 모습이 아닐까. ‘알쌍기’(Alþingi)이라고 부르는 아이슬란드의 국회는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의회이자, 지금도 존속되는 최장수 의회다. 아이슬란드 국회의사당은 다운타운 한가운데 있다.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무심히 보고 지나쳐 버릴 2층 회색 벽돌 건물이다. 명색이 국회의사당인데, 웬만한 학교나 은행 건물보다도 작다. 정부 청사는 더 작아서, 입구의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아니었다면 여행자 안내 센터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국민이 행복한 정치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의외로 많지 않다.



Photo © Vilhelm Gunnarsson



Photo © Vilhelm Gunnarsson



Have a Go!

미국 작가 에릭 위너는 행복의 지리학(The Geography of Bliss)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소문난 나라들을 찾아서 여행했다. 그 중 한 곳이 아이슬란드다. 행복을 지표화한 많은 평가에서 아이슬란드는 대체로 상위에 랭크돼 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살 만 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문화적으로도 풍요롭고, 성별 평등도 어느 정도 이뤄져 있는 나라. 그러나 에릭 위너가 발견한 아이슬란드 행복의 가장 큰 비결은 “실패”였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일단 한번 해 보고,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그만”이라는 자세가, 이 작은 섬나라를 세계에서 손꼽히는 창의적인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다.

『아이슬란드 매거진』 편집장 운도 말했다.

“우리한테는 일단 한번 해 보지 뭐(have a go) 정신 같은 게 있어요. 미국 서부 개척 정서(Wild Wild West) 비슷하다고 할까, 내키면 미친 듯이 달려보고, 안 되면 마는 거죠.”

그래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음악을 하고 싶으면 밴드를 하고, 할 이야기가 있으면 책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린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비관적일 것도 없다. 화산이 터지면 대피하면 되고, 경제가 망하면 다시 살리면 되고, 밤만 계속되는 겨울은 책 읽고 음악 듣기 좋은 때가 된다. 똑같이 가혹한 기후와 긴 밤에 시달리지만, 이웃 러시아와 아이슬란드의 자세는 전혀 다르다. 에릭 위너의 말처럼 러시아가 “절망과 음주”로 겨울을 난다면, 이 바이킹의 후예들은 “행복과 음주”로 세월을 보내는 것 같다.

이 같은 아이슬란드의 ‘행복’은 이 나라가, 인구 32만 명의 소규모 공동체 국가라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였다. 한 다리만 건너면 서로가 친구이거나 친척인 나라. 동성애, 발전소 건설, 인디 음악…. 크고 작은 사회 문화 이슈들이 나의 일, 친척의 일, 친구의 일이 되어 ‘사람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을 때, 서로의 다름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성의 터전이 된다.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는 노래를 하고, 남과 다른 성 정체성은 그대로 존중받으며, 나라의 큰 일과 작은 일을 함께 논의하는 공동체. 우리는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로 사라져 버린 공동체를, 아이슬란드라는 공동체 국가에서 새삼스럽게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돌아갈 비행기를 기다리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지폐와 동전 몇 개가 잡혔다. 1,280크로나(kr), 한국 돈으로 만 원이 조금 넘는다. 커피를 마시고, 조잡한 열쇠 고리 하나 정도는 살 수 있는 돈이다. 잠깐 들여다 보다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다음에 올 때 쓰지 뭐. 어차피 자주 다시 올 텐데.’ 처음이었다. 당장 다음 달에라도 다시 아이슬란드에 올 것 같은 기분이 든 것은. 아이슬란드가 조금도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이번 여행에서, 세상의 끝에 있는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가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며 고민하고 실험하는 아이슬란드를 발견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H



온 칼달

온 칼달(Jón Kaldal)은 외국인들에게 아이슬란드의 사회와 문화, 자연을 소개하는, 올 봄에 창간한 영문 월간지 ‘아이슬란드 매거진(Iceland Magazine)’의 발행인이자 편집장이다. 레이카비크 토박이인 온은 비슷한 콘셉트의 잡지 ‘아이슬란드 리뷰(Iceland Review)’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아이슬란드 주요 일간지와 잡지를 거치며 기사를 써왔다. 즉 아이슬란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화 현상이며 사회 이슈가 궁금하다면 이 만한 인터뷰이가 없다. 전형적인 아이슬란드인답게 온은 좀처럼 웃지도 않고, 제스처도 없이, 그러나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문학을 전공한 그는 대부분의 아이슬란드인들처럼 엄청난 양의 책을 읽고, 음악을 즐겨 들으며, 주말이면 술을 마시고, 동네 온천수영장을 찾거나 축구를 즐긴다.

‘아이슬란드 매거진’은 잡지 발행과 더불어 같은 이름의 웹진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업데이트 되는 이 웹진은 그 주에 놓치지 말아야 할 아이슬란드 여행 정보와 함께 너무 가볍지도 또 너무 무겁지도 않은 시선으로 아이슬란드의 사회와 문화, 자연과 사람들을 소개한다. 만약 아이슬란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매주 금요일 마다 그들이 전하는, 군더더기 없이 아주 잘 편집된, 지금 이 시각 아이슬란드를 권한다. www.icelandmag.com

우누르 오타르스도티르

우누르 오타르스도티르(Unnur Ottarsdottir)는 할아버지 때부터 레이카비크에서 살아온 ‘정통’ 레이카비크 사람이다. 미술 심리치료사인 그는 10여 년 전부터는 작품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우누르는 주로 아이슬란드의 자연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 용암이나 화산을 소재와 재료로 크고 작은 조각품들을 만든다. 여느 아이슬란드의 예술가들처럼 우누르도 정치에 관심이 많다. 우파가 승리한 지난 5월 총선 이후 아이슬란드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가 요즘의 관심사다. 소소하게 시작했던 에어비앤비(airbnb)에 재미를 붙여 이즈음 세 채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또한 아이슬란드에서 예술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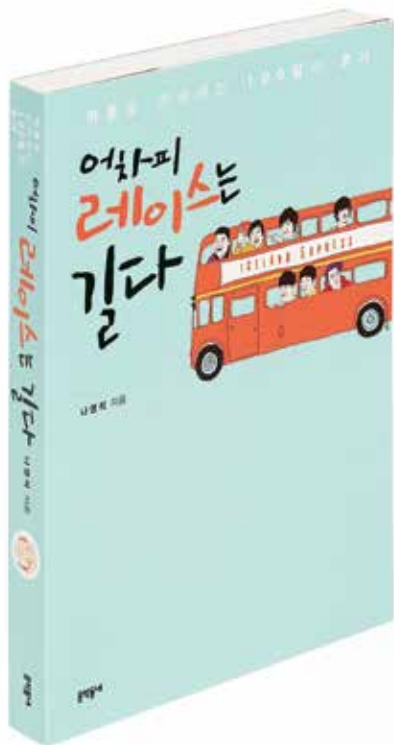
크리스티나 헨즐러

크리스티나 헨즐러(Kristina Henzler)는 체코 프라하의 대학생으로 처음 아이슬란드에 발을 디뎠다. 워크 캠프 프로그램으로 와서 아이슬란드 곳곳을 돌아보면서 자연에 마음을 빼앗기고, 지금의 남편도 만났다. 크리스티나는 2년째 아이슬란드 남부의 작은 마을 비크(Vík)에서 살고 있다. 일 년에 200일은 비가 온다는 비크에서 그는 해변가 전망 좋은 호텔의 직원이 되었다. 언젠가 아이슬란드에 와서 살겠다면 꿈을 이룬 것이다. 요즘 크리스티나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환한 백야의 밤에 남편의 손을 잡고 어슬렁거리며 동네를 산책하는 일이다.



아이슬란드로 떠나기 전 읽으면 좋은 책

올 봄 아이슬란드에서
열흘을 보내고 온
알라딘 인문 MD가
아이슬란드 여행
정보를 담은, 혹은
당신만의 독특한
아이슬란드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책 몇 권을
소개한다.



아이슬란드로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아일랜드로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들이 많다. 그럴 때면 아이슬란드라고 다시 말하며 위치를 알려주는데, 그럼에도 이야기는 제자리를 바로 찾지 못한다. 한국과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세계지도를 볼 때 곁에 두고 크기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에 아이슬란드가 한반도 남녘보다 넓다고 하면 다들 놀라기 일쑤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그 땅에 인구가 32만 명 남짓이라는 정보를 듣고 나면, 아이슬란드를 전혀 몰랐던 이들도 비로소 호기심과 부러움 섞인 눈빛으로 미지의 이야기를 기대한다. 재미난 건 이야기를 듣는 이 뿐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는 이 역시 아이슬란드에 대해 많이, 아니 거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여전히 꿈속에 존재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든 펼쳐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지난 5월 아이슬란드에서 열흘 가까이 보냈지만, 그리고 돌아온 후에 여러 사진과 이야기를 주변에 전했다지만, 여전히 아이슬란드는 알 수 없는 곳, 알고 싶은 곳, 그래서 곧 다시 떠나고 싶은 곳이다. 멀지 않은 때에 다시 아이슬란드로 떠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해, 혹시나 그곳에서 마주할 당신을 위해 아이슬란드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책을 꼽아본다.

아침지만 수박 겉핥기라도

안타깝게도 아이슬란드를 ‘본격적으로’ 다룬 한국어 여행서는 거의 없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그곳을 찾아 한국어로 쓴 아이슬란드 여행기를 써보고 싶지만, 아침게도 아직 그런 제안은 오지 않았다. 어쨌든 여행서는 아니어도 그곳에 다녀온 이들이 몇몇 이야기는 책으로 만날 수 있는데, 우선 <1박 2일>과 <꽃보다 할배>로 잘 알려진 나영석 피디의 <어차피 레이스는 기다릴다> (문학동네)를 권한다. 부제 ‘마흔을 준비하는 100일의 휴가’와 띠지 카피 ‘나영석 피디가 <1박 2일>을 그만두고 아이슬란드로 떠난 이유는?’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여행 에세이라기보다는 여행을 핑계 삼아 휴식을 가지며 숨 가쁜 한동안을 돌아보고, 다가올 한동안을 위해 마음을 다지며 새로운 생각을 채우는 이야기라 하겠다. 그곳이 꼭 아이슬란드여야 할 이유는 약하지만 어쨌든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 아이슬란드이니 맛보기로 살펴보기에는 적절한 선택이다.

아이슬란드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와 함께 북유럽 문화권으로 묶인다. 지리적 위치도 그렇지만 언어와 문화에서도 북유럽과 가깝다. 그래서 북유럽을 소개하는 책들 한구석에서 아이슬란드를 마주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흔치 않다. 그 중 <그리움은 모두 북유럽에서 왔다> (양정훈 지음, 부즈필)는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를 다루는데 여행 에세이답게 그곳의 풍광과 사람을 담은 사진이 가득하다.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 월터가 용기를 내 헬기에 오르는 장면을 기억한다면, 인구 1,000명도 되지 않은 작은 마을 스티키스홀뮌르(Stykkishólmur)에서 돌을 파는 꼬마들과 그걸 사는 어른들의 엉뚱하고도 따뜻한 이야기 역시 즐겁게 읽을 수 있겠다.



Photo © Park Jeonghoon

그럼에도 떠날 준비가 되었다면

자, 이제 아이슬란드로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정도 정보로 여행을 떠날 수 있겠느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지만, 다 알고 가면 무슨 재미냐고 핀잔을 주며 여행 고수인양 앞장서 걸어보려 한다. 물론 앞장서 걷는 일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기도 하다. 아이슬란드 여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역시 론리 플래닛이다. 한국어판으로는 역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가 «북유럽»으로 한데 묶였는데 600여 쪽 분량 가운데 아이슬란드는 10분의 1 정도 이니 가볍게 살펴보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정도라 하겠다. 영어판은 «Iceland»가 한 권으로 따로 나왔는데 400여 쪽에 이르는 전체가 아이슬란드만 다루니 필요한 정보는 빠짐없이 담겨 있다고 봐도 되겠다. 게다가 2013년에 새로운 판이 나와 최신 정보까지 들어 있으니, 떠나고자 한다면 선택권은 없다.

론리 플래닛으로 여행 일정과 숙소, 식당 등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다면, 한 걸음 나아가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서는 일도 필요하겠다. 이런 일에 필요한 건 역시 이야기, 즉 문학일 텐데, 아이슬란드의 대표 문학 양식은 사가(saga)다. 아이슬란드어로 ‘역사’와 ‘이야기’라는 뜻을 지닌 사가는 북유럽 신화와 전설의 맥을 이으면서 역사 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형성된 문학 양식이다. 13세기와 14세기에 걸쳐 아이슬란드에서 기록된 40개의 사가 가운데 «날의 사가(Njal’s Saga)»(느낌이있는책)라는 작품이 다행히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날의 사가»는 현존하는 작품 가운데 가장 길기도 하고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오랜 동안 가장 즐겨 읽은 작품이기도 하니 사가 문학의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카비크 근처에는 서점 체인 에이문드손(Eymundsson)이 여러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어딜 가든 «날의 사가»가 눈에 띄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결심이 서지 않은 이들을 위해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를 한 가지 덧붙일 수도 있겠다. «날의 사가»는 노벨 연구소에서 선정한 세계문학 100선에 꼽힌 작품으로 “서구 문학에 독특한 기여를 했으며, 사실주의라든가 절제되고 객관적인 문체, 인물 묘사 능력, 압도하는 비극적 장엄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중세 문학보다도 훨씬 앞서 있었다.”고 하니 문학 작품으로서도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임이 분명하다.



영뚱하지만 이렇게 읽을 수도

아이슬란드 여행이 매력적인 까닭은 무엇보다 자연 풍광이다. 아이슬란드 일주도로인 1번 국도, 일명 링로드를 따라 일주일 가까이 운전을 하면서도 전혀 지루하거나 지치지 않는 까닭은 그야말로 끝없이 펼쳐지는 풍경 때문이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두고 고민하는 이들이 많은데, 나는 시계 방향을 추천한다. 레이카비크에서 출발해 스티키스홀뮌르를 지나 북쪽 거점 아퀴레이리(Akureyri)까지 이어지는 산과 눈, 북부 미바튼(Mývatn) 호수 주변에서 마주하는 들과 화산 지형, 안개로 가득하지만 한쪽에는 바다, 한쪽에는 산이 이어지는 동부 피오르드 그리고 드디어 푸른빛이 감도는 남부를 눈에 담는 게 반대로 펼쳐지는 이야기보다 극적이기 때문이다. 긴 겨울을 지내고 꼬불꼬불한 시간을 빠져나와 생명이 약동하는 때를 마주하는 이야기랄까.

물론 이런 눈요기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지지만, 앞서 말한 풍광을 차례로 지나다 보면 문득 이런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비슷하게 반복되는 모양들은 왜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난 건데 그런 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는 필요 없는 정보겠지만, 혹시라도 나처럼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도 지적 호기심은 풍부한 분들이 계시지 몰라 두 권의 책을 더한다. 우선 조홍섭 과학·환경 전문기자의 «한반도 자연사 기행»(한겨레 출판)은 당연히 아이슬란드 이야기는 아니지만 북한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동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등 다양한 지질 현상을 구체적인 장소와 함께 풀어내며 자연의 속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이를 포착하는 데 필요한 감각을 함께 전한다. 아이슬란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도 화산 지형이 많기 때문에 이 책으로 미리 공부를 해둔다면 그곳에서 마주하는 풍광을 눈만이 아니라 머릿속에도 함께 새길 수 있겠다.

그리고 욕심을 부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을 한다면 최근에 번역된 필립 볼의 형태학 3부작 «모양·흐름·가지»(사이언스북스)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가 그 형태를 어떻게 지금처럼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자연의 형태가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책이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아이슬란드 여행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의심도 들겠지만, 여러 쪽포 주변 바위 위에 펼쳐진 얼음 모양이라든지 소실점을 두고 능선이 반복해서 이어지는 산의 흐름이 눈에 익을 즈음이면, 왜 굳이 이런 책까지 함께 권했는지 의문이 풀릴 거라 믿는다.

자, 남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쯤에서 접고 이제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 수박 겉핥기를 넘어 여전히 거의 알려지지 않은 아이슬란드를 직접 경험하고, 영뚱하지만 자신에게 남은 각자의 아이슬란드 이야기를 펼쳐보길 기대한다. 그때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나 역시 아이슬란드를 상상하고 그곳으로 다시 떠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H



굳이 떠날 계획이 없더라도 재미삼아 읽는 아이슬란드 정보

막상 떠나려고 하면 꽤
막막한 느낌이 드는 나라
아이슬란드. 그곳에서
올 여름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했다. 하지만 여행이란
예상 밖의 사건을 기대하며
떠나는 일. 너무 많은 정보는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슬쩍
참고만 하시라.



생각보다 추운 여름, 생각보다 따뜻한 겨울

지난 소치 올림픽에서 아이슬란드가
예상 밖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 이유를 분석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이슬란드의 겨울은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생각만큼
춥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름도 얼음의
땅이고 국토의 12퍼센트 정도가 빙하에
덮여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멕시코만류
덕분에 이곳 겨울은 위도에 비해 춥지 않다.
1월 평균 기온이 0도 안팎. 뉴욕이나
토론토, 혹은 서울의 겨울이 더 춥다.
사실 아이슬란드 날씨는 춥다, 혹은 덥다가
아니라 ‘변덕스럽다’로 표현해야 옳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문제는 기온이 아니라
수시로 내리는 비와 몰아치는 강풍이다.
남쪽 비크는 연중 200일 정도 비가 온다.
기온에 상관없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름이든 겨울이든
꼭 배낭에 챙겨넣어야 할 옷이 딱 하나 있다면
방풍 방수 기능을 갖춘, 모자 달린 재킷이다.
지열로 물을 데우는 노천 수영장을 다니거나
자연 온천을 찾아 하이킹을 떠나는 일은
아이슬란드에서만 가능하니 수영복도 필수.
우비가 있다면 폭포 뒤로 걸어가며
(흠뻑 젖지 않고도) 떨어지는 물줄기를
감상할 수 있다. 여름이라도 겹쳐 입을 옷은
여러 벌 가져가고, 얇은 다운재킷이 있으면
유용하다. 겨울이라면 당연히 모자, 장갑
등 보온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또 도시만
돌아다닐 게 아니라면 다른 집을 빼더라도
등산화는 필수다. 심지어 해변에서도
등산화가 편하다. 렌터카를 이용할 거라면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차량용 USB
시거 잭과 따가운 별을 가려줄 햇빛가리개도
필수품이고, 아이슬란드는 220볼트를
사용하지만 경우 도시에서 하루라도 머물
계획이 있다면 변압용 어댑터, 일명 ‘돼지
코’도 챙기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아이슬란드에서
사용가능한지, 현금 인출도 가능한지
확인하는 일이다. 이 나라에선 현금 쓸 일이
별로 없다.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의 유효
기간도 확인하자. 여권 유효 기간은 3개월
이상여야 하고 90일 미만으로 체류한다면
비자는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카메라가
있다면 가져가시길 권한다. 스마트폰 하나
들고 갔다가 고장이라도 나버리면 그런
낭패가 없다. 아이슬란드에서 마주하는
풍경은 종종 사진으로 담기에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에만 담아오기엔 너무 벅차다.

인천~케플라비크 국제공항 가는 길

한국에서 아이슬란드로 가는 직항 노선은 없다. 보통 유럽 도시를 경유하는데 런던이나 코펜하겐,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헬싱키, 뮌헨, 파리 등 유럽 웬만한 대도시에서 3시간~3시간 반 정도면 아이슬란드 케플라비크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공항에서 수도 레이카비크까지는 40분 정도 거리, 공항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요금은 2,400kr,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숙소 찾기

호텔뿐 아니라 B&B, 팜스테이, 캠핑, 산장 등 숙박 형태는 다양하다. 다만 여름철은 성수기이고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다. “일단 사람들이 많은 동네로 가서 호텔을 찾아보지 뭐.” 같은 방식은 이 나라에서 통하지 않는다. 아이슬란드 농가에서 운영하는 팜스테이(www.farmholidays.is)도 추천할 만하며, 에어비앤비(airbnb)나 카우치서핑(www.couchsurfing.org), 또 6~8월 사이에만 운영되는 캠핑장 이용도 추천한다. 캠핑장 위치 정보는 관광안내소에서 구할 수 있다. 캠핑장은 1박에 1인당 1,000kr 정도.



현금보단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카드 사용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아이슬란드에서는 슈퍼에서 껌 한통을 사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내는 게 자연스럽다. 공항이나 도심 은행에서 달러화나 유로화를 아이슬란드 크로나로 환전할 수 있지만 조금만 하는 게 좋다. 시골의 작은 상점이나 집 앞에 펼쳐놓은 벼룩시장이 아니라면 이 나라에서 현금 쓸 일은 거의 없다. 화폐 단위는 아이슬란드 크로나(ISK, Kr), 2014년 6월 기준으로 ‘1크로나=8.934원’이다. 환율 계산이 번거로우면 ‘1크로나=10원’으로 보고 아이슬란드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된다. 지폐는 네 종류(5000·2000·1000·500Kr), 동전은 다섯 종류(100·50·10·5·1Kr), 수산물을 주요 소득원으로 가진 나라답게 동전에 대구, 고래, 게 등이 새겨져있다.

햄버거, 핫도그가 일상식?

산에서 방목해 키우는 양으로 만든 요리, 싱싱한 생선 요리와 해산물 스프가 아이슬란드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다. 대체로 신선하고 맛있지만 대체로 좀 짜다. 관광객을 위해 고래 고기를 파는 곳도 많지만 그 바로 앞에는 귀여운 고래 그림과 함께 “Meet us, don't eat us.” 같은 간판이 붙어 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건 햄버거, 핫도그, 피자. 주방을 쓸 수 있는 숙소를 구했다면 혹은 코펠과 버너를 챙겨 갔다면 장을 봐서 직접 해 먹는 것도 좋다. 가장 대중적인 마트는 핑크색 돼지가 그려져 있는 보뉘스(Bónus), 대개 오후 6~7까지 영업하고 일요일에는 쉬는 곳도 있다. 햇반이나 누룽지, 라면을 챙겨 가면 요긴하다. (하지만 빙하를 돌아본 후 자갈밭에서 코펠을 꺼내 라면과 햇반을 즐기는 한국인을 만나는 건 민망한 일이었다. 취사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주중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는다. 대신 금요일과 토요일 밤이면 다음날 새벽까지 폭음을 즐기는 독특한 음주 문화가 있다. 알코올 중독은 꽤 심각한 문제여서 1945년까지는 맥주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었다. 또 일반 마트에서는 술을 팔지 않는다. 레스토랑이나 술집 말고 술을 살 수 있는 곳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류 매장 빈부드. 대개 오후 6시면 문을 닫고 토요일에는 더 일찍 닫고, 일요일에는 쉰다. (케플라비크 국제공항에 내리면 수화물 찾는 곳 바로 앞에 면세점이 있다. 렌터카를 예약했다면 체류 기간 동안 필요한 주류는 이곳에서 구입하는 게 싸고 편리하다.)





렌터카 없이 여행하기

현지 여행 상품이 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버스이용도 편리해서 꼭 차를 렌트하지 않아도 여행에 무리는 없다. 레이카비크에서는 걸거나 버스를 이용하면 되고, 장거리 이동은 여름 한 철 판매하는 다양한 패스 가운데 고르면 된다. 여행사들의 관광 상품이란 대개 온천이나 빙하 투어, 화산 지대나 빙하 트레킹, 고래나 파핀 관찰 같은 것들이다. 물론 겨울 이라면 당연히 오로라 투어가 핵심이겠지만 말이다. 레이카비크 101 구역에 있는 관광 안내소(Tourist Information Center)에는 각종 지도와 함께 아이슬란드에서 가능한 모든 관광 상품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고, 친절한 직원들이 상주한다. 각종 예약도 진행해 준다. 관광안내소에서 웰컴 카드(1일 기준 1,500ISK)를 구입하면 레이카비크에서는 버스를 포함해 미술관, 수영장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어는 세 마디면 충분하다

이 나라 국민들은 아이슬란드어를 공용어로 쓰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덴마크어와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아이슬란드어는 9세기 후반 아이슬란드에 정착한 바이킹들의 언어, 즉 고대 노르웨이어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다른 언어와 교류도 거의 없었고 특히 지난 몇 세기 동안 외래어를 철저히 배제하는 매우 보수적인 언어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언어의 화석’이라 불릴 만큼 변화가 느린 언어다.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는 바, 현지인 누구도 당신이 아이슬란드어를 쓸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 지구에서 아이슬란드어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약 32만 명, 아이슬란드 국민이 전부라는 건 과장이 아니다. 기념 삼아 할로(Halló, 안녕하세요.), “타크 피리르(Takk fyrir, 고맙습니다)”, “스콜(skáll, 건배!)” 정도만 익혀보자.



렌터카로 여행하기

아이슬란드를 더 가까이에서 만나려면 차를 몰고 일주도로(링로드)를 따라 돌거나 때로 일주도로에서 벗어나 내륙 산악 지대로 들어가는 게 최선이다. 렌터카는 출국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도 있고 현지 관광안내소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미리 예약하면 해당 업체에서 공항으로 픽업을 나온다. 링로드만 달릴 거라면 상관없지만 그 길을 벗어나 달 표면 같이 거친 내륙으로 가려면 사륜구동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네비게이션에 아이슬란드어로 목적지를 입력하는 일은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보단 구글맵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관광안내소에서 얻은 지도를 이용하는 게 편리할 수 있다. 데이터로밍을 했거나 현지에서 심카드를 구입하면 도심은 물론 링로드에서도 와이파이 이용이 용이하다. 하지만 내륙에선 전파가 터지지 않는 곳이 많다.



다리를 조심하세요!

아이슬란드를 다녀온 이들은 종종 “길이 한가해서 운전하기 편하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이 문장에는 “그래서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말이 생략돼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앞뒤 좌석 모두 안전벨트 착용 및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다니는 게 의무. 그리고 운전 전에 세 번만 외치자. “과속 금지!, 과속 금지!, 과속 금지!” 도심 제한 속도는 50킬로미터다. 링로드는 잘 포장된 2차선 도로지만 폭이 좁고 도로 가장자리가 기울어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유로 중앙선을 몰고 달리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과속에 적합한 도로가 아니다. 제한 속도는 90킬로미터. 비포장도로 제한 속도는 80킬로미터다. 링로드에서 마주치는 운전자 대부분은 그 길이 처음인 여행자들이다. 렌터카 많은 제주도에서 운전이 쉽지 않은 것과 비슷한 이치랄까. 특별히 주의할 것은 높은 언덕을 오를 때, 그리고 다리를 건널 때다. 무조건 서행과 양보 운전이 답이다. 특히 2차선 도로에서도 교각은 모두 1차선이라, 다리가 나오면 일단 입구에 서서 반대편에 진입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골 길을 달리며 풍경에 빠져 있는 사이 갑자기 튀어 나오는 양이나 말, 그리고 낮게 날아다니는 새도 종종 운전자를 놀라게 한다.

주차 및 주유

공용주차장 주차비는 기계에 카드를 넣고, 주차할 시간을 입력하고, OK 버튼을 눌러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단속반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발되면 번거로우니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꼬박꼬박 내고 다니자. 도심 도로변의 무단주차는 단속이 활발하다. (걸렸는가? 벌금은 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된다. 당일에 납부하면 15,000원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싸진다.) 링로드에는 한국처럼 휴게소나 주유소가 많지 않다. 주유소가 보일 때 마다 기름을 채워두고 물이며 음식도 사두는 게 좋다. 주유 역시 셀프 시스템이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넣고 모니터 지시대로 따라하면 된다.



내륙으로 들어갈 경우

내륙 산악지대는 원시의 거대한 황무지다. 트레커들을 위한 산장 외엔 숙박 시설도 전무하며 서비스 시설은 커녕 강을 건널 다리조차 없는 땅이다. 휴대 전화도 터지지 않아 사고가 나도 구조를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일 년에 두 달, 7~8월에만 개방하는 이 내륙에서 캠핑을 하거나 트레킹을 하는 건 백야의 아이슬란드를 찾는 이들의 로망이다. 내륙지대에는 12개 정도의 트레킹 루트가 있다. 거대한 이끼며 빙하보다 더 환상적인, 도무지 지구 같지 않은 풍경이 펼쳐진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달로 향하기 전 훈련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다.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아이슬란드 지도에서 'F'로 시작하는 도로가 거친 내륙 산악 도로다. 또 그 길 위에 종종 보이는 'V' 표시는 강을 뜻한다. 여름이 시작되면 빙하 녹은 물이 불어나면서 곳곳에 없던 강이 생기고 실개천이 급류로 변하기 때문에 지도에 V 표시가 없더라도 길이 끊어진 곳은 많다. 차체 높은 사륜구동 이라도 강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확신이 100퍼센트 들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돌아 나오시라. 산악 도로 상황 및 개통일은 기후나 날씨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슬란드 도로·해안 관리청 홈페이지(www.vegagerdin.is)에 가면 도로 현황을 표시한 지도가 올라와 있고 더 최신 정보는 전화로 확인하거나 (+354-522-1100) 관광안내소에 문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내륙으로 들어갈 땐 두 대의 차량이 함께 움직일 것을 권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동행과 함께 움직이자. 트레킹을 할 경우 도심에서 트레킹 출발 지점 인근까지 장거리 버스가 다닌다. 작은 산장에서 자거나 산장 근처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다. 트레일 정보 및 산장 예약 등은 아이슬란드 여행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www.fi.is)를 참고하고, 더 자세한 정보는 현지에서 관광안내소에 문의하면 된다. 여름이라도 폭우와 강한 바람이 수시로 불기 때문에 캠핑을 원하면 장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가볍고 튼튼한 텐트, 가볍고 따뜻한 침낭, 가볍고 튼튼한 등산화를 가져간다면 어떤 루트든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다!



내륙 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인랜드로 출발하기 전, 꼭 아이슬란드 구조·수색 협회 사이트(www.safetravel.is)에 자신의 행선지 등 여행 계획을 남겨두고, 스마트 폰에 'Iceland 122' 애플리케이션도 깔자. 응급 상황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여행자 위치가 112센터에 문자 메시지로 전송이 되고 구조대와 통화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통신 전파가 잡히지 않더라도 문자 메시지 전송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선 일단 빨간 버튼을 누르라는 게 구조대의 조언이다. 초록 버튼은 자신의 이동 경로를 112센터에 저장해 두는 기능이다. 가장 최근 위치를 기준으로 다섯 군데의 이동 경로가 저장되며 유사시 이 경로를 따라 구조대가 수색을 벌인다. 구조대는 “구조 요청을 했다면 우리가 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조언한다.

물에서 달걀 썩은 냄새가 난다?

지구 열점에 위치한 나라답게 아이슬란드는 지열 발전이 발달했다. 실외 수영장의 온천수나 각 가정에 공급되는 난방수나 생활 온수도 이 지열로 데운다. 그래서 주방이나 욕실에서 뜨거운 물을 틀면 유황 냄새가 난다. 하지만 수질은 아주 좋다. 일부 사람들은 그게 썩은 달걀 냄새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그건 과장이고, 유황달걀 냄새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 아이슬란드인들은 매번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고, 여행객들도 곧 익숙해진다. 더불어, 요리를 할 때 주방에 나오는 온수를 사용하면 놀라운 맛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요리를 할 때는 꼭 차가운 물만 사용하자. 아이슬란드에서는 생수를 구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찬 수도물은 깨끗하고 맛있다.



독립적인 사람들의 나라

아이슬란드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답게 가족 형태도 다양해서 ‘싱글 맘’과 ‘싱글 대디’도 흔하고 자식들마다 엄마가 다른 경우도 많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만,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연애를 하고 아이를 낳고 그 후에 결혼을 결정하는 게 흔한 일이다. 남녀평등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2012년 말에는 총리와 국회의장, 그리고 국교인 루터교 주교도 여자였다. 물론 여전히 여자들의 평균 월급은 남자들보다 적고 집안일도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하지만 말이다. 한편,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상대의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서로 이름을 부른다. 오늘 처음 만난 회사 사장님 이름이 온 칼달이면, 당신은 그를 미스터 칼달이 아니라 온이라고 부른다. 친구 부모님도, 어린 아이가 선생님을 부를 때도 그냥 이름만 부른다.

누군가의 딸이나 아들로 불리는 사람들

아이슬란드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북유럽의 오랜 전통에 따라 아빠나 엄마 이름을 넣어 성을 만든다. 남자라면 아빠나 엄마 이름 뒤에 ‘son’(손)을, 여자라면 ‘dottir’(도티르)가 붙는 식이다. Jón과 Sara 커플이 있고 그들이 낳은 아들 이름이 Karl, 딸 이름이 Katrin이라고 한다면, 아빠의 이름을 따를 경우 아들은 Karl Jónsson(온의 아들 카를), 딸은 Katrin Jónsdottir(온의 딸 카트린)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아빠 이름을 따르지만 엄마 이름을 따른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아이슬란드인 이름 뒤에 ‘son’이나 ‘dottir’가 붙는 건 아니다. 덴마크의 영향으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가문의 이름을 성으로 쓰는 일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성을 ‘창작’하기 시작하면서 나라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제 없던 성을 만들어 써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외국인이 아이슬란드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뿐이다. 요즘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이름 뒤에 son이나 dottir가 붙지 않는 것은 대개 이미 가문의 성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경우다. 온 칼달(Jón Kaldal) 씨의 딸 카트린(Katrin)이 그냥 카트린 칼달(Katrin Kaldal)이 되는 식으로 말이다.



아이슬란드에 없는 것

아이슬란드에는 맥도날드가 없다. 2009년까지 세 개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모두 문을 닫았다. 어느 햄버거 가게를 가도 맥도날드보다 맛있는 햄버거를 팔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된다는 게 현지인을 생각이다. 같은 이유로 스타벅스도 없다. 또 아이슬란드에는 기차가 없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해안가는 링로드로 모두 연결되어 있고 장거리 이동은 비행기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편 아이슬란드에는 흥정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곳이 벼룩시장이라도 가격표에 붙어 있는 게 당신이 지불할 금액이다. 더불어 아이슬란드에는 팁 문화가 없다. 고급 레스토랑도 택시도 호텔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아이슬란드에는 한국대사관이 없다. 여권을 분실했다면 노르웨이 대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레이카비크 물가

세계 물가 지수(2014년 5월 기준, www.expatisan.com) 조사표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카비크 물가는 서울과 비교해 평균 13퍼센트 정도 높다. 음식이나 유흥비는 11퍼센트 정도 높은데 반해, 교통비는 31퍼센트, 의류는 76퍼센트가 높게 나온다. (1kr=8.934KRW) 앞서 말했듯 가격 뒤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원화 가격과 비슷해진다.

핫도그 세트	800kr
햄버거 세트(음료 포함)	1,245kr
점심 식사(동네 식당, 1인 기준)	1,754kr
저녁 식사(동네 펍, 1인 기준)	2,189kr
저녁 식사(고급 레스토랑, 1인 기준)	5,159kr
카테일(클럽, 1잔 기준)	1,803kr
생수 한 병(330밀리터)	244kr
코카콜라 한 병(2리터)	316kr
카푸치노 한 잔	478kr
맥주(마트, 500밀리터)	343kr
맥주(바, 500밀리터)	846kr
담배 한 갑(말보로 기준)	1,097kr
주유비(1리터 기준)	252kr
택시비(8킬로미터 기준)	3,023kr
영화표(2인 기준)	2,534kr



아이슬란드 정보는 이곳에서

www.icelandmag.com
icelandreview.com
grapevine.is
www.inspiredbyiceland.com



“뜨거워지는 6월,
차가운 레몬에이드도
나를 상쾌하게 하기엔 부족하다
밖으로 나가자”

상쾌해지자 몽벨만큼...



더위를 이기는 기술, **몽벨 쿨링 셔츠**
울 여름 몽벨 쿨링 셔츠로 마음까지 상쾌해지세요



몽벨의 기술로 만든 흡수속건이 뛰어난 소재로, 외부의 열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몸은 빠르게 흡수해줍니다.

wickron



저열리튬 성분 가공에 의한 냉감기능이 뛰어난 소재로, 내복의 열을 빠르게 방출하여 상쾌함을 유지해줍니다.

icefil



LS Networks

140-70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LS Yongsan Tower, 9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Korea #140-720